



8

198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8호

(루계 406)



◇◇◇◇◇◇◇◇◇◇ 차 례 ◇◇◇◇◇◇◇◇◇◇

묘향산시초	4
혁명승리에 대한 영웅서사시적화폭	9
눈송이	13
산촌의 풍경	14
제일명승 묘향산아!.....	22
묘향산 (외1편).....	23
전사의 총탄	24
용해장의 갈매기	24
아버지	25
첫자욱	35
끝나지 않은 인제	43
변함없는 마음을 두고	48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었네	49
행복이란 무엇인가 (외1편).....	50

나의 어머니	51
어제도 오늘도	52
다시 5월을 불러	55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진실한 서사시적화폭	56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60
탈출기	63
당 비.....	67
북녘으로 출정하며	72
시름	72
장갑	73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와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요강발표	74
새로 나온 고전소설 소개.....	76
인간-당일군	78
계급투쟁을 취급한 력사소설을 더 많이!.....	79

묘향산시조

사랑의 길을 따라

리범수

물 건너 바위 넘어
나는 가네 즐거운 등산길
폭포수 뛰어내려 마중나오고
푸른 숲 손저어 어서 오라 부르네

오늘도 쾌청이라 바람새 좋구나
가는곳 하비로는 어디
가는곳 형제폭포는 어디
바라보니 묘향산제일봉은
아득한 구름끝에 솟아있구나

갈래갈래 천갈래
길은 많아도
사랑의 한길 따라 가는 이 마음
걸을수록 오를수록 가슴뜨겁네

천년 앞날을 내다보며
천만 뒤사람을 생각하며
길 없는 험산준령 넘고 또 넘어
우리 당의 해발이 비치는 이 길

자옥마다 사랑의 이야기 새겨져
걸음마다 새 전설 꽃피는 이 길
내 어이 이 길을 무심히 보랴
내 어이 이 길을 무심히 걸으랴

숲은 설레며 이야기하고
물은 흐르며 노래로 전하네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면
뒤에 오는 사람도 돌아설것이요
갑시다, 형제폭포로!

우리는 비로봉로정의 개척자들이요
아, 그 노래 산과 산이 받아외우고
그 노래 물길 따라 굽이굽이 흐르네
비뿌리던 그날의 칼벼랑 넘어
비로봉 상상봉에 메아리치며
당이어 그대의 그 사랑 그 로고를
걸음걸음 뜨거이 새겨안으며
높아도 낮아도 마음은 한길
멀어도 가까와도 따르는 한길

나는 가네
인민을 위하는 그 마음 새기며
그대 걸어간 자옥자옥에
마음도 걸음도 함께 맞추며

나는 보네
당의 사랑 어리어
구슬같이 맑은 물
옥같이 흰바위
무지개 비낀 신비로운 폭포수...

나는 듣네
당의 뜻 깃들여
인민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맑은 물소리
즐거운 새소리
푸른 숲 설레는 싱그러운 바람소리

아 당이어 사랑의 품이어!
봉이마다 인민의 행복을 엮어주며
바위마다 조국의 미래를 새겨주며
이 길에 고동친 그 숨결을

내 작은 심장에도 안고가거니
 이름없는 한줄기 폭포를 두고
 말없는 한떨기 꽃을 두고
 당이 헤아린 그 기쁨
 어느덧 그 기쁨 내것이 되고
 인민의것이 되고
 조국의것이 되는
 이 등산길

어찌 준엄한 날뿐이라
 레사롭고 즐거운 등산길에서도
 당이여 내 언제나 그대를 따라
 한마음 한길을 걸어가거니

 안아보자 비로봉
 은혜로운 해발이 빛나는 절정
 사랑의 그 자욱 층층이 피어
 하늘가에 솟아오른 제일

상원동을 오르며

김석주

차마 손을 잡그지 못하겠네
 물이 흐려질가봐

 티끌 하나 못버리겠네
 산이 하두 깨끗해

 물은 돌을 다듬어 옥같이 희고
 옥돌에 담아 물은 구슬이런가

떠나기 아쉬워 떠나면 놓칠것같아
 걸음도 옮기지 못하겠네

 아, 이 돌, 이 물, 이 나무
 정없는 산천이라더니 이다지도 유정한가

 예 아니 보고 아름다움 말할가
 세상을 다 준데도 내 아니 바꿀 너!

묘향산의 두봉화

구희철

두봉화 두봉화
 향산에 피는 꽃
 송이송이 천만송이
 산이 좋아 여기 뿔나

향산이라 온갖 꽃 피어웃고
 봉이마다 고운 꽃 향기 뿔어도
 너만이 안았던가
 사랑 넘친 당의 햇빛

봄내 기다려
 그리움에 타던 꽃
 좋은 철 좋은 날에
 만발한 두봉화

꽃을 보고 나 봐도
 그 햇빛만 안고 살아
 좋은 세상 좋은 세월
 함께 뵈 너와 나

오시는 걸음걸음
 아꼈던 향기 날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더욱 붉어 바래던 꽃

아 그 햇빛 파사로와
 그리도 붉게 타는 꽃
 오는이 가는이
 물들어 마음도 붉게 타네

형제폭포에 부치는 노래

차영도

먼곳에서 바라볼 땐
나 먼저 산이 오른 꽃같은 처녀들이
하비로버랑가에 홀리고 간
두폭의 하얀 비단수건일듯싶더니

가까이 와보니
내려쫓음이 천길이요
울려감이 구만리라
이름 또한 정다운 형제폭포로구나!

벼랑가엔 은구슬, 아니 금구슬
못가엔 정향꽃 그윽한 향기
선녀같은 처녀들은 고운 손에 산나물 뜯고
젊은이들 물속의 제모습과 마주웃네

그 옛날엔 전설속의 선녀들만
여기에 내렸더더니
좋은 세월, 이 봄날엔 《선녀》《선남》 모두 내려
쌍폭포가 하늘길에 형제다리 놓았느냐

머리우엔 물소리
폭포밑엔 웃음소리
물소리 웃음소리 한데 어울려
이 또한 묘향산의 절경이로다

중구나 하늘가에 그 한끝을 걸어놓고
쌍을 지어 내리는 아름다운 폭포수
이밑에선 이름모를 용해공도 젊은 탄부도
등산의 즐거움에 서로들 구면친구

고마운 땅의 햇빛 여기에 어려
사랑의 물노래 끝없는 형제폭포
얼마나 좋으나 물소리 물소리에
행복한 우리 가슴 한껏 적셔봄은...

폭포수야 폭포수야 형제폭포야
조국땅 곳곳에서 찾아온 우리
아 물소리 아름다운 네밑에 서니
은혜로운 햇빛속에 우리도 친형제로다!

비로봉에 올라

문재건

벼랑을 디디고
구름을 헤치고
묘향산에도 상상봉
내 비로봉에 높이 올라 굽어보노라

천골짜기 만골짜기
하늘은 필필이 비단을 드리웠는가
내려쫓는 폭포수에
온 산이 장엄한 노래를 불러라

일만봉우리가 솟구쳐 일어서며
천고밀림이 푸른 옷자락을 날리니
향기는 넘치누나
골안에도 상상봉에도

세상의 아름다움
땅우의 장엄함을
네 혼자 한품에 지녔구나
산아, 묘향산아

너 반만년 력사의 증견자야

민족의 슬기를 바위에 새기며
가슴치던 세월의 고달픈 력사도
네 검푸른 이끼속에 묻어왔다

그 어느때부터였더냐
그 정기를 날리며
너의 기묘함
너의 푸르름을 자랑하며
인민의 묘향산으로 솟아오른것은

아 밀림은 설레어
아버이 그 은덕을 노래하고
끝없는 열두삼천별이
수령님의 그 사랑을 안고
파도치며 달려오누나

그 어느때부터였더냐
너의 기슭을 씻으며 흐르는
청천강 맑은 물우에
사랑의 은덕다리
무지개로 비껴솟은것은

구름우에 층층 다락밭
산마다 향기로운 과일은 무르익고
구름따라 양떼따라 흐르는 강물은
락원의 산수도를 펼치었구나

저 아득한 수평선을 밀어내며
간석지 새 제방은 뻗어가고
흰연기 뿜어올리는 은빛 첩탑들
점점이 솟아오른 철의 산악들이
락원의 이 강산을 떠받들었나니

묘향산아, 너는 오늘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있어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어
이 찬란한 사회주의경치
락원우에 락원
절승우에 절승으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리는것 아니냐

더없이 귀중한 내 조국강산
묘향산 비로봉에 올라
한없이 뜨거운 그 사랑
한없이 크고 높은 그 위업
다시금 이 가슴에 새기니
내 이 땅에 태어난 자랑
아 비로봉 너보다 더 높아라

나의 당세포 외1편

김진수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하고
한지향 한뜻으로 뭉친 동지들
열두명 당원들이 모여사는곳
나의 당세포를
내 정치생활의 요람으로 안다

진정을
당을 받들고싶은 끝없는 진정을
다듬어 고이고
당의 뜻 꽃피울 그 마음을
다지고 키우며 빛내여가네

태어난 고향과 나이는 다르건만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두고
그 이름과 함께
자각된 주인들이
혁명의 동년배로 사네

저마다 받아안은 분공을
하나같이 심장에 새겨안고
하나같이 손을 든 결정을
받들어 사네
언제나 마음의 창문을
당중앙을 향해 열어놓고

찾으면 마음 든든해지고
불러보는 생각이 뜨거워
부모앞에 말못할 사연도
숨김없이 먼저 터놓으며
더더욱 가까와지는 당세포

칭찬할 일보다
못미치는 생각을 얼른 깨우쳐주고
저보다 먼저 남을 위할줄 아는
그 마음을 키워 버릇처럼 굳혀주며
사람들앞에 떳떳이 내세워주는
그 은정이 호수처럼 고이여있네

당을 이루고
당중앙의 숨결로 숨쉬는 세포
떨어져 살수 없고
헤어져 있을수 없네
세포 없는 당생활

아 어머니처럼 늘쌍 보살펴주며
이끌어주는 세포의 손길
그것 없인 집없는 고아
해빛 없는 초목이 되리

날개 없는 새가 되리

당생활의 년한이 늘어가도

아이처럼 기쁨에 찾고

나이와 함께 백발이 없힌다 해도

청춘의 열정을 안겨주는 세포

량심을 비쳐보는 거울이 되어주고

한생의 삶을 가장 빛내여주는

나의 조직 나의 당세포

당중앙과 하나로 이어지며

당중앙의 향도의 해발아래

주체의 리념을 이 땅우에 꽃피워가는

나의 당생활의 품이어

한지향 한뜻으로 뭉쳐사는곳

불러만 보아도

생각만 하여도

언제나 가슴속에 꽃피는 봄빛

따사로운 그 봄빛이 넘쳐흐르네

당원에 대한 이야기

일흔고개 바라보는

산촌마을 할머니

깊은 한밤중에

문득 잠을 깼네

창문을 흔드는 바람소리

마음의 한끝을 흔들고있어

랭상모판 하얀 박막이

할머니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조용히 자리털고

대문박을 나서는데

쏟아지는 비줄기

몰아치는 폭풍

날릴듯

날려갈듯

치마꼬리 걷어쥐고

담장박을 돌아가네

몇몇집을 건너왔나

어디로 가는걸가

어두운 밤, 밤길을

바람 안고 쓰러질듯

엎어질듯 넘어질듯

마침내 와닿은

이 집은 뉘네 집

가쁜숨 몰아쉬며

락수물 쏟아지는 토방에 올라서며

-이 사람

세포비서

박막이 날리네

랭상모판 박막이

수수한 그 한마디

천등번개보다 높이 올렸네

비발속 당원들의 발걸음 불러내며

번뜩이는 번개속에 사람들 뛰었네

폭풍을 잠재운

랭상모판 머리에서

젖은 옷 마주짜며

주고받는 이야기

생각도 뜨거워져

가슴도 후터워져

그가 바로 참된 당원이지

그게 바로 당을 받드는 진정이지

깊어지는 생각

서로 나누며

주고받는 마음

견주어보는

로당원에 대한 이야기

전해지고 전해졌네

군당에도 그 밤에

도당에도 그 밤에

로당원 할머니의 그 이야기

혁명승리에 대한 영웅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리동원

당의 령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장식한 자랑찬 성과중에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도 들어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이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장식한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시고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밝혀진 심오한 혁명의 진리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한데 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적의 총검의 숲을 헤치시며 남패자로부터 압록강연안 국경지대로 나오시던 가장 간고하고 영광에 찬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을 서사시적화폭에 담고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을 어떤 힘으로 타개해나가시며 혁명의 역경을 순경으로,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길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실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기본 문제로 설정하고 준엄하고 자랑찬 생활력사를 펼쳐보여준다.

작품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는 한편 후방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 《토벌》작전에 혈안이 되어 미쳐날뛰었다.

이러한 때에 좌경모험주의자들에 의하여 《열하원정》이 강요됨으로써 항일련군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으며 그 후파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항일혁명투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다.

일제는 관동군주력사단과 위만군, 경찰대 등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한 《요점배치》와 《장거리추격전》을 들이댔으며 남패자일대를 포위하고 항공대와 지상부대의 협동작전만에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11월 력사적인 남패자회의를 여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위대한 전략적 방침을 내놓으시고 국경일대와 국내에 무장투쟁을 확대하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몸소 간고한 행군길에 오르시었다.

남패자를 떠나 북대정자에 이르는 100여일의 행군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첩되는 난관과 피어린 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간 시련에 찬 간고한 투쟁로정이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간고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고난의 행군과 같이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와 장설을 헤치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죄어드는 일제의 대규모적 《토벌》공세를 막아내면서 걸음걸음 피어린 길을 헤쳐나간 것처럼 시련에 차고 간고한 수천리 행군은 일찌기 없었다.

장편소설은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길에 난관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것을 초인간적힘으로 맞받아 극복해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의의있는 인간문제에 심오한 철학적 해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고난의 행군과정은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적 공세도 자기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 인민혁명군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191페이지)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은 그 어떤 원수들의 발악적인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선 그러한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은 불패의 힘을 키우며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흔들릴줄 모르고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불사신같이 싸우는 강철의 대오로 자라나며 상상을 초월하는 무적의 힘을 낳는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력사가 실증하는 엄연한 생활의 진리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거대한 힘을 키우며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도 이겨낼수 있다는 심오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는데 기본형상과제를 두었다.

소설에 반영된 남패자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력사적인 행군로정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생활화폭들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

도밀에 이룩된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무엇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인간의 위대성을 믿으시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은 처음부터 혁명무력과 반혁명무력의 첨예한 대결과 투쟁을 보여주는 말그대로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열한 결전이었다. 그러나 혁명소설은 이것을 단순한 힘의 대결이나 군사력의 충돌로만 보여주면서 사건제시로 그친것이 아니라 위대한 령도가 낳은 인간의 힘의 불패성, 고난의 행군의 승리의 요인을 밝히는데로 형상을 집중시켰다.

소설에는 수많은 사건과 생활이 엮여져있지만 바로 이 생활과 투쟁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를 예술적으로 확인하는데로 일관하게 지향시키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조직하시면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위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하기에 적들의 포위와 추격, 모진 혹한과 굶주림에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참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고난의 행군을 이겨가는 사람들, 결전장에서 쓰러지면서도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청춘도 생명도 조국과 혁명에 고스란히 바쳐 정치적생명을 빛내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보여준 참다운 인간이었다.

인간의 존엄과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으시고 거기로부터 모든 전략과 투쟁을 설계하시며 그속에서 인간의 힘의 불패성을 찾으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사상이며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근본요인이었다. 엄혹한 시련과 헤아릴수 없는 역경으로 수놓아진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낳은 힘의 승리였으며 인간의 위대성을 믿으시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령도의 승리였다.

혁명소설은 이러한 진리를 수많은 생활적사실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힘으로써 소설의 종자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꽃피워나갔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이 가지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의의와 참된 가치가 있다.

장편소설은 고난의 행군의 대서사시적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고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힘을 믿으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몸소 헤쳐가시며 주동적으로 혁명의 진로를 열어가시는 위대한 정치적수령으로서의 장군님의 숭엄하신 형상을 정중히 모시고있다.

소설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인간의 힘에 대한 새로운 확신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전략과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하신 형상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남패자회의에서 위대한 전략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을 이겨낼 불패의 힘, 적보다 몇백배 강한 힘은 인간의 존엄을 자각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혁명전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에 있다는것을 밝혀주신다.

그것은 소설에서 아무리 험난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조선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하늘의 별들처럼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믿음직한 혁명전사들이 있는 한 반드시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것이라는 확신에 차계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상적충격, 웅심깊은 세계를 심오한 형상으로 펼쳐보여주는데서 잘 볼수 있다.

소설은 또한 남패자를 떠난지 한달가까이 되는 사이에 초인간적힘으로 조국진군의 혈로를 헤치고 장백지구에 들어선 대원들의 무비의 영웅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온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며 조국진군의 위대한 전략을 무르익혀가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색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소설은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숭엄하신 형상을 대원들의 다양한 시점을 통하여서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소급사건을 통하여 벌어진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시고 비상한 전격력과 탁월한 령도로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끝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설레이는 대원들의 가장 높은 감격을 그린데서 볼수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또한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탁월한 전술과 전법을 지니시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비범하신 예지와 통찰력, 독창적인 전술은 적의 주구를 인질로 잡아두고 그를 리용하여 남패자회의도 여유있게 벌리시며 회의를 끝내자 곧 불의에 기습전을 들이대어 적의 포위를 뚫고나가게 하시는데서 볼수 있

다.

적들은 회의가 열리는 남파자지구를 겹겹이 포위한 다음 혁명의 변절자 박종학에게 《귀순공작》 임무를 주어 사령부에 들여보낸다. 그리고 그의 신호에 따라 총공격을 벌리기로 하고 대기하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천리혜안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박종학이더러 아직 사령부를 만나지 못하였으니 다음 소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있으라는 편지를 쓰게 하신다. 그 편지를 받은 관동군우두머리놈들은 일체 공격을 중지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놈들은 하루이틀 지나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고 경계망을 늦추게 된다.

이렇게 기묘한 전술로 원쑤놈들을 엮어맨 다음 회의를 여유있게 끝내신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긴장이 풀린 적들을 일격에 치고 포위진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 감쪽같이 속은 적들은 뒤통수를 맞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으나 놈들이 점령한 진지는 이미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적의 시선과 화력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허위진지였다. 놈들은 이 허위진지에 눈독을 들이고 필사적으로 달려들다나니 포위진을 뚫고나간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알수 없었던것이다.

다시 속은것을 알게 된 원쑤들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요점배치》와 《장거리추격전》을 들이댄다. 이러한 정황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7도구치기에 이르시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세개 방향으로 분산시키심으로써 놈들은 사령부의 행적을 놓치고 갈팡질팡하다가 도처에서 기습당하여 무리죽음을 당하게 되는것이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활무쌍한 독창적인 전법을 7도구치기전투, 13도구전투 그리고 부후물등관전투들에서 특히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후물등관에 이르시여 뒤따라오던 적들이 산기슭을 한바퀴 돌게 하신 다음 부대는 통나무를 놓고 감쪽같이 산속으로 빠지게 하심으로써 뒤따라오던놈들이 저들끼리 개싸움을 벌리게 하신다.

장편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집중과 분산, 민첩한 이동으로 적들을 혼란속에 몰아넣으며 주도권을 틀어쥐고 놈들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기진맥진하게 한 다음 불의에 타격하고 소수인원으로 적진을 들쑤서놓고 몰래 빠져나옴으로써 제놈들끼리 맞붙어 싸우게 하는 등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천변만화하는 독창적인 유격전술에 대하여 생동하게 보여준다.

그리하여 소설은 탁월한 전법과 령군술으로써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가장 숭고

한 높이에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세련된 령도예술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고매한 덕성을 지니는것은 위대한 수령만이 체현할수 있는 가장 숭고한 품모이다.

장편소설은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대원들을 고무하시며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혁명적의리로써 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힘을 키워가시는 어버이사령관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100여일을 헤아리는 엄혹한 시련과 헤아릴수 없는 역경으로 수놓아진 고난의 행군의 자랑찬 승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피주신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사랑이 낳은 힘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소설은 이것을 행군과정에 있는 다양하고 극적인 생활과 사건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준다.

오늘도 천만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훅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고난의 행군과정에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전령병인 재영이와 상철이가 벌써 몇끼를 건드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건강을 넘려하여 배낭속에 소중히 간수해오던 한훅의 미시가루를 그이께 올렸을 때 오히려 전사들을 생각하시여 그것을 나어린 전령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실로 한량없는 어버이사랑에 대원들은 목이 메이는것이다.

장편소설은 고난의 행군과정에 있는 수많은 감동적인 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혁명적의리를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주영찬중대장이 좌경모험주의로선에 휘말려들어 자기 대원들을 다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무서운 비난과 추궁속에 낮이 나간 사람처럼 인적없는 수림속을 헤매고있을 때 그의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에게 진정으로 혁명에 충실할수 있는 참다운 길을 가르쳐주실뿐아니라 신심과 용기도 안겨주고 용맹성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를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아 경위련대장으로까지 키워주신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세계혁명가》를 신나게 부르던 한태혁전사가 혁명가의 아들딸인 철봉이와 순애를 불길속에서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을 때에도 사랑하는 그 전사의 이름을 몇번이고 부르시며 가라앉힐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숲속을 걷고 또 걸으시었던것이다.

실로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경위련대장 최성택에 대한 어버이사랑에서도 잘 볼수 있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최성택련대장은 항일련군부대를 보호할 어려운 과업을 맡고 사령

관동지의 결을 떠나게 된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려운 혁명의 길에 떠나보내는 전사를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하시고도 다하지 못한 사랑의 아쉬움으로 하여 다시 그를 부르며 하시고는 자신께서 차신 권총을 선물로 주시고서야 그를 멀리 떠나보내신다.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멀리 장군님의 결을 떠나 그 어디에 가셔도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명령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선을 넘고 또 넘었던 것이다.

그렇듯 사랑하는 전사가 적의 포위속을 뚫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비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사실을 현실로 받으실 수 없으시여 다시금 사람을 띄워 알아보시고서야 삭일 수 없는 마음을 안고 끝없이 걸으시는 것이었다.

이처럼 소설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진정에 넘치는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혁명적의리가 있었기에 력사상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바로 여기에 혁명전사들이 낳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었다는 것을 힘있게 확인하고 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서사시적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의 다양한 개성적인 형상도 감명깊게 보여준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 뜨거운 동지애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과정에 무적의 힘을 키워가며 조선혁명의 주인으로 자라나는 최성택, 안충렬, 련대장과 정치위원 리철범, 주영찬과 홍치도, 정지성, 기관총수 한태혁과 장경수 그리고 전령병들과 재봉대원들, 작식대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하고 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 모든 형상들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뜨거운 사랑의 해발아래 자라나는 해바라기들이며 자주적인 간의 참된 전형들이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을 혁명가로 참된 인간으로 키워주시고 언제나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돌도 없는 귀중한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자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들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최성택, 련대장을 비롯한 지휘원, 병사들의

영웅적투쟁은 위대한 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전사들이 생의 보람과 철석같은 신념을 어디서 찾아가 하는것을 높은 형상세계에서 보여준다.

최성택, 련대장은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조선인민혁명군 련대장으로 자라난 혁명전사였다. 그는 남파자회의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사령부와 떨어져 다른 방향에서 활동할 임무를 받고 떠나면서도 늘 사령부의 안전에 대하여 잊지 않는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우다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며 마침내 전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들의 총탄을 한몸에 유인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혁명전사는 숨져가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것을 한스러워 눈을 감지 못하며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이 길을 떠나보내시면서 주신 권총을 장군님께 보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소설은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 바치는 혁명전사들의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힘있게 확증하고 있다.

위대한 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귀감은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형상에서 가장 높이 형상되었다.

장편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건말건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이의 건강과 안녕, 신변보위를 위하여 온갖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인다.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고난의 행군의 나날 자주 끼니를 건느시는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행군의 휴식시간이면 한길되는 생눈을 파헤치시고 그속에서 산나물도 얻어내시었다. 그이께서 소중히 간직하여오신 비상미도 바로 사선을 헤치고 마련하신 것이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는 은수저를 늘 윤기나게 닦고 닦으시며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시었던가. 하기에 그 은수저로 소금에 독약을 친것을 제때에 알아내시여 사령부에까지 미칠번한 위험을 미리 막아내시었던 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위급한 전투정황에서도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었다.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전투지휘에 여념이 없으신 사령관동지의 가까이에 원썬놈들이 기어드는것을 발견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 위기일발의 순간에 목숨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적방침을 건결히 옹호보위하고 사령관동지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서도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김정숙동지께서 후방밀영에 틀고앉아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면서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파자회의에서 천명하신 혁명적방침을 외곡집행하는 종파사대주의자 려정호의 정체를 낱알이 발가놓으시며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는데서 잘 볼수 있다.

청봉밀영에서 학습토론이 진행되었을 때 려정호는 혁명정세의 평가를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방침과는 어긋나게 해석하면서 오늘은 혁명이 퇴조기에 이르렀다고 고창하였다. 이자는 또한 종교문제와 관련하여 그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좌경적언사를 써가면서 량심적인 종교인들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민족통일전선방침을 외곡해나섰으며 자기의 종파적행위를 가리우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독약사건을 꾸며내어 재봉대원들을 모해하고 지어 고문하며 처형하기까지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려정호의 백일하에 드러난 종파적인 배신행위를 준렬히 비판하시면서 너는 혁명이 끝난줄 알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를 찾아 줄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며 오직 사령관동지의 사상의지대로만 살며 싸우는것이다. 실로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기어코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옹호관철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혁명전사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이렇듯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고난의 행군과 같은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을 진실하게 펼쳐보여줄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고난의 행군과정을 통하여 힘있게 예술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참된 삶의 가치를 자각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일어선 사람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혁명소설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준다.

실로 혁명소설 《고난의 행군》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마음 다바쳐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면서 새로운 보다 높은 승리의 령마루에 힘차게 불러주고있다.

눈송이

윤병규

별이 그리워
쳐다보는 쇠살창틈새로
살쾅이 날아드는
흰눈송이!

자리 차고 일어나
뭉친 손에 고이 받는
반가와라, 눈송이...
어데서 날아왔나

어떻게 찾아왔나?
스치는 바람이 귀땀하더냐
지나는 날새가 눈짓하더냐
불을 대니 꺼질가봐 아깝구나

기빠라, 눈송이야
너 밀영의 흰눈 아니냐!

옥중의 몇몇해 사철 언제나
이 가슴에 내리어 쌓이던...

아 눈물속에 어리여오는구나
나를 바래주시던 그날처럼
눈내리는 사령부 프락에
기다려 서계실 장군님 모습!

살이 타고 뼈가 부서져도
드 돌아본적 없는 내 마음
눈송이야! 소리없는 네 속삭임에
피가 끓누나, 피가 끓누나

돌아가리 오 돌아가리
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백두의 깨끗한 눈송이 되어
기다리는, 기다리는 어버이품으로!...

산촌의 풍경

백남룡

1

꿀짜기를 빠져나온 눈보라는 맹수와도 같이 숲을 사정없이 흔들어놓았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흰 꼬리를 말아올리더니 얼음 깔린 강으로 질주해갔다. 사방에 키دون음을 하며 아찔하니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에는 뽀얀 눈가루가 안개처럼 감돌았다.

눈덮인 산비탈과 강둔덕사이에 난 길로 가방을 든 한 녀인이 걸어가고있었다.

털목수건을 눈앞에 바싹 가리운 녀인은 몸을 웅송그리고 눈속에서 힘겹게 발을 뿔었다. 입과 코주위는 온통 성애가 불리고, 털수건밖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은 은빛으로 뺨뺨해져서 오십고개를 갓 넘은 그를 로파처럼 보이게 하였다.

눈에 묻힌 길을 뚜렷이 가리켜주던 두줄기 썰매자리는 차츰 가늘어지더니 아주 보이지 않았고, 깊숙이 찍혔던 말발자국도 눈보라에 메꿔져 교양이 발자국같았다.

녀인은 그것조차 영 보이지 않을가 겁이 더러워서 허둥허둥 걸음을 옮겼다. 길을 잃지나 않을까, 해넘어가기전에 마을로 갈수 있을까... 아니 과연 이런 심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사는 아늑한 마을이 있단말인가. 딸이 교편을 잡고있는 학교 두 정말 있을까...

번거롭고 다심한 생각들은 녀인의 마음속에 눈보라와도 같이 밀려오고 밀려가군한다. 녀인은 몸이 점점 얼어드는듯 못견디게 추워났다.

그러자 두어시간전에 산간역장이 별경계 단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으며 권하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다. 《저렇게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칠 때는 프락포르도 다니지 않지요. 눈사태에 묻히기라도 하면 오도가도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땐 그저 따뜻한 방에 앉아서 바람이 자고 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게 상책입니다.》 그것은 이 깊은 산골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녀인에게 교훈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아갈수도 없다.

어데선가 메세 한마리가 날아오더니 눈속에 묻힌 잡초의 가느다란 아지를 위태롭게 부여잡고 날개돋음을 한다.

녀인은 메새가 가엾어보였다. 마른 풀씨조차 바람에 날려가버린, 온통 눈천지인 이 산골짜기에서 안식처를 찾아 날아다니는 메새가 어쩐지

딸의 모습을 련상시키는것이였다.

(그 철없는것이 에미품을 떠나 이런 낯선 교장에서 꽤 제구실을 할가?...)

녀인은 석달전, 사범대학을 졸업한 딸이 흥분하고 들뜬 기분으로 트렁크에 짐을 꾸려넣던것을 생각해본다. 딸애가 교육사업을 잘하도록 보살피주고싶은것이 어머니의 소망이었으나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딸은 배치장에 썩여진 먼 산촌의 학교로 떠났다. 마치도 한 보름쯤 바다가에 휴양이라도 가는 것처럼 즐거운 표정으로 정든 고향과 어머니결을 떠났다. 그렇게 가고는 어머니를 잃어버린듯 편지 한장 없었다.

(아무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대학강의실에서 그리던 공상처럼 단순하고 즐겁진 않았던게지... 하긴 산골애들이 무던히 애를 먹이는지도 모르지...)

녀인은 자기나름으로 짐작했다. 그리고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기다렸다.

두달만에야 겨우 편지가 왔다.

.....

어머니, 전 이 참나무골에 진정으로 마음을 불었어요. 여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물종구 산종구 사람들이 좋구... 모든게 마음에 들어요. 학생들도 절 따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공부는 다 팬찮게 해요. 장난꾸러기들이 많지만 전 애들에게 정이 들었어요.

우린 며칠전에 학교앞마당에 조그만 못을 파구 고기들을 가져다넣었어요. 못옆에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을 가져다놓고 그가운데는 대리석으로 아이들을 조각해 세웠어요. 책과 공을 든 두 소년과 가야금줄을 고르는 소녀애를 말이에요. 잘 조각하진 못했지만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훌륭한 산촌마을 주인들로 자라날것을 바라는 우리 교원들의 념원이 깃들어있어요. 마을아이들은 배우고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겠지만 저는 산촌의 학교에 남을것이에요.

.....

그 편지에는 어째선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애의 심정이 엿보이지 않아 녀인은 섭섭하기도 했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어미의 속을 태울가봐 우정 그렇게 쓴거겠지... 하숙집은 좁지나 않는지?... 끼마다 더운밥을

먹기나 하는지?… 집을 떠나가지구야 무슨 선생 노릇을 바로 할가?…)

녀인은 사뭇 걱정스러웠다. 그는 딸애가 살고 있는 집도, 학교도, 마을도 눈으로 보지 않고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어머니의 애뜻한 심정이 녀인을 먼 려행길에 오르게 한것이다.

눈보라는 쉬임없이 불어쳤다.

산중의 눈보라, 심산촌의 겨울.

눈보라는 무슨 불청객이라도 맞이하는지 잠들 줄 모르고 심술을 부린다.

고양이발자국같은 말발자국은 어느덧 점으로 변해버렸고 그것마저 눈보라의 긴 꼬리속에서 영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녀인은 깊은 눈속에서 옷깃트머리가 흔들거리는 길센의 잡초들과 두간두간 뭉쳐있는 아가위덤 물을 표적삼아 앞으로 걸어나갔다. 파실과 당과 류가 든 가방은 인제는 천근무게로 어깨를 잡아당겼다.

불시에 녀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분명히 아이들의 말소리를 들은것 같아서였다. 귀를 강구었으나 휘휘-우우- 하는 눈보라소리뿐 더 들려오는 것은 없었다.

(이런 절벽강산에…)

녀인은 불안한 잡념을 밀어젖히며 뿌연 운무에 싸인 해를 근심스레 쳐다보았다.

그러나 녀인은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분명히 아이들의 말소리를 들었다. 즐겁게 웃으며 떠들 어대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불안과 추위에 얼어든 녀인의 가슴을 부근히 감싸주었다.

녀인은 왼편의 강기슭쪽을 바라보았다. 천년절벽이 뿌리박은 그곳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서너명의 아이들이 둥그렇게 눈을 쓸어낸 얼음판우에 몰켜서있었다. 우물거리는 모양이 뺨이를 치는것 같지도 않았다.

(무얼 할가? 하필이면 저런곳에 불을 피우고 모여있다니?…)

녀인은 호기심보다도 우선 사람을 만난것이 반가웠다. 마을은 그닥 멀리 있지 않을것이였다. 녀인은 잡관목가지들을 부여잡고 산비탈을 내려 강가로 다가갔다.

열두어살씩 똘똘한 애들이었다. 동이야구리만 하게 뚫어놓은 얼음구멍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앉아있는 소년은 오소리털모자를 눈섭우까지 늘려썼는데 어른처럼 신중한 낫빛을 하고있었다. 스키를 깔고앉은 세 아이는 얼음우에 피워놓은 고깔불에 손을 녹이고있었는데 뻔건 불담에 녹은 물이 즐쩍히 흘러서 얼음구멍에 푹푹 떨어지였다. 소년들의 옆에는 마른나무단과 다랑치와 도끼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장난질을 할게 없어서 이 추운데 고기잡이를 하다니?…)

녀인은 혀를 찼다.

낫선 사람을 보자 아이들은 고깔불주위에서 일어났다. 낚시줄을 긴장해서 부여잡고앉은 소년은 오소리털모자를 이마우로 쓱 밀어올리며 녀인을 쳐다보았다. 작고 령리해보이는 눈이였다. 소년의 방울코옆에는 유난히 큰 기미가 붙어있었다.

《할머니, 어서 불을 쪼이세요. 애들아, 나무를 더 놓으렴.》

방울코소년이 말했다.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들고 성애가 불린 녀인을 놀람과 동정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소년들은 서둘러 움직이였다.

녀인은 가방을 놓기바쁘게 장갑을 벗고 찢찢해진 손을 불에 퍼들었다. 불속에 밀어넣는데도 온기는 미처 퍼지지 못한다.

《할머니, 외투깃이 타겠어요!》

《원, 이런… 찌찌》

《할머니 어디서 오시나요?》

《저 멀리 도시에서 온다.》

《우리 마을예요?》

《너희 마을이 참나무골이냐?》

《그래요.》

《그럼 옳구나. 내 그 마을에 간다.》

《누구네 집예요?》

《원, 그너석 까근까근하다구야…》

녀인은 딸이 이 아이들의 선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에둘렀다.

《저… 교장선생네 집에 간다.》

《그래요?! 야!- 할머니, 신을 벗구 발이랑 녹이세요. 아직 한참 가야 돼요.》

아이들은 그를 위해 불티가 날리지 않게 바람을 막아주느라 애썼다.

녀인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것이 마음에 꺼렸으나 어차피 교장선생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위안을 가지였다. 차츰 손이 녹자 몸에도 온기가 흘러드는듯싶었다. 녀인은 호기심을 가지고 다랑치를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에크! 너희들이 제법 큰 고기를 잡았구나.》

녀인은 저도모르게 탄성을 올렸다.

바구니안에는 어른 손바닥만한 고기가 두마리있었다. 연회색 비늘에 등에 검은점들이 박인 그 물고기는 녀인이 바다가에서는 보지 못한것이였다.

《이걸 정말 너희들이 잡았니?》

《할머니 보면서도 그러네…》

방울코소년이 불만스레 두덜거렸다.

녀인은 낚시줄을 천채 이쪽엔 고개를 돌리지도 않는 오소리털모자를 기특하게 바라보았다. 소년

의 두손은 구운 가재처럼 발갛게 얼어있었다. 너인은 가슴이 알알해났다. 다른 소년들은 다 두툼한 털실장갑을 끼고있는데 유독 그만은 맨손인것이다. 너인은 자기의 장갑을 불에 쪼여서 방울코 소년에게 내밀었다.

《애야, 너 이거라도 끼려무나.》

《나한테도 털장갑이 있어요.》

방울코소년은 제 솜옷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장갑을 끼면 안되요. 고기가 어느 순간에 줄을 다치는지 제각 알아채지 못하거든요.》

《!...》

너인은 부쩍 호기심이 동해서 얼음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깊이를 모를 강물이 두터운 얼음밑에서 찰싹거렸다.

《할머니 비켜요.》

《나두 좀 보자꾸나.》

《그럼자가 비치면 나빠요, 물속에 해가 들어가야 고기가 모여요.》

(원, 복잡하다구야...)

너인이 다시 고갯볼에 손을 쪼이는데 《앗차!-》 하는 소리와 함께 방울코소년이 미끄러져 뒤로 벌렁 자빠졌다. 오소리털모자가 벗어져 굴러갔다. 미처 일어나지 못해 허둥거렸으나 낚시줄만은 단단히 올라가있었다.

소년들이 다급히 그를 부축하며 떠들어댔다.

《걸렸니? 웡?!》

《놓치지 않았?》

《낚시줄이 팽팽한걸 보면서두 그러니?》

방울코소년은 시뭇해서 말하며 얼음이 꽤운곳에 발을 댈디디고 줄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낚시줄은 얼음구멍안에서 물을 찌찌 썰며 세차게 움직이였다.

이윽고 낚시줄은 한쪽 얼음벽에 딱 붙더니 현악기줄처럼 쨍쨍 소리를 울리며 물방울과 얼음조각을 튕기였다.

《마잘가?》

《요동쓰는걸 보니 산치인것 같애.》

《미리 재수없이 굴지 말어. 고기가 떨어지겠어.》

방울코소년이 다시 통을 준다.

그래도 소년들은 흥분을 사키지 못했다.

《쏘가릴거야.》

《메사구도 큰거면 좋은데...》

《체, 그래도 잉어만 못해.》

《우리 아버지가 이 두롱소엔 잉어가 드물다고 했어.》

불시에 물이 뒤끓고 갈라지더니 희번쩍한 고기가 사방에 물방울을 뿌리치며 얼음위에 툭썩 떨어

어졌다. 낚시에 등을 꿰운 고기는 연신 푸들쩍거렸다.

《야래로구나!... 맛이 없는 고기야.》

《크지두 못한게 그랬구나...》

한껏 달아올랐던 흥분은 눈독듯 사그라졌다.

(겨울에 생선인데 맛이야 여복할라구. 몸보신에 두 좋지...)

너인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때 그들의 머리위에 석싹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어허!- 이 졸망구들아! 게서 무슨 장난질들이냐?!》

너인이 오던 강둔덕길에는 말이 뜬김을 물물 피우며 코를 푸르럭거렸고, 썰매에 깊숙이 들어앉은 로인은 여우목도리를 두른채 강쪽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고기잡이를 해요-》

소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이녀석들아, 고기한테 되려 잡힐라! ... 썩 올라오지 못해?! 해 넘어간다.》

《싫어요! 우린 잉어를 하나 잡구야 갈래요!》

《너희들이 또 선생님숙을 태올라! ...》

《할아버지! 썰매에 이 할머니를 좀 태워주세요!》

《교장선생님 집에 오는 손님이에요!》

《아주머니, 어서 올라오시우-》

부드럽게 말하고난 로인은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이녀석들아, 저물기전에 마을루 걸씨덩 와야 한다!-》

너인은 무인지경의 눈길속에서 자기를 건져줄 구원자를 향해 바빠 눈을 헤집으며 낭떠러지를 올라갔다.

2

너인은 썰매안의 개털가죽속에 두발을 밀어넣고 폭신히 들어앉았을 때에야 자기가 소년들에게 가방속의 사탕과자를 꺼내주지 못한것을 생각했다.

눈보라와 추위와 산중의 정적이 자아내던 불안을 덜어주고 몸을 녹여준 유쾌한 장난군소년들의 고갯불 신세조차 갚지 못한것을 후회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로인이 호기있게 휘두르는 채찍은 눈보라도 무색할 휘파람소리로 찬 대기를 찢었다.

《쨌! 쨌-》

말은 흠칫 놀라 발굽으로 눈가루를 휘뿌리며 몇걸음 뛰더니 다음은 서두르지 않고 박자를 맞추어 가볍게 달린다. 말궁둥이는 땀에 젖어 번들

거렸다. 썰매밑에서는 눈가루가 기분 좋게 사르락 거린다.

녀인은 차츰 멀어져가는 애들을 근심스레 바라보았다.

그의 심중을 들여다보기도 한듯 로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봐주시우. 그녀석들이 한다하는 스키선수들이라우. 눈검벽하면 집에 올거우다.》

썰매가 산굽이에 접어들자 아이들은 눈언덕에 가리여 더 보이지 않았다.

녀인은 털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자기의 구원자를 진득이 살펴보았다.

로인이 폭 내려썬 산토끼털모자에는 조그만 귀덮개가 우습게 덧달려있었다. 폭 살아있는것 같은 여우는 로인의 목을 감고 잔등에서 노란 주둥이와 두발을 늘어뜨린채 순순히 복종하고있었다. 추위에 컴컴하게 언 로인의 주름살투성이 얼굴에는 모진 눈보라가 남긴 흔적인듯 희끗한 눈섭이며 서리발같은 수염오리들이 입주위와 턱에 내뿜었다.

《로인님은 이고장에서 사는지 오래가요?》

녀인은 물었다.

《나서부터 살지우... 인젠 반백하구두 또 그 절반이 돼오우.》

로인은 이야기를 즐겨하는 성미같았다. 로인은 채찍을 무릎에 펼쳐놓고나서 털등거리 안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투박한 손으로 숨쉴듯 담배를 굵직하게 말았다.

《마을에 있는 학교가 크가요?》

녀인은 또 물었다.

《크지우. 우리 참나무골에선 제일 큰... 건물이 지우... 옛날에는 그런 학교를 꿈에서두 그려보지 못했지우.》

《.....》

《너무 산골이여서 서당두 없었수. 그래 아이들은 온통 까막눈들이었다우... 하긴 그때 참나무골에 학생이 하나 있었지우. 지주아들놈이었지우. 내가 겨울이면 그놈을 썰매에 태워 읍에 데려다주구 데려오구 했지우. 난 지주집 마부였다우... 허, 세월두 빠르지. 그제 벌써 삼십년이 훨씬 넘는 일이구려. 그놈 산골지주가 지금 살아서 우리 사는걸 보면 머슴이라두 살겠다구 할거우. 허허...》

로인은 눈을 찌프리고 담배연기를 굴통처럼 내뿜었다.

《참 고마운 세상이지우. 나라에선 우리 참나무골에 2층집학교를 지어주구 선생님들을 보내주었수다. 내 맏아들두 대학을 졸업하구 도에 올라가 있수...》

로인의 자량은 끝이 없을것 같았다.

《로인님은 교령이신데 이 추위에 어뎔 갔다오십니까?》

《저 고개너머에 곰열을 얻으러 갔댔지우. 며칠 전에 우리 선생이 좀 다쳐서... 우리 선생은 눈이 많이 온 날이면 어린 학생들을 늘 업어다주곤 하지요. 그날두 학습반을 지도허구선 아홉살짜이 손주녀석을 업구 오댔지우... 좀 멀어두 썰매길을 따라왔으문 날 만나는건데 질러오느라구 저 술바위둔덕길을 넘다가 그만 산비탈에 굴렀지우.》

《저런?!》

녀인의 입가에는 저도모르게 가는 비명이 새여나왔다.

《그담엔 길을 잃었지우. 눈이 퍼붓듯 내리지 거기다가 날이 어두워 이 골짜기가 저 골짜기같은게 통 알아볼수가 있나유...》

썰매길을 어긋난 내가 집에 와서 불방망이를 해들구 찾으러 나서는데 우리 선생이 왔습니다, 하얀 눈사람이 돼서말이우. 현대 손주녀석은 선생님의 잔등에서 털옷을 폭 쓴채 쿵쿵 자는게 아니겠수. 허- 내 원... 찌! 찌- 이 순둥아, 조금만 더 뛰자꾸나.》

채찍은 허공에서 묘하게 감겨들며 켜는듯 휘파람소리를 냈으나 말등에는 어루만지기라도 하듯 사뿐히 내려앉았다. 령리한 말은 주인의 살뜰한 요구를 알아채기라도 한듯 두귀를 쫑긋거리더니 속보로 달리기 시작했다.

녀인은 아까부터 로인한테 묻고싶은것을 더 참을수 없었다.

《그 선생이 로인님하군 어떻게 되는 사인가요?》

《우리 딸이라구 해두 틀리진 않지우.》

《글쎄 친자식이 아니구야 그 험한 산길루 업구 다니겠습니까.》

그러자 로인은 여우털목도리를 으쓱 추켜올리며 녀인을 흘끔 쳐다보았다. 못마땅한 눈치였다. 로인은 녀인을 같이 다닐 길손이 못되기라도 한듯 함께 덮은 개털가죽속에서 발을 쑥 뽑아내여 썰매앞턱에 걸치였다. 그러더니 다 태운 담배끄트머리를 책 집어던지고나서 통명스레 말했다.

《우리 선상님은 제 자식이 아닌걸 업구 다녔수다... 온 마을이 선상님을 존경하지우.》

《?!...》

녀인은 자기가 한 말이 무척 쑥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자 《우리 선생님》으로, 《딸》로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다는 그 녀교원이 막연한 부러움속에 떠올랐다. 모름지기 그는 이고장의 토배기사람일것이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착실한 딸을

가진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너인은 선망의 쓸쓸한 상념속에서 썰매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었다.

로인은 개털가죽속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두사람은 웅색한 기분을 깨치지 못한채 묵묵히 앉아있었다. 말발굽의 단조로운 소리에 박자라도 맞추는듯 썰매밑에서는 실새없이 눈이 빠르작거렸다.

썰매가 긴 산굽이를 돌아 눈앞에는 길쭉하고 움푹한 접시처럼 생긴 골안이 나졌다.

썰매는 아름답리 참나무들이 흰눈을 들쓰고 풍치 좋게 늘어선 넓다란 길로 달려갔다. 마을의 동구길인듯싶었다.

길 양옆으로는 흰 고깔모자를 쓴 곡식난가리들이 보였고, 시꺼먼 거름무지들이 금방 가마에서, 퍼놓은 언감자떡처럼 김을 울리고있었다. 그사이로 트랙포르가 빈 적채함을 들썩거리며 빠져나오고있었다. 하늘을 떠받들듯 줄기차게 아지를 펼친 참나무꼭대기들에는 까치둥우리가 장난감들처럼 붙어서 똥똥 흘러갔다.

산기슭쪽에 오봇이 모여앉은, 지붕도 벽도 하얀 아담한 집들의 굴뚝에서는 저녁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개짖는 소리, 닭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내내가 풍겨왔다.

불시에 썰매가 탁 멈춰섰다.

로인은 아까와 같이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머닌 예서 내려야겠수. 교장선생네 집은 저기 강녕이뒤주옆으루 세번째집이우.》

로인은 고맙다는 너인의 말은 들은듯만듯하고 뽕양게 눈가루를 일으키며 썰매를 몰아갔다.

3

상봉의 기쁨과 회포가 지나간 방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너인은 손으로 구들을 고루고루 짚어보고나서 말했다.

《불이 잘 드는구나. 아래간에서 때는데 이렇게 덥니?》

《밖에 파루 조돌아궁이 있어요. 저녁에 조금만 때두 온밤 후끈해요.》

명희는 응석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빨간 연필로 아이들의 학습장에 줄을 긋기도 하고 점수를 매기기도 한다.

어머니는 명희가 지난 가을에 집을 떠날 때보다 몹시 수척해진것 같아 근심스레 물었다.

《너 정말 어데 아프냐?》

《참 어머니두… 아픈데 없어요.》

《얼굴이 해쓱한데두? … 그리구 저기에 다 썩여 있잖느냐.》

어머니는 고개짓으로 원탁을 가리켰다.

송진내가 풍기는 원탁우에는 언배와 감자떡이 소담스레 놓여있었다. 거기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는 산촌사람들의 수더분한 인정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어머니, 마을사람들은 늘 그래요. 빛다른 음식만 생기면 내가 집을 멀리 두고 하숙한다구서…》

《…………》

너인은 명색이 짚어가지고도 어머니의 마음에 그들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딸의 가룩한 심정이 헤아려졌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명희야, 인젠 좀 쉬러무나.》

《어머니, 난 학생들의 숙제장을 오늘 다 봐줘야 해요. 래일은 방학이 끝나구 애들이 학교로 와요.》

《그럼 바쁘겠구나… 어디 나두 같이 좀 보자.》

명희는 좋아서 학습장들과 그림들을 한뭉치 들고와서 어머니곁에 붙어앉았다.

어머니는 흘러간 시절, 언젠가 어린 딸애가 선생한테서 받은 첫 10점이 매겨진 학습장을 들고 무릎에 안기며 자랑하던 일이 몽클하고 떠올랐다. 그때는 딸애의 빨간 명주리봉이 그를 간지럽혔지만 지금은 강굴진 술많은 머리가 그의 볼을 부드럽게 스친다.

아이들이 쓴 글들은 아직 고르롭지 못하고 철자법이 틀린곳도 적지 않았다. 그림장들은 명암관계며 원근법조차 무시된 서툰것들도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 갈피갈피마다에서 딸의 고심어린 흔적과 기쁨을 찾아보는것이였다.

《이건 재미있게 그렸구나… 이쪽 등판에선 트랙포르가 발을 가는데, 산에는 파일이 달리구, 옥심두… 봄과 가을을 다 보구싶은게구나.》

어머니는 대견스레 미소를 지었다.

《이 학생의 아버지인 마을 트랙포르운전수예요.》

《그래…》

어머니와 딸은 머리를 맞댄채 시간 가는줄 모르고 들여다본다.

문득, 마당에서 여럿의 자박자박하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앞에서 푹 멎었다. 한참이나 인기척이 없더니 이윽고 누군가 용기를 낸듯 말하는것이였다.

《선생님 계십니까? …》

명희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퇴마루아래에는 털모자를 벗어친 소년들이 몰려서있었다.

《영호, 정남이… 어서들 들어와요.》

명희는 맨발로 마루에 나가 소년들을 잡아이끌

었다.

찬기운을 안고 들어온 아이들은 방 한쪽에 주춤거리며 앉았다.

그제야 너인은 오소리털모자를 손에 쥔 방울코 소년을 알아보았다. 그러구보니 넷이 다 얼음판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소년들이었다.

《선생님, 병이 좀 낫습니까?》

방울코소년이 작은 눈을 근심스레 반짝이며 물었다.

명희는 당황한 눈길로 어머니를 쳐다보고나서 서둘러 대답했다.

《선생님은 일없어요… 봐요. 이렇게 동무들의 방학숙제장을 보구있잖아요.》

소년들은 서로 눈짓하며 움직거리더니 뒤에 감추어온 비닐보자기를 슬그머니 꺼내서 앞에 내놓았다.

《선생님… 이젠… 입맛을 돋구라구…》

《?!…》

보자기속에는 금시 살아떨것만 같은 세마리의 큼직한 산천어가 꿰미채로 놓여있었다.

순간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기잡이가 장난질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감동어린 눈길은 소년들의 주저하는 얼굴에서 딸의 얼굴에 가 멎었다. 그러구보니 명희의 얼굴은 더 해쓱해진듯싶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명희는 조용히 물었으나 그 음성에는 어쩔지 짜늘하나 랭기가 풍겼다.

너선생의 얼굴에 나타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본 소년들은 불안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이며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방안에는 어성버성한 침묵이 깃들었다.

어머니는 자기가 소년들을 위해 말해야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건 얼음구멍에서 이 애들이 잡은거다. 손들이 다 빨갛게 얼어가지구… 내가 오면서 보았지》

그러자 명희는 방울코소년의 어깨를 사정없이 잡아흔들었다. 너선생의 음성은 날카롭고 엄격하게 울렸다.

《정남이! … 이게 무슨짓이에요?! 누가 먼저 생각해냈어요?…》

《……》

방안에는 폭풍이 지나간듯 한껏 고요가 스며들었다.

소년들은 고개를 떨군채 조각처럼 까딱 않고 앉아있었다.

명희는 산천어꿰미를 비닐보자기에 다시 꼼꼼히 싸며 퍽 누그럽게 말했다.

《정남이, 동무들과 같이 이 산천어를 영실이네

집에 갖다주세요. 영실인 감기때문에 밥맛을 잃구… 학습반에두 못나오지 않았어요.》

《……》

《어서 약속해요. 네?…》

한참만에야 소년들은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 그러겠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앉은 어머니의 가슴속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점점 세차게 격랑을 일구었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딸에게 나직이 타일렀다.

《명희야, 너무하는구나… 애들이 저녁이라도 먹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가방을 끌어당겨 사과며 사랑과자들을 가득 꺼내서 소년들앞으로 밀어놓았다.

《어서 이리 나앉아서들 먹어라.》

어머니는 소년들이 하나같이 아들처럼 사랑스러웠다. 그는 가슴속에 차오른 애정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싶어 견딜수 없었다.

4

어머니는 소년들을 마당까지 바래주고 들어와서도 문지방에 그냥 서있었다. 어둠속에 멀어진 발자국소리와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듯싶었다.

이윽고 어머니는 딸에게 나직이 말했다.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인정이 깊구나.》

《이런 공연한 일에 자꾸 머리를 쓰군해서 은근히 걱정되여요…》

《네가 얹지 않고 건강하문야 애들이 그러겠니?》

《……》

《제 몸감수 하나 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니… 그래 말해보렴, 너 어디 아프니?》

《어머니… 그저 감기에 좀 걸렸됐어요.》

《……》

너인은 말없이 딸을 지켜보다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딸에게는 아직도 어머니의 손길과 잔소리와 책망이 공기처럼 늘썩 있어야 하리라고 너인은 생각하는것이였다.

이때 마당에서 《썰, 위…》 하는 식십한 목소리와 함께 썰매채가 삐걱이는 소리, 말이 코투레 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뚝뚝 눈발는 소리, 웅글은 기침소리는 가까와졌다.

《선상님 계시우?》

부름소리는 너인에게 퍽 귀익은것이였다.

명희는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시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방안에 들어서는 사람은 뚝배기도 썰매를 태워

준 그 로인이었다.

로인은 품안에서 뚜정을 꼭 막은 조그만 사기 주전자와 잔을 조심스레 내려놓고나자 녀인을 보고 알은체를 하며 물었다.

《아주머니가 어떻게 오셨수?》

《할아버지, 저의 어머니예요.》

명희가 웃으며 말하자 로인의 주름투성이 얼굴에서 담배재같은 눈섭이 놀란듯 치켜올라갔다.

《허, 그런걸... 어찌누...모친인줄 모르구 선상님을 내 딸처럼 자랑했으니... 내가 로망을 했구려, 허...》

로인은 여우목도리를 바빠 벗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원, 별말씀을...》

어머니는 그저 놀라기만 해서 로인과 명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린 학생을 업고 눈길을 헤매면서 집에 데려다주는 그 착실한 녀교원이 다름아닌 자기 딸이었다는걸 깨달은 어머니는 심장이 기쁨으로 하여 쿵쿵거려였다.

방복판에 편안히 울방자를 틀고앉은 로인은 주전자를 기울여 자주빛 도는 맑은 액체를 잔에 부었다.

《선상님, 어서 마시우. 곱열을 술에 탄거우.》

《!!...》

《할아버지... 전 일없어요. 낮에 의사두 왔다간걸요.》

《허, 그래두 옛날부터 어혈진덴 이것만한게 없수. 자, 쪽 마시면 몸이 건듯할거우. 선상님이 건강해야 우리 참나무골 애들의 얼굴에 웃음이 퍼지우.》

명희는 눈물이 글썽하여 잔을 붙들고있는 로인의 커다란 손을 바라보기만 했다. 싱싱한 나무줄기같은 그 손에 든 조그만 잔에는 의리와 인정을 넘어서 뜨겁고 절절한 그 무엇이 담겨져있는것 같았다. 명희는 보다 아름답고 풍요해지는 이 마을의 래일을 담당할 아이들에 대한 숭고한 부락이 그 자주빛 맑은 물속에 비껴있는것을 보았다.

(애, 마시려무나. 로인님이 간곡히 권하는데...)

어머니는 어느덧 마음이 후터워지였다. 친딸이 앓아누운들 저렇게 늙은 몸으로 눈보라속을 갔다올 엄두를 낼것인가. 그럴수록 딸이 낯설은 고장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것이 대견스럽기만 했다. 그것은 딸을 낳아 길러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가슴뿌듯한 감정이였다.

얼마후, 로인은 명희더러 몸조리를 잘하라고 신신당부하고야 집을 나섰다.

창밖에서는 어린 아기를 달래는듯 눈보라가 고요히 설레고있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무언가 정깊은 말을 해주고싶

었으나 정작 말은 다르게 나갔다.

《명희야, 넌 그런 일이 있으면서두 나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어머니, 근심 마세요. 별로 다친데두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걸요.》

《.....》

《어머니, 인젠 철우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 로인의 손주말이나?》

《아니예요. 할아버지의 손주는 중학생이에요.》

《아니?... 그럼 네가 엽구 다닌 애는 로인의 손주가 아니냐?》

《호, 어머니, 그 앤 할아버지네 옆집소년이에요... 할아버지는 온 참나무골의 어린 아이들을 다 <손주>라면서 귀히 여긴답니다.》

(그랬었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로인과 아이들이 남기고 간 후더운 정이런듯 푸름한 달빛이 방안에 부드럽게 흘러들고있었다. 무수한 명주실을 늘인것 같은 달빛은 잠든 딸의 얼굴뿔팍을 선명히 드러내었다.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의 이불깃을 여며주고 머리맡에 쌓아놓은 아이들의 학습장들과 시험지들, 그림장들과 교수안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책상우에 놓았다. 다시금 자리에 누웠으나 물무늬처럼 떠오르는 상념들은 잠을 쫓아버리고 아득히 저 멀리에서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추억을 불러온다.

봄, 따스한 봄날의 밤은 깊어가는데 꽃수레같은 요람은 고요히 흔들거리고, 딸애의 앞날을 축복하여 부르는 노래소리는 기저귀냄새 퍼도는 방안에 시내물처럼 속살거린다. 잠든 딸애는 꿈속에서도 달콤한 젖맛을 보는지 조그만 입술을 짹짹거린다. 그러다가는 무엇엔가 놀라 깨어나 울음을 터친다. 어머니는 서둘러 어린애를 품에 안고 동등 팔그네를 태우며 방안을 거닌다. 어머니의 품을 알아챈 딸애는 울음을 그치고 두눈을 쫓프리며 해죽이 웃는다.

날은 흘러간다. 계절은 바뀌고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지듯 해가 흘러갔다. 딸애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잔등에서 그리고 따뜻한 손길에서 떨어질줄 모르고 자라난다.

어느덧 어머니의 눈앞에는 성애가 하얗게 불린 칠십고령 늙은이의 책망하는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선상님은 제 자식이 아닌걸 엽구 다녔

수.》 로인은 너인더러 자기 딸의 그런 승고한 인간미를 잘 모르면 차라리 어머니이기를 그만두라고 성내는것 같았다.

눈덮인 얼음을 까고 손들이 발갛게 얼어서 고기를 잡던 소년들, 오소리털모자를 눈덕까지 내려쓴 방울코소년의 눈은 어른처럼 신중히 어머니를 쳐다본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린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겠어요.》

어머니는 소년의 애된 목소리가 금방 곁에서 들리는듯싶어 놀라며 눈을 떴다. 그러나 방안은 여전히 비단결같은 달빛이 흘러들뿐 고요하였다.

멀리 외지에 내보낸 자식을 두고 걱정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데 있으랴. 하나 지금 어머니는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그렇게도 마음을 산란하게 하던 그 모든 잔근심들이 봄눈처럼 녹아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먼 려로에 쌓인 피곤까지 겹쳐들어 혼곤히 잠에 들었다.

날이 푸름푸름한 무렵.

어머니는 가벼운 인기척에 놀라 깨었다. 문앞에서 나무가지를 조심스레 꺾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누굴가?...)

그제야 어머니는 곁에서 자던 딸이 없고 이불만이 개여있는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조돌아궁앞에는 딸이 아니라 낫모를 젊은 녀인이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불을 때고있었다.

어머니를 보자 녀인은 어줍게 웃으며 친근히 물었다.

《밤엔 춥지요?》

《아니, 땀이 다 나우... 아주머니, 우리 명희를 못봤나요?》

《못봤는데... 아마 학교루 갔을거예요.》

《이 새벽에 학교루 가다니?!...》

《눈이 온 날이면 늘 그러군해요.》

《!...》

마당가의 눈길에 생생히 난 발자국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난 어머니는 녀인에게 나직이 물었다.

《댁은 어느 집에 계시우?》

《뒤집에 살아요 ... 우연히 나왔다가 조돌아궁에 불이 꺼진것 같아서...》

녀인은 변명삼아 말꼬리를 흐리었다.

《댁의 아이도 우리 명희가 가르치나요?》

《우리 말이는 이제 겨우 네살이에요.》

《그런데두... 원, 고맙기라구...》

《어머니두... 우리 애도 이제 몇해만 있으면 따

님한테서 글을 배우게 될텐데요 뭐.》

《!!...》

어머니는 이 순박한 산촌의 녀인앞에서 더 말을 못했다.

어머니는 녀인을 만류하여 돌려보내고도 조돌아궁앞에 그런듯이 서있었다. 아궁안에서는 장작불이 탁탁 불씨를 튀기며 그 무엇인가를 속삭이듯 너울거렸다.

(명희야, 넌 정말 좋은 사람들속에서 살고있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잔등에 내내 지고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듯 마음이 가벼워져서 천천히 마당을 나섰다. 그는 발목까지 폭폭 빠지는 떡가루같은 눈을 헤치며 학교로 걸어갔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온 산촌을 푸근히 감싸고 있었다. 눈보라는 풍요한 눈속에 묻힌 마을너머 어딘가 저 멀리에서 신비로운 음향으로 설렘었다.

산등판쪽에서 차고 청신한 새벽대기를 깨치며 프락포르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뒤미처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참나무들이 늘어선 동구쪽등판에서도 프락포르들이 통통거렸다. 집집의 울안에서 수탉들이 목청을 돋구었고 소들이 궁근 저음으로 영각을 해댄다. 하얀 솜이불을 덮은 집들의 굴뚝마다에서는 아침연기가 연회색하늘로 곧추 피어오르고, 어데선가 산비둘기떼가 후르르 날아 내려왔다.

어머니는 변화한 도시에서는 들을수도 볼수도 없는 산촌의 이 활기찬 숨결이 더없이 친근하고 정당게 안겨왔다.

마을둔덕길에 나서자 학교의 흰 지붕과 벽속에서 아이들의 눈동자와도 같은 창문들이 또렷이 보였다. 여기서부터는 학교앞까지 배가 물결을 가르고 지나간듯 눈이 말끔히 치워있었다.

반반한 길로 조용히 걸어가던 어머니는 학교마당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얼어붙은 둥근 못주위에서는 밤빛 목수건을 두른 딸이 아침추위에 얼 굴이 흥조를 띠어서 눈가래질을 하고있었다.

어머니는 못옆의 기묘한 화강암우에 세운 대리석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섰다. 어머니는 손으로 세 아이의 머리와 어깨에 소복이 쌓인 눈을 조심스레 쓸어내려주었다. 책과 가야금과 공을 쥔 대리석아이들은 어머니에게 꾸밈없는 천진스런 미소를 짓고있었다.

어머니의 머리우 나무가지들에는 잠에서 깨어난 메새들이 앉아 재잘거리며 은빛눈가루를 떨어트리었다. 마치도 아름다운 이 산촌에 찾아온 그를 반겨주는듯.

제일명승 묘향산아!

조 빈

1

오르고 오를수록
경치 좋은 봉이로다
도도한 산발들이 고개들어
향로봉 칠성봉... 여라문 봉우에
더 오르면 비로봉
안개는 오르다가 종턱에 걸렸구나
저 멀리에 망망한 서해바다
열두삼천리도 한눈에 안겨오는
그리고 장쾌한 봉우리에 봉우리
오를수록 더 오르고싶은
우리네 긍지 높은 정신의 상상봉에
내가 솟아있구나 묘향산아
영광스러운 당이 손잡아 이끌어
큰 걸음으로 봉마다 딛고가니
이 땅 삼천리가
한달음에 가닿을 마음의 지척이로다

2

만폭동에 찾아드니
가도 폭포 서도 폭포
천만구슬 굴리며 나는듯 달는듯
흘러도 물은 맑고
피어도 물맑은데
물밑에 너럭바위
비바람이 다스렸나
옥계수로 쪼아서 정교로이 다듬었지
폭포에 또 폭포
장엄한 물기둥 벼랑을 내리뛰니
골안의 짙은 안개 예서 내뿜는가
아, 만폭동, 만폭동의 맑은 물
내 가슴에 흘러들라 두팔 벌리나니
순간 티도 없이 맑아지는 마음
물밑의 저 바위로 마음의 벽을 둘러
깨끗하고 굳세게 지니고 살리
거룩한 자옥자옥 어려있는 만폭동
변심 모를 한마음 이 가슴에 다져주네

3

상원암은 그 어디
툭아오르는 10리길
쉬고 오를 길이언만
그래도 내 못쉬네
앞선이들 다 보면

내 그만 못다볼듯
짜아지른 기암은 볼수록 기묘한데
로송은 어디에 뿌리두었나
백년을 몇백년을
무성한 로송들
세월이 갈수록 푸르청청하거니
늙은이들 오르며 되젊어지고
청춘들이 오르며 담을 키우네
상원암은 그 어디
가는 길에 오르노라
수백길 벼랑끝에 피어있는 인호대-
룡연이라 산주 장쾌한 폭포소리
그 옛날 호랑이를 불렀다는곳
오늘은 나를 불러 어서 오라네
상원골 벼랑가 절경을 이룬곳
내 조국의 아름다움 예서도 보나니
능인암의 폭포 상원암에 내려쬐고
골안의 바람결 물소리에 젖었어라
아, 축복받은 이 강산에
한도 없고 원도 없는 사람들
마음 내면 올라보는 묘향산
예 와보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리
한번 와본 사람 꿈결에도 그려보리

4

묘향산 묘향산아
볼수록 절경이라
하비로는 또 어디
바라봐도 꽃향기에 한껏 취할듯
3경터의 새소리
내 마음 이끄나니
묘향산 묘향산아
유구한 세월속에 네 있는지 오래건만
그 언제 인민들이 찾아와
너의 아름다움 누려봤더니
산세 험한 길
울창한 수림 헤치시며
아버이수령님
몸소 내여주신 길
굽이굽이 등산길에
그늘 없는 당의 햇빛
은혜로이 비쳐주니
일만경치를 펼치며 네 모습 드러냈구나
아, 묘향산아

이 나라 명승들의 자랑이
네 한품에 다 있구나
기묘함만으로도 절승이라 이르고
웅장함만으로도 명승이라 하거늘
웅장하고 기묘한데

경치 아름답기 그지없어
세상에 제일 명중 너뿐인가 하노라
위대한 사랑의 축복을 받아
천하 제일 묘향산
너는 인민의 절경이로다!

묘향산 외1편

문성락

기슭에서 바라볼 땐 알수 없었구나
너의 그 장엄한 산세
너의 그 절묘한 모습
앞을 보아도 네 아름다움이 날 부르고
다시 보아도 못다본듯 걸음 멈추고

수림속 어디선가 울어에는 산새야
은방울을 굴리는 신비론 네 목소리에
은구슬 구울리던 시내물도 시샘하며
천변만화의 조화로 피워올리는 물보라
골안 가득 맑은 정기 실어오던 바람도
실버들가지를 붙잡고 하느적하느적...

만가지 풍치가 깃든 수려한 강산
한걸음도 쉬이는 옮길수 없구나
마주봐도 돌아봐도 황홀한 절경이
내 마음 부여 안고 놓지 않는구나

창날같은 바위부리 해빛에 번뜩이고
만폭동의 경치 하도 좋아서
세상만물이 그대로 굳어졌는가
동해의 금강이 여기에 옮겨앉았는가
장쾌하여라 절벽 타고 쏟아지는 폭포소리
골짜기에 메아리쳐 산을 울리니
내 가슴 넓어져 하늘을 안을듯

어찌 보면
천군만마가 내달리며 일으키는 물보라
온 골안에 그 옛날의 승전고를 울리는가
어찌 보면
은실금실 실실이 드리우며 타래치며
비단필 필필이 흘러내리는듯
오색무지개가 찬란히 비끼누나

설레이며 물결치는 안개바다 저 멀리
줄기줄기 높낮은 산밭을 거느리고
장엄하게 치솟은 비로봉
사방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천태만상의 모습을 펼쳐놓으며
다투어 일어서는 묘향산의 절경이여

그 옛날 팔선녀들이 내렸다는
만폭동 팔담에 이르니 마음도 밝아져
살아 한생에 이 옥계수를 안고싶어
저기 상원암, 통각석 우의 푸른 소나무
세월이 다하도록 이 가슴에 지니고싶어

장엄하고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울려
세상 절경이 한데 모여 자리잡은
조선의 명승 묘향산아
수난의 옛세월에 잃었던 네 모습
은혜로운 해빛을 받아
만천하의 절승으로 빛을 뿌리니

한줄기의 오솔길을 걸으면서도
한그루의 나무, 한송이 꽃을 보면서
뜨겁게 어려오는 사랑의 자욱
아, 천금보화와도 바꿀수 없다시며
걸음걸음 옮기신 어버이수령님
푸른 숲에 옥계수에 스민 당의 높은 뜻
해빛으로 넘치며 절경으로 솟은 묘향산아

기슭에선 네 모습 다 알수 없었구나
아름다운 이 나라 인민의 마음같이
우거진 숲을 헤쳐 들어가면 갈수록
장엄함과 기묘함이 더더욱 안겨오는
묘향산, 묘향산
네 모습 그래서 더 아름답구나

아, 오랜 세월
비바람에 다듬어져 아름다움이더나
이름이 묘향이라고 절경이더나
은혜로운 태양과 향도의 해발 비치여
묘향산, 묘향산은
조선의 명승으로 하늘가에 솟았구나

전사의 총탄

하늘이 불타고
바위도 불타고
한방울 이슬조차 찾을길 없는 고지
타는 입술 애타게 감빨며
원썹을 노려보는 《농민전사》

벌써 열두번째
적의 반격을 물리쳐
수류탄도 다 떨어지고
탄창엔 남은 몇알의 탄알뿐...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
한치도 어길수 없는 사수들과 함께
증오의 눈길로 산미를 굶어보며
한알 또 한알
그는 총탄을 재우고있었다

사흘낮
사흘밤
사선을 헤쳐가는 적후의 길에서
비상미마저 무거워 덜면서도
배낭속에 소중히 남겨두던
한알도 버릴수 없던 총탄이었다

씨앗 물을 한치의 땅이 없어
굶주림에 온 식솔 지쳐 쓰러졌어도
가사

한줌의 씨앗만은 버릴수 없던
어제날의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있는 전사

한알한알 세여가며
등그런 탄창에 총탄을 재울 때면
나서 처음 제땅의 시누런 이삭을 들고
한알한알 벼이삭을 세여가던 생각
탄약주머니에서 한웅큼씩 탄알을 쥐어낼 때면
마치 탈곡장에서 잘 익은 낱알을
흐뭇이 쥐여보곤하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의 탄창에 담아
또다시 놈들을 향해 쏟아부을 때
아우성치며 쓰러지는 미제침략자들
다시는 한치도 기여오를수 없었다

아, 총탄, 전사의 총탄이여
고지를 지켜선 《농민전사》
그의 눈앞엔
분여받은 땅에 설레이는
누런 이삭이 파도치며 안겨왔다
나서자란 그 고향땅이
전사가 사수한 이 고지의 한 지점에
하나로 이어졌기에!

용해장의 갈매기

안정기

쇠물빛 노을속에 나래를 펴고
기증기 창문으로 웃음 보내면
우리네 용해공들 싱글벙글
날더러 쇠물바다 갈매기래요

출강중 올릴 때면 기쁨이 동실
쇠물남비 받아안고 나래쳐가요
웃음 많은 용해공들 손을 흔들며

우리네 갈매기가 제일이래요
바다의 갈매기는 어장이 좋고
용해장 갈매기는 쇠물이 좋아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보람찬 강철고지 날아올라요

아 수령님 부르시는
7개년봉우리로 날아올라요

아버지

장영수

저녁녘에 기증기에서 내려온 운전공 림순정은 2호동의 하수망 굴착작업을 도와주다가 밤이 늦어서야 퇴근길에 올랐다. 그는 오늘따라 동무들과 섭썰리지 않고 홀로 개울가쪽을 향해 걸어나왔다.

누런 진흙이 게발려 파란색 본바탕을 가려보기 힘들게 된 장화를 그대로 신은채 자박자박 걷는 그의 발걸음은 전에없이 무거워보였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엔 여윈 갈고랑달이 차거운 빛을 뿌리며 가웃하고 따라왔다.

아침에 순정은 2호동에서 일하는 아버지 림운보와 함께 출근하면서 오늘저녁부터는 자기도 다른 일을 더 돕다가 오겠는데 아버지도 일을 계속 하다가 같이 퇴근하자고 약속을 했었다.

한것은 요사이 3호동이 2호동을 앞서겠다고 철야전투를 들이대며 기세를 올리고있는데 2호동에서는 배포가 유해가지고 늦장을 부리는것 같아 순정이 침을 놓느라 한것이였다.

밤이 이슥해서 일손을 거둔 순정이 기다리고있을 아버지 생각을 해서 서둘러 내부작업장으로 올라가보니 아버지는 일은 고사하고 들어간다는 말도 없이 퇴근해버렸던것이다.

순정은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식생활을 개선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또 하나의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고 경쟁을 호소하고 건설장이 떠나갈듯하게 방송차로 전투원들을 고무해주고있었다.

그래 각 호동들에서는 저마끔 승리자가 되겠다고 승벽내기로 맹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었다. 오늘 방송차에서는 온 작업장이 짜르르하게 기증기 운전공 림순정의 이름을 두번씩이나 소개하였다.

이 보람찬 전투에서 2호동이 단연 1위를 해야 하고 또 그래야 담당 기증기운전공의 체면도 서겠는데... 생각하면 가슴들먹이는 흥분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추동해본것이언만 어쩌면 그렇게도 욕심이 없고 감각이 무딘지 안타까운 일이었다.

작업장에서 한껏 떠있던 기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맥빠진 발걸음을 옮기던 순정은 내가에 이르러 멈추어섰다.

개울가에 바투 나앉은 아릅드리 로송은 이 밤도 조잘대는 개울물과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듯 무수한 가지들에 미풍을 안고 싱그럽게 흐른적인다.

언제 봐도 세월의 모진 세파를 곳곳이 이겨내는 억센 의지와 청청한 기상을 안겨주는 소나무였고 아무때 봐야 꾸준한 어머니의 성품같이 변함없는 흐름으로 가슴속에 맑은 사랑과 깨끗한 량심만을 불러오는 내물이였다. 순정은 부지중저 소나무와 같고 이 내물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문득 어데선가 절버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각에서 깨어난 순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얼마간 떨어진 물목아래켠에서 웬 사람의 그림자가 얼른 거렸다.

희미한 달빛에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는 물속에 들어선채 허리를 구부리고 무엇인가 더듬는듯하였다.

아마도 밤고기사냥을 나온 사람같았다.

(고기잡이에 재미들면 밤낮을 모른다더니 참한가한 사람도 다 있지.)

장화를 벗고 내물속에 들어서니 맑은 물결이 흘러와 빠속까지 짜릿한 쾌감을 주며 어리광치듯 종아리를 휘감았다.

장화를 말끔하게 씻어 신고난 순정이 손등으로 이마의 머리칼을 밀어올리며 허리를 펴는데 발자국 소리와 함께 불쑥 앞에 두 사나이가 나타났다.

《난 또 누구라구... 온 작업장이 들썩하게 떠받들리던 순정동무가 어째서 이렇게 혼자요? 누구를 기다리오?》

늘썹 우스개소리로 롱을 잘 거는 고수머리청년이 앞으로 한발 나서며 물었다.

《아니요.》

순정은 작업장기분이 되살아난듯 방실 옷다가 동실한 얼굴을 살래살래 저었다.

《아니다. 그러면...》

《아! 달빛도 고요한 시내가에서...》

키가 성큼한 다른 청년이 노래하듯 청을 돌구어 빈정거리고는

《여 고수, 우리는 어서 사라지자구.》하고 그의 팔소매를 이끌었다.

《가만 가만...》

고수머리는 팔을 뒤로 저으며 다시 말을 걸었다.

《순정동무, 한가지 청을 들어주겠소? 신도 벗기 싫고 돌아가기도 딱 싫어서 그러는데...》

강냉이밭앞으로 활동처럼 에돌아간 이 작은 내는 공사장앞으로 질러다니는 길목을 가로질러 흘렀기때문에 사람들은 한마장가량이나 우로 올라가서 농장원들이 리용하는 나무다리로 돌아다녔다.

순정은 이 익살쟁이가 장화를 신었던 자기 동무의 등에 업혀 건넌 때를 생각해서 지금도 애기노릇을 해보겠다는 룡을 거는것 같아 물방울을 끼었으려들었다.

《어서 못가겠어요!》

《아니! 아니요. 글썄 내 말을 ...들어보래두》

고수머리는 두손바닥을 방패삼아 앞에 내들고 능청스럽게 사정을 하는것이였다.

《그 장화를 좀 빌려주면 내가 이 친구를 얼른 업어 건네놓고 동무도 살짝...》

그는 처녀를 안아건네주는 시늉을 했다.

《아이 호호호... 어서 못가겠어요!》

순정은 손바닥으로 내물을 떠서 고수머리앞에 사정없이 휘뿌렸다.

《에크! 에크! 이런 대접이 어데 있어. 신통히도 고집불통 림아바이로구만.》

《뭘예요?!》

손에 물을 퍼들었던 순정은 눈이 울롱하여 굳어졌다. 손바닥에 담겨진 물은 손가락짹으로 새어나와 쪼르륵 소리를 내며 락수물처럼 떨어졌다.

청년들은 물방울을 피해 경충경충 망아지 뿔질을 하며 달아나버렸다.

순정이는 왈각 눈물이 솟구쳤다. 아버지가 얼마나 파격하면 《고집불통》이란 별명이 붙었겠는가. 이것은 고수머리청년이 룡담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닌것이다. 또 걸핏 생각없이 번진 말도 아닌것 같았다. 온 직장사람들의 말밥에 오른 아버지가 야속스러웠다.

아버지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을것 같았다. 화로불을 뒤집어쓴듯 온몸이 화끈거렸다. 순정은 저도모르게 랑볼에 뜨거운 눈물줄기를 그어 내렸다.

×

시주변 멀지 않은곳에 밭은 친척들을 많이 두고 있는 림윤보의 집은 때없이 찾아오는 친지들로 두 간방이 좁다하게 떠들썩하군했다.

이것은 림윤보가 만형으로서 큰집 가장구실을 착실히 하는 덕이라고들 마을아낙네들이 자주 외

우고있지만 실은 안주인 덕녀의 인덕이 후한탓도 있었다. 덕녀는 제집 문턱을 넘는 사람이라면 손수가림이 없이 체살붙이처럼 끔찍이나 반가이 대해주어 누구든 어려움을 모르고 가다 들리고 오다 들리고 어떤 때는 조무래기들까지 한구들 달고와서는 배꼽떨어진 제집구들처럼 벅적거리군했다.

순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늘도 사적지견학을 갔다오다 들렸다는 외숙모가 늦도록 앉아 무슨 이야기관을 벌려놓고있었다.

《삼촌어머니 오셨어요?》

순정이 인사를 하자

《오 펍 늦는구나. 왜 아버지 안들어오시냐?》

외숙모가 반색하며 물었다.

《아니 아버지가 안들어오셨어요?》

순정은 방안을 둘러보고나서 덕녀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직 안들어오셨다. 왜 같이 온다더니 혼자 오냐?》

순정은 그 말에는 대꾸가 없이 가름옷을 벗어 벽에 걸며 엉뚱한 말을 꺼냈다.

《삼촌어머니, 사람이 늙으면 다 그렇게 되나요?》

《밀도끝도 없이 그건 누구 두고 하는 말이나?》

몸이 부하게 나서 저고리앞섶이 술아보이는 외숙모가 실한 목을 돌리며 물었다.

《아버지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늙으신것 같더냐?》

《일하시는게 마음까지 앓아 그러지요 뭐.》

순정은 술길은 속눈섭을 살퐁이 내리깔고 알락한 입술을 삐죽이며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네 아버지가 한다하는 일군이라 했는데 그제 무슨 소리니?》

무릎을 바꾸어 앉음새를 고치며 의문을 품는 외숙모의 말에 덕녀도 의아한 시선을 돌린다.

순정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지 금시 새침했던 낫색을 바꾸며 웅석스럽게 덕녀덕앞으로 다가가 마주앉았다.

《어머니, 제 묻는 말 대답해주겠어요?》

순정의 눈가엔 금시 장난기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무슨 말이나?》

《저 어머니 아버지와 만날 때 어데가 마음에 들었됐나요?》

《뭘, 원 애두 실성을 했니.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덕녀는 놀란듯 눈을 크게 떴다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외숙모쪽에 눈을 끔찍해보였

다.

《나 마음에 들더구나. 생긴것두 그렇구 결괏도 있구, 일하는것두 그렇구…》

《아이참…》

순정은 그걸 묻는게 아니라는듯 눈섭꼬리를 치켜올렸다가 심중의 말을 터놓았다.

《사람이 늙으면 아이가 된다고 하더니… 어머니만은 늙으셔도 변치 않으셔야 해요, 네?》

《호호호, 애두 참,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잘못보인 일이라도 있는게로구나.》

《난 아버지때문에 얼굴이 뜨거워 나다니지 못하겠어요. 마지막엔 청년들한테서 <고집불통>이란 별명을 다 듣구…》

《뭐라구?! <고집불통>이라니, 너의 아버지가 실성을 한게로구나?》

《정말 아버지는 늙으시면서 달라지셨어요…》

느닷없이 하는 순정의 말에 덕녀와 외숙모는 귀가 솔깃해졌다.

순정이 아직 《고집불통》이란 별호가 붙게 된 내막은 모르지만 지금 수치로 생각하는 일이란 건설집단이 밤나무골어구의 등판으로 처음 이동해오던 때 있던 일을 두고 말하는것이였다.

준공이 끝난 일터에서 철수하여 새 건설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설집단은 헤쳐놓은 벌둥지처럼 북아쳤다.

어서 빨리 철수자재를 싣고 가서 휴계실을 짓고 작업조건도 마련하려는 각 작업반들에서는 저저마다 자동차를 요구했다. 이런 때는 수송기재가 10대도 모자라고 20대도 그만이였다.

동력설비를 싣고 오는 차판에 이사짐을 싣고 반원들과 함께 먼저 도착한 청년반장은 뒤거둠을 해놓고 뒤따라 오겠다던 림윤보가 나타나지 않아 아까부터 투덜거렸다.

한것은 그날따라 각 구역 기관기업소들에서 나온 지원자들이 등판이 하얗게 뒤덮여 복작이였는데 건설지휘부에서는 그들에게 일감과 공구들을 미처 다 대주지 못해 빈손든 사람들이 반장한테 찾아와서는 성화같이 올라탔다.

《자, 벽돌이 있어야 세멘트창고를 쌓아드리지요.》

《삽 좀 없습니까? 공구가 다 나갔다는군요.》

이런 요구와 물음에 반장은 우리 아바이가 이제 오면 곧 해결해드릴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반장이 이렇게 없는 윤보한테 밀어버리는것은 성화에 못이겨서가 아니라 실지 아바이가 오면 아무런 일감이라도 싣고 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래 이제나저제나 하며 왓새 여울목 넘겨다보듯 차길쪽에만 눈을 팔아보아도 윤보령감같은 모습은 그림자도 안나타났다.

《령감두 참 한심하지. 뭘하구있나…》

그 가까운곳에서 기증기설제작업을 돕고있던 순정은 이런 정황을 알게 되자 반장 못지않게 속이 탔다.

《어이, 순정동무! 동무 아버지 짐 좀 받아드리라구.》

문득 누가 웨치는 소리에 순정은 귀가 번쩍 띄워 페루침목밑을 다지다 말고 허리를 폈다.

3호동에서 일하는 고수머리청년이 통나무를 메고 저바로 지나가며 고개짓을 했다.

《어데 자동차가 왔어요?》

사위를 둘러본 순정은 큰소리로 다우쳐물었다.

《십일호차를 타고 저기 들어서지 않소.》

고수머리청년이 가리키는 서쪽길로 눈길을 돌린 순정은 그만 놀라 손에 들고있던 삽자루를 툴썩 놓았다.

림윤보가 무엇인가 힘겹게 등짐을 지고 등판코숭이길로 내려오고있었다.

벌써 그를 발견한 반장과 반원들이 뛰어가 등에서 짐을 받아내리웠다.

순정은 아버지가 무엇을 그렇게 지고왔는가 해서 그리로 달려갔다.

짐을 휴계실앞에까지 저다가 내려놓은 한 반원이 도대체 왕거부기 등딱지같은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짐바를 제끼고 포대지적을 해쳤다.

순간 거기에 몰박했던 시선들이 일시에 켜해졌다.

《영?! 가마가 아니야!》

《원 아바이도 이 무거운걸 그 먼데서 끝내 지고 왔습니까? 고집두 참!》

반원들이 놀라움과 감탄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웬걸, 군대차를 만나 저 역전굽인돌이까지 치고 왔네.》

림윤보는 조금도 수고가 없었다는듯 입안의 소리로 웅얼거리며 피춤에서 수건을 뽑아 땀줄기가 선 목가슴을 훑었다.

손맥이 풀려 어이없는 시선으로 한동안 림윤보를 흘겨보고있던 반장이 참지 못해 한마디 했다.

《아니 아바이, 가마가 뭐 그리 바쁜셈니까? 지금 일손들을 잡지 못해 야단들하는데 나오는 차를 잡아 자재가 안되면 공구라도 좀 싣고 올게지…에이 일들을 한다는게…》

순정은 반장의 말이 귀밀을 화끈하게 했지만 꼭 자기가 하고싶었던 말이기도 해서 입술을 깨

물며 돌아섰다.

땀을 들이던 윤보는 목에서 수건을 거두지 못한 채 의문이 찬 시선을 돌리며

《아니 안왔던가? 95호차가, 회수자재를 싣고 나온다기에 공구들을 말끔히 걸어서 실려보냈는데...》

하고 차길쪽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겠수다. 다른 일때문에 어데 들려오는게군요.》

짐을 받아놓은 반원이 모두에게 안심시키듯 말했다.

분하고 창피스러운 생각에 아버지의 말은 듣지도 않고 돌아서있던 순정은 식당아주머니가 치마바람을 일구며 다가오는바람에 다시 돌아보았다.

《아유, 이런 변이 있나... 얼마나 수고를 했수. 난 차가 긴장한데 경리과 창고에 가마 하나를 실러 웅근차를 뒤흔수 없다고 하기에 오늘은 못가져 오는줄로 알았구만. 그래도 식당일을 생각해 주는건 아바이라니까, 오늘 점심참에 수고값을 단단히 치를테니 꼭 오슈.》

미간을 찌프린 순정은 노적스럽게 수다를 떠는 식당아주머니가 아버지의 얼굴에 구정물을 끼얹는것 같은 모욕감이 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기라도 하고싶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림윤보의 표정은 너무나도 태연하였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 표정은 먼 장길을 힘겹게 다녀온 어머니가 자식들앞에 장보따리를 헤쳐놓고 물러앉아 땀을 흠치며 흐뭇해하는 그런 표정같기도 하였다.

순정은 그런 아버지가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만일 그때 그쪽으로 지나가던 어느 한 현장지도원이 그 사실을 알고

《보오. 그래도 아바이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소. 날씨가 찬데 한지에서 언뭍들을 뜨끈뜨끈한 국으로 폭 녹이면 힘이 나지 않겠소.》

하는 말을 던지고 가지 않았던들 순정은 아마 참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순정은 그때의 분김이 되살아나는지 얼굴을 발기우리하게 물들이며 《같은값이면 속보에도 크게 이름이 나볼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한다하는것은 남의 눈밖에 나는 일만...》 한다고 푸념조로 말했다.

점도록 듣고있던 덕너는 순정의 말을 쉽게 믿어버릴수가 없었던지 위안조로 말했다.

《글쎄 이제 늙었다는 말을 들어 모르긴 하겠다면 더 두고 지내봐라. 아버지속은 네가 이만큼이나 크도록 같이 사는 나도 아직 다 모른다.》

이때 범 제소리 하면 온다더니 문소리가 찌국

하고 나면서 림윤보가 들어섰다.

문쪽을 돌아본 세사람은 뜻하지 않은 림윤보의 행색에 약속이나 한듯 눈을 둥그렸다.

림윤보는 흙탕물이 튀겨웁은 옷에다가 젖은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채 엉거주춤하고 서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버들가지에 아가미를 꿰운 봉어 몇마리가 들려있었다.

《아이 봉어!》

순정은 저도모르게 손뼉을 쳤다.

자리에서 일어난 덕너는 림윤보의 손에서 고기 꿰미를 받아들며 말했다.

《아니 평생 고기잡이란 모르던 령감이 오늘은 웬일이유? ... 애들처럼 옷주체가 그게 뭐유... 원 령감두.》

윤보는 물참봉이 된 자기 바지를 내려다봤다.

《알쓸이때가 돼서 그런지 얇은 개창에도 꽤 먹음직한것들이 올라왔더라말이야.》

림윤보는 눈귀에 잔주름을 잡으며 못내 휘한해했다.

잠시 고기에 호기심이 갔던 순정이였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니 부지중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의 소행이 너무나도 뚜렷이 림증해주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확실히 이제는 일보다 잡수실 생각이 앞서시는가봐.)

시무룩해지는 순정의 마음을 읽었는지 외숙모가 화제를 돌렸다.

《아주버니, 일을 착실히 해야겠수다. 순정이가 아버지때문에 걱정을 몹시 하는데... 그래서 자식없는 사람이 싫다고 하질 않수.》

그러나 윤보는 조금도 별다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뭘, 애비가 일을 잘못하는것 같아서?》

윤보의 낯색만 지켜보던 순정이 얼른 끼여들었다.

《그럼 아버지 생각엔 일을 잘하시는것 같으세요? 남들이 욕하는것도 모르시고...》

《아니 무엇때문에 욕을 해?》

내리 사내만 삼형제에 막내 외동딸로 태어나 응석부리며 곱게만 자라온 순정은 아직 종종 버릇이 없고 천진스러운데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대바른 교양이 있어 경우가 틀리면 칼끝에라도 올라설것처럼 팔팔 뛰군했다.

지금도 그 성미가 머리를 쳐들었다.

《전번날도 그게 뭐예요. 남들은 바빠 콩튀듯하는데... 말들은 안해도 속으로 뭐라고들 했겠나요.》

순정은 새초롬한 표정을 해가지고 제법 혼시하러 들었다.

그러나 림윤보는 그 말을 통 알아듣지 못하는 듯 굵은 손가락을 우물거리며 옷단추를 벗겼다.

《요새 애들은 자기들만 큰 일을 하고 늙은 애비들이 하는 일은 다 하찮게 보는것 같은데 너도 그런 관점을 버려야 해.》

《아이참 말을 못하겠네.》

순정은 고개를 외로 꼬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퇴마루에 걸터앉아 벗어든 옷옷주머니를 연신 뒤지던 윤보는 《아니 담배갑이 어디로 갔나? 흘렸나?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리고는 한담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요먼저 우리 작업반의 장령감이 하던 말이 공연한 말이 아니야... 마을의 어느 집 아주머니가 쓰레미를 건어두고 오물장으로 나가는걸 세워놓고 수매할 종이몽치들을 끌라내는데 그걸 본 딸이 집안망신을 시킨다고 생야단을 하더라는거야. 네가 바로 그 본새같구나.》

《아이참, 아버지두... 제 말이 어디 그것과 같으세요? 지금 건설장형편을 보세요. 한가하게 고기 잡이나 다닐 때가 됐나말이에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잡히는 고길 놓아주겠냐? ... 우리 순정인 애비가 잡아온 고기라고 이제 안먹을게다.》

윤보의 입귀가 비죽이 들렸다.

《아유, 안먹겠어요. 난 안먹어요.》

순정은 입을 비죽이며 옷방으로 올라갔다.

부녀간의 싱갱이질을 웃음을 머금고 내쳐 듣고 있던 덕녀와 외숙모는 한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원 령감두 똑 같수다. 애말을 새겨들으시구려.》

그 서슬에 으쓱해진 순정은 또 오금을 박으려 든다.

《누군 뭐 그런걸 할줄 몰라 안하는줄 아세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순정이 아버지 반장을 인계하더니 팔자 좋게 고기잡이만 다닌다고 하지 않겠어요... 8호동에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지금 트라스 올리는 작업이 좀 걸려 그러지 그것만 해결되면 우린 따라갈 업두도 못낼거예요.》

사실 3호동과 2호동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별반 차이 없는 작업실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그러다가 3호동 건설자들은 트라스조립단계에 와서 《힘한 강물》을 만나 앓은방아를 찢게 되었다.

한것은 특수산업시설 용도에 따라 설계된 원통식 건물로써 지붕마저도 거기에 맞게 궁형식으로

되어있어 트라스조립문제가 시공상 매우 까다롭게 제기되었다. 트라스 한개의 중량만 해도 기중기의 권양능력을 초과했고 또 기중기의 팔이 짧아 조립점에 트라스를 제대로 안치할수가 없었다.

시공공정대로 하자면 새로운 중량급 조립설비들을 들여와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다한 준비작업이 필요되었다.

그렇게 하자니 시간과 로력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 3호동 건설자들은 기일을 단축하면서도 손쉽게 해볼 해결책을 찾느라 론의들을 거듭하며 모색 했으나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하나 사기를 잃지 않고 어재부리는 철야전투를 들이대는 판이었다.

하는 잡도리를 보아서는 조만간 무슨 변통이 날것 같았다.

2호동이 지금처럼 어물거리다가는 용맹스럽게 《강물》을 헤여건너온 3호동 《호랑이》들한테 기필코 덜미를잡히고야말것이다.

순정은 조바심이 생겨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데 2호동에서는 작업조건의 유리성이 가져온 성과에 도취하여 심기태평해서 늦장을 부리는(순정은 그렇게 생각되었다)것 같았다.

순정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전말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어머니와 외숙모앞에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 말을 다 듣고난 외숙모가 순정의 말을 새겨들어야겠다고 훈수를 들자 윤보는 더 말을 앓고 일어나 세면기를 찾아 들었다.

순정은 나무람을 쏟아놓기는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구부정해서 수도가로 향해가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알수 없는 서글픔으로 가슴이 앞찌근해왔다.

이전에 아버지는 순정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의 기쁨이었으며 힘이였다.

가정과 이웃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사회와 직장에서는 떠받들리우는 모범일군으로 소녀의 가슴에 자랑만을 안겨주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늙은 나이라는 세월의 세파에 기력을 빼앗기고 모든 의욕도 정열도 깡그리 메말라 웅고집만 부리는가 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다 의의를 부여하고 저무는 여생의 취미를 거기서 찾으려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순정은 눈물겨운 동정심이 솟구쳤다.

자신의 몸이 아버지의 시드는 육신에 왕성한 기력으로, 메마른 심장에 다시 소생하는 젊은 열정으로 수혈될수만 있다면 순정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기라도 하고싶었다...

그날밤 순정은 이미부터 계획해오던 가족로력 지원을 한번 조직해볼 생각으로 어머니들을 꼬드겨보았다. 그렇게만 되면 온 건설장이 떠나갈듯이 림윤보아바이네 가족지원대를 찬양하여 소개할것이고 저락되어가는 아버지의 위신과 자신의 체면은 더욱 나타날것이었다. 순정의 생각은 바로 맞아떨어졌다. 외숙모쪽에서 순정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꺼이 응해나섰다.

그래 래일은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니 외숙모가 고모네 집에 들려 그를 데리고 덕녀와 함께 림윤보가 일하는 작업현장으로 나가자고 의논들을 했다.

림윤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구석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을 꼭 감고 달다쓰다 아무 말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림윤보와 함께 출근길에 오른 순정은 뜨직뜨직 땀기는 발걸음이 갑갑해 총총걸음으로 앞서는데 개울쪽으로 먼저 가던 고수머리청년이 웨쳤다.

《여, 순정동무- 장화신세를 이젠 지자고 안할테니 어서 따라오우.》

《애 순정아, 저기 다리가 생겼구나.》

다른 처녀의 짹짹 목소리가 뒤이어 날아왔다. 그들앞을 바라보니 참말 어제까지 볼수 없었던 나무다리가 소나무아래쪽에 새로 놓여 모두 돌아가지 않고 그리로들 건너갔다.

《아버지, 우리도 저리로 건너가자요.》

《오냐, 그래라.》그들이 두개의 통나무로 무어진 다리를 건너 건설장앞으로 들어설 때였다. 앞에서 3호동건설자들인 두 청년이 마주 걸어나오고 있었다. 밤일을 잇대여하고 나오는지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한껏 어려있었다.

《그래 트라스를 올릴 잡도리가 되여가나?》

그들과 길을 어기게 되자 윤보가 걸음을 멈추고 진중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요. 아바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고수머리청년이 득의하여 주머니속에서 무슨 종이장을 꺼내 펼쳤다. 아이들의 학습장을 뜯어낸것 같은 종이장에는 기중기와 트라스가 그려져 있었다.

《보라요. 기중기팔을 이만한 각도로 내리면 그 만큼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트라스를...》

《가만, 트라스를 들게 되면 기중기가 자네한테 엮여지면서 절을 하겠는데...》

《그래서 오모리(기중기 팔의 반대쪽)중량을 그 만큼 높인단말입니다.》

림윤보는 고수머리청년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젠가. 그런 머리를 뒀때문에 어깨우에 올려놓고 다녀?》

림윤보는 거부정한 등을 돌려 가던 길을 걸었다. 두 청년은 부끄러웠던지 순정과 림윤보를 멍청히 바라보며 머리를 굽적거렸다.

《왜 안된다구 그래?》

《여, 가자우. 늑으면 저렇게 보수주의고집을 부리는거야.》

순정은 그들의 말에 모욕을 당한듯 가슴이 뜨끔했다.

두 청년은 피발이 선 눈길로 윤보와 순정을 일별하고는 지나쳐버렸다.

(아버지는 참...)

순정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윤보의 얼굴에는 금시 깊은 주름이 패이며 이 름할수 없는 표정이 어렸다.

언제나 마음속밑바닥의 느낌을 곁에 잘 드러내지 않고 일상 생활감정을 굵뜨게 감수하는듯싶은 윤보이지만 순정은 그런데 습관된 딸의 예민한 감각으로 얼굴표정의 미세한 변화에서조차도 아버지의 기분을 곧잘 알아맞이곤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윤보의 얼굴색은 그 어떤 살불이의 고통을 두고 가슴아파하는것 같은 표정이였다.

순정은 이왕이면 고집쟁이란 말을 안듣고도 될 일을 두고 자기까지 부끄럽게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것으로 단정하고싶지는 않았다.

×

한때 건설장에 취재나왔던 어느 한 기자가 불꽃튀는 건설장을 돌아보고나서 순정에게 대 교향악지휘자라고 말한 일이 있다. 그때 순정은 그 말의 참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실상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건설장은 각이한 음향들로 차있다.

기중기소리, 권양기소리, 혼합기소리, 용접기소리, 자동차소리, 이런 각이한 음향들이 서로 어우러져 장쾌한 화음을 이룬것을 들으면 과시 대교향악에 비유할만도 했다.

그 한복판에 키높이 올라선 기중기가 지휘봉마냥 큰 팔을 휘젓고있으니 운전공을 교향악지휘자라고 한 말도 실은 얼마나 그럴듯한 표현인가.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된 순정은 자기 직무에 대해 남다른 긍지를 가졌었다.

그랬건만 그 운전공의 직무가 오늘처럼 순정을

딱하고 안타깝게 만들줄은 몰랐다.

아침에 기증기운전실로 올라오자부터 순정은 어머니가 인솔하는 《지원부대》가 나타나는가 해서 줄곧 개울쪽만 살펴보았다. 그런데 좀체로 눈에 띄지 않던 《지원부대》가 어느새 3호기중기앞에 나타나서 다른 작업반의 일을 해주고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작업장을 잘못 알고 그리로 인솔해간것이 분명한것 같았다.

순정은 제잘못에 화가 났다.

어제밤 늦도록 빵을 찌넌다 지짐을 부친다 하며 음식을 마련하느라 돌아치다가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던 순정은 출근시간이 늦을가봐 볶아치는 통에 어디로 와야 한다는것을 어머니한테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것이다.

아침에 기증기우에 올라와서야 그것이 생각되었다. 그래 수습하려 하다가 어머니가 나오면 의례히 아버지를 찾아서 일감을 받아야 할것으로 믿고 그대로 있었던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일은 이렇게 된것이다.

이제라도 어떻게 하나 알려줘야겠는데 비둘기상같이 높이 매달린 운전실에 들어와 앉아서는 도저히 어쩔수가 없었다.

운전공은 로동시간에 신호수의 신호외에는 다른 사람과 일체 말을 주고받을수 없으며 잠시도 운전실을 리탈할수 없게 되어있었다.

순정은 혹시 잘못 보지나 않았는가 해서 몇번이고 다시 그쪽을 눈여겨보았다.

몸집이 통나무같아 행동이 둔해보이는 외숙모, 딱 바라진 가슴에 팔자걸음이라고 어머니들의 놀림을 받던 이모, 이렇게 멀리 떨어진곳에서도 이 모든것을 험등하게 가려볼수 있으니 우리 집 가족지원대가 분명하였다.

순정은 안타까운 심정을 달랠길 없어 행어나 어머니들이 자기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운전실우에 눈길을 돌리거나 앓을가 해서 창문을 활짝 열 어제켰다.

그랬건만 어머니들은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련방 땀이질과 삽질을 엇바꾸어 해대면서 무슨 구멍이 같은것을 파느라 열성이었다.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알아보고 저기 가서 저런일을 할가, 그러지 않아도 3호동이 노루쫓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따라오는데...》

무릎꿇 화에 동이깼 화라구 순정은 그러지 않아도 화가 동해 죽겠는데 어머니들은 한동안 허리침을 하고나더니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온 음식 버치며 사이다병 등숙을 우에서 일하고있는 3호동 전투원들에게 올려보내주려고 기증기광주리안

에 들어놓기 시작했다.

밤새 성의롭게 마련한것을 아버지와 우리 작업장전투원들에게는 맛도 못보이고 모두 다른데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분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이 그리 바빠 얼굴도 한번 내밀어보지 앓을가.

아쉽고 애타는 마음이 순정의 가슴을 빠질빠질 태웠다.

점심고동이 울리자 굴러내리듯 재빠르게 기증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순정은 3호기중기앞으로 총알같이 달려갔다.

그리고는 무작정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끌고 외진곳으로 갔다.

《아니 이 애가 왜 이러냐 ? 봐라, 소매 터질라.》

덕너는 순정이가 이끄는대로 비척비척 따라오며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어머니, 아니 글썄... 한심하다니까 글썄...》

순정은 숨이 턱에 닿아 안타깝던 심정을 한꺼번에 쏟아놓지 못해 떠듬거렸다.

덕너는 무슨 일을 저지른것 같은 예감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왜 이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글썄 어머니 언데 일을 해주고있어요. 그건 다른 작업반의 일이에요.》

《아니 다른 작업반이라니?!》

금시 놀란 덕너는 의아한 눈길로 되물었다.

《그럼 네 아버지작업장이 예가 아니란말이냐?》

《저쪽이에요. 저쪽.》

순정은 답답하다는듯 무릎을 꺾었다추스르며 짧은 팔을 들어 2호기중기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덕너는 심각해진 얼굴에 더욱 짙은 의문을 실으며 순정을 말뚱하니 쳐다보았다.

《아니 그럼 어찌된 일이나? 네 아버지가 우릴 여기로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고 갔는데...》

《뭐라구요?!》

이번엔 순정이쪽에서 펄쩍 놀라며 울롱해진 눈으로 덕너를 마주보았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수가 없었다. 순정은 믿을수가 없어 재삼 물어보았으나 덕너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어머니를 탓할 근거야 없지 앓는가.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심사로 어이 조직해놓은 일을 마음대로 그렇게 형클어놓는지 알수가 없었다.

순정은 당장 아버지를 만나 성풀이를 하지 앓고는 건딜수가 없었다.

그래 그달음으로 휴게실을 찾아갔는데 윤보는 피하기라도 한듯 자루가 상한 삽들을 거둬들고 어데론가 나갔다는 것이었다.

(참 성미도 이상하지... 점심때가 되면 남들처럼 밥잡수실 생각은 않고 어텔 또 나가셨을가?)

불이 붙어난 순정은 목공작업장을 거쳐 갔을만 한데는 다 다녀보았으나 어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통 찾을수가 없었다.

이튿날아침 순정은 어머니가 싸주는 밥보자기 하나를 더 꾸러들고 집을 나섰다. 어찌된 일인지 기다리던 윤보는 아침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작업반장사업을 하던 때에는 현장에 긴장한 일이 제기될 때마다 가끔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때가 있었지만 요사이와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던 윤보이고보니 덕녀의 잔근심도 없지 않게 되었다. 혹시 누구네 생일놀이같은데라도 불려갔다가 발목을 잡힌 것이나 아닌가?

순정은 녀려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다심한 잔소리를 들어서라기보다 아직 어제의 성이 사그라지지 않아 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

어느덧 공사장구내에 들어선 순정이 아버지의 작업반휴게실을 향해 3호동앞을 지나는데 그때까지도 밤작업을 떼지 않은 그곳 전투원들이 길을 막아놓고 벽적 떠들고 있었다.

순정은 의외의 광경에 놀라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볼수 없었던 두개의 커다란 원통형 쇠기둥이 3호동건물을 가운데 두고 높이 서있었는데 3호동 린접전물만장판우에 세워져 있는 좌측 쇠기둥끝에 련결된 굵은 쇠바줄이 맞은편 아래에 위치하고있는 쇠기둥에 송전선처럼 이어져 있었다.

류동복활차에 달린 팔뚝같은 쇠고리는 육중한 강철트라스의 중심중력선을 찌처럼 묶은 쇠바줄을 물고 있었다.

활차바퀴에 기름을 주는 사람, 무쇠고리를 강철트라스허리에 든든히 걸어매는 사람, 쇠바줄매듭들을 재확인하는 사람, 신호를 기다리는 권양기운전공, 로동안전원, 모두가 폭발물실험을 앞둔 사람들처럼 긴장된 얼굴로 트라스 올림작업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밤을 새워 피발이 선 눈들에서는 식을줄 모르는 열정이 불꽃처럼 번뜩였다.

순정은 가슴이 뭉클해오면서도 무엇에 쫓기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가로막힌 《강물》앞에서 머물거리던 《호랑이》들이 드디어 용맹스럽게 그 《강》을 건느기 시작

했구나 하는 생각에 초조해지는 마음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발하고 대담한 안을 내놓고 내미는 것일까?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광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던 순정은 갑자기 울리는 요란한 호각소리에 주춤 물러섰다.

트라스 올림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윙-하는 권양기의 동음과 함께 푼푼하게 늘어져있던 쇠바줄이 금시에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리면서 류동복활차의 바퀴를 서서히 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저 빨래줄같이 늘어져있는 쇠바줄이 이처럼 육중한 물체의 하중을 당해낼수 있을까?

의문과 초조가 엇갈린 시선들이 한곳에 몰박혀 한초한초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데 권양기소리가 가빠지면서 뿌드득 뿡뿡하는 소리가 들렸다.

쇠바줄에 짐이 실리면서 쇠바줄을 물고있는 기둥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쇠기둥이 앞으로 넘어지는 날엔 참혹한 사태가 빚어진다. 그러나 걱정말라는듯 쇠기둥 상수리에는 부채살처럼 뻗어내려온 다섯줄의 벌줄이 땅에 박혀 믿음직하게 기둥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곳에 눈길이 가는 순간 순정은 자기도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그 벌줄들이 묻혀있는 밑받이구덩이는 바로 어제 어머니들이 파던 그 구덩이가 아닌가!

순정은 창황중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정황이 인차 그의 생각을 앗아갔다.

땅에 깔렸던 침목이 부푸는듯하더니 육중한 트라스가 물우에 뜨는 배처럼 슬며시 떠올랐다.

윙기면 현금소리라도 울릴것 같은 쇠바줄이 사람들의 가슴을 팽팽하게 자극했다.

트라스가 일정한 높이에까지 올라갔을 때였다.

《자 류동권양, 올려라!》

하는 목소리가 어데선가 들려왔다.

그러자 트라스를 문 류동복활차가 3호동 건물우로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탕 하고 바줄 튀는듯한 소리가 들렸다.

순정은 그 소리가 자기의 가슴속에서 터지는듯한 느낌에 머리가 오싹해서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상상할수 없는 처참한 현상이 빚어지는것 같은 환각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쳤다.

쇠바줄로 기여오르던 활차가 흠칫하고 멎었다.

그바람에 집채같은 강철트라스가 공중에서 흔

들흔들 그네를 뛰면서 쇠기둥을 잡고

있는 벌줄의 힘을 시험해보듯 팽팽하게 잡아헤었다.

《어마나 저 벌줄들이 뿔쳐나오면 어쩌나!》

순정은 벼랑끝에 올라선듯 아심아심 가슴을 조이며 벌줄의 흔들림을 다시 훑쳐보았다. 그러면서 제발 어머니가 벌줄구멍이를 깊이 파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왜 멈추느냐?!》

어데선가 추상같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권양기 운전손잡이를 으스러지게 틀어쥔 청년이 땀이 번들거리는 얼굴에 긴장을 띠고 웅크렸다.

《무슨 소립니까?》

《기둥줄에 조임가는 소리다. 멈추지 말고 계속 당겨라! 당겨!》

채삼 날아오는 열기띤 소리가 귀에 뱅 뱅 목소리여서 그제야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정은 그만 깜짝 놀랐다.

윤보가 저바로 3호등 측벽에 붙어서서 범물이 하는 포수같이 무쇠같은 주먹으로 획획 허공을 때렸다.

깊은 주름이 뚜렷하게 선을 이룬 얼굴에는 전에 볼수 없던 위엄기와 단호하고 침착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적진을 향한 병사들에게 멸적의 구령을 내리는 지휘관과도 같은 준절하고 엄한 기상이었다.

땀을 쥐고 가슴을 옥죄이게 하는 이 거창하고 엄엄한 일을 아버지가 지휘하고있단말인가.

순정의 가슴은 호독호독 뛰면서도 자랑으로 부풀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감정에 젖어들었다.

순정은 그것이 아버지를 고깝게 생각하던 차거운 감정이 눈앞에 펼쳐진 뜨거운 불덩어리앞에 녹아버리는듯한 회오의 감정이라는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순정은 어떻게 강철트라스가 3호동우에 올라가 조립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성공이다!》

《야! 성공!》

주위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그 소리에 자기로 돌아온 순정은 청년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떠드는것을 보았다.

《아바이, 연공반장숨씨가 어데 가지 않았군요.》

《평양교예극장 트라스도 이렇게 올렸는가요?》

청년들이 겨끔내기로 물었다.

위엄기를 가지고 본래의 표정을 찾은 윤보는

그들의 말엔 대꾸가 없이 신심을 주듯 말했다.

《첫개가 올라갔으니 그렇게 하면 뚝죽하네.》

어느새 3호동앞에는 출근하던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만난 조무래기들처럼 오구구 모여섰다.

감탄에 젖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왔다.

이때 한쪽 어깨에 가방끈을 걸친 고수머리청년이 헤엄치듯 사람들의 물결을 헤집고 윤보앞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야 뻘군요! 뻘어요! 돌과구를 열었군요. 아바이가 일깨워주지 않았던들 우리는 하마트면 기증기를 넘어뜨리는 큰 사고를 낼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 젊은이가 말이 많다!》

《아닙니다. 너무 기뻐 그렇습니다. 우리 3호동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했던 준공식날에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죄를 무엇으로 씻겠나요. 숨은 영웅들처럼 소문도 없이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아바이에게 뭐라고 감사를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바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기뻐서 춤이라도 추렵니다.》

고수머리는 엉치에 붙었던 가방이 발뒤굽에 내리드리운것도 모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얼씨구 뻘구나 절씨구 뻘구나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렸다.

그바람에 주위에서 와하- 하고 웃음이 터졌다.

(숨은 영웅들처럼!!)

함박웃음이 핀 밝은 얼굴들에서 맑은 물기가 번쩍이는 눈들(3호동건설자들)을 발견하는 순정은 이 장소에 자기 하나인 너자의 눈이 뻗뻗이 말리 있다는 오달진것 같은 생각에 고개를 떨구었다. 건설장을 돕자는것보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가족로력지원대를 발기했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3호동 일을 시켰다고 매를 품고 아버지를 찾아다녔던 자신이기에 이 시각 그처럼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딸로서 웅당 함께 가질수 있는 영예와 행복을 나눌 권리가 없다는 자격지심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땅에 눈길을 떨구고있는 순정의 눈앞에는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힘한 령을 넘는 한 어머니가 발이 부르뜨고 기력이 진하여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손잡아 이끌기도 하고 지친 등에 업기도 하면서 기어이 함께 령을 넘는 그런 정깊은 모습이 삼삼히 안겨왔다.

《어머니들은 사회적평가를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것이 아니지!》

정녕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온 공사장 건설자들의 앞장에서 어렵고 힘든 고비를 함께 넘는것이 아닌가.

아 그런 아버지를 내가 왜 보지 못하고있었을

가.

순정은 들고나온 아침밥을 아버지에게 드릴 생각도 있고 자책의 채찍앞에 자신을 맡긴채 망연히 서있었다.

그 다음날도 순정이네 가족들은 야간지원자들 속에 끼워 건설장으로 나와 편이어 3호동 일을 도와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출근하면서 속보판앞을 지나던 순정은 밤사이에 커다란 속보가 새로 나붙어 걸음을 멈추었다. .

-가족지원대의 발기자 림순정을 축하한다. 순정동무의 온 가족이 펼쳐나와 뒤떨어진 3호동을 물심으로 지원, 이에 고무된 전투원들 트라스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매일 300프로의 작업성파로 앞선 작업장과 보조를 같이하게 됨-

속보를 읽는 순간 순정의 눈에는 글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눈앞이 흐려왔다.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앞에 소개되면 그처럼 기쁘고 행복하던 자신이 속보를 보자 오히려 부끄럽고 송구한 자책감이 가슴을 찢었다.

순정이 안볼것을 보더라도 한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돌아서는데 고수머리청년이 다가왔다.

순정은 속보판앞에 멍청하게 서있었던것을 후회하며 부끄러워 막 달아나려고 했다.

하나 고수머리는 우악스러운 손으로 순정의 팔소매를 붙들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순정동무, 왜 자주 달아나려고 해, 동무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순정은 이 익살꾼이 또 감사를 주려고 한다 하며 성화를 낼것 같아 한사코 몸을 빼려고 했다.

《아이 싫어요, 싫어.》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주머니에서 담배갑과 도장을 꺼내더니 순정이앞에 내미는것이였다.

《동무 아버지한테 가져다드리우.》

순정은 영문을 몰라 그것을 받아보았다. 물에 씻긴듯이 깨끗한 도장목에는 림윤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보니 담배갑도 아버지의것이 분명하였다.

《아니 이걸 어디서 났어요. 얻었어요?》

고수머리청년은 순정의 물음에는 대답하지도 않고 정색한 표정으로 밀도끝도없이 아버지를 나무라는것이였다.

《동무 아버지는 생각하는게 확실히 늙었다말이요.》

고수머리청년은 얼마전에 앞내가에 새로 생겨난 나무다리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 다리로 질러다니게 된 사람들은 모두 어느 고마운분이 이런 일을 했는가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 소행의 임자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얼마후 건설장의 물동을 그리로 날라들이게 될

일이 생겨 사로청원들이 동원되어 그 다리를 다시 손질하게 되었는데 물밀을 가져내던 어느 동무의 삽날에 윤보의 담배갑과 거기에 달려있는 도장이 떨어져올라왔던것이다.

그제서야 이 물건의 주인이 다리를 놓았다는것을 알아차린 사로청원들은 림윤보아바이에 대한 찬사의 말들을 하면서 이런 일이야 사로청원들한테 시킬것이지 무엇때문에 늙은이가 혼자서 그런 수고를 했는가고 나무람도 컸다는것이였다.

고수머리청년의 말을 듣는 순간 순정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럼?!》

하고 뇌이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전번 외숙모가 집에 왔던 날 젖은 옷으로 늦게 들어온 아버지를 고기잡이를 하느라 그렇게 한줄로 알고 어머니가 지청구를 하던 기억이 삽시에 뇌리를 쳤던것이다.

아직 누구도 모르고있던 그 사실을 비로소 똑똑히 깨닫게 된 순정은 형언할수 없는 걱정으로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눈곱이 뜨거워왔다.

나는 오늘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사는 딸이 아니었던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것인지 아직다는 알수 없으나 한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가족들이 모르는 많은 일을 안고 묵묵히 뒤겨뚱해주면서 그들의 보급자리를 꾸려주고 앞길을 바로잡아주고 있다는것만은 알고있다.

그러나 건설장의 모든 일을 다 자기 집뜨락의 일처럼 거뒀주고 건설자들처럼 한식구처럼 보살피주면서 그들이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남모르게 뒤받침해주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있었다.

순정은 일터로 가고올때마다 사시절 역세고 푸르청청한 기상을 주는 로송과 꾸준한 어머니의 성품처럼 변함없이 흐르는 내물은 보아왔지만 그 소나무의 밑뿌리에 자양을 주는 비옥한 토양을 보지 못했고 산속깊은 지각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물의 원천을 보지 못했던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일도 아니고 건설장의 방송차에서나 속보장에도 소개될 미담도 아니고 지어는 눈에 띄우지조차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였으나 그것이 우리 건설집단의 영웅적위훈을 가꾸어주는 자양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니 순정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사람들속에 받들리워 명예로 빛날것만 바라면서 아버지를 나무랐던 자신의 뉘우침과 훌륭한 아버지의 어깨에 받들려 사는 행복감으로하여 순정은 눈곱이 축축히 젖어왔다.

첫지옥

량남의

탁상앞에 앉아 생산일보철을 들여다보는 지배인 김석철의 얼굴은 초조했다.

생산일보철을 옆으로 밀어놓고 이미 날자가 여러날 지난 탁상일력을 번지던 그는 《20일》이란 날자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새로 개발되는 광산에 보낼 광차생산이 늦어진다는 근심으로 그는 이마를 찡그려뜨렸다.

20일이란 날자까지는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광차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벌써 지배인으로 배치되어 일한지 넉달째 잡혀온다. 이 넉달이라는 시간은 광차생산문제를 안고 모태긴 나날이었다.

며칠전에도 석철은 현장에 나가 광차생산실태를 료해해보았다. 직장장들과 작업반장들도 다 만나 보았으나 신통한 방안은 없고 저마다 광차생산이 늦어진다고 걱정들만 했다.

생각던끝에 석철은 주택건설에 동원된 로력을 광차생산에 돌리라는 과업을 기사장에게 주었다. 우선 생산부터 보장해놓고볼 심산에서였다. 그러나 기사장은 지배인이 준 과업을 통 받아물념을 하지 않았다.

《그래 기사장이란 사람은 어디 지배인과 한번 맞서보자는 심산인가.》

지배인의 입에서는 저도모르는사이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너머로 밤하늘의 별무리가 땅우에 내려앉은듯 환한 공장구내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공장구내너머 저멀리 보이는 주택건설장에서는 용접불꽃이 불비처럼 쏟아져내리고 탑식기중기의 팔끝에 매달린 축수높은 투광등이 건설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문기척소리에 석철은 눈길을 창문에서 뗐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흰 앞치마를 두른 예순에 가까운 녀인이 들어왔다.

《아니, 식당책임자어머니가 어떻게? ...》

석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뽕강냉이나 맛보라구요...첫물이라우다...》

책임자어머니는 들고온 보자기를 지배인의 책상 앞으로 밀어놓았다. 구수한 냄새가 삽시간에 온 방안을 채웠다. 한가지라도 색다른게 생기면 아직 합숙에서 류하는 지배인을 생각해주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밤낮 신세만 지니 미안해서...》

석철은 진정 미안스런 웃음을 띠었다.

《이렇게 매일 밤을 새우면 어떻거우. 몸도 돌보면서 일도 해야지... 빨리 집두 이사해오구요...》

《집사람이 담임한 애들을 새학년에 마저 올려놓고서야 오겠답니다.》

석철은 어머니의 온정을 느끼며 뽕강냉이를 스스로없이 집어들었다.

《어쨌든 빨리 이사를 와야지...》

어머니는 한동안 지배인의 집걱정을 해준다.

《원, 제 어머니가 해주는 이밥보다 제색시가 해주는 범벅이 더 맛있다는 말두 있는데 여기서 끓여주는 음식이 입에 맞겠수.》

시당책임자녀인은 수척해진 지배인의 얼굴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 지배인어른은 오늘두 광차생산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밤을 밝히는거겠수?》

《아니, 어머니가 그런 속내를 어떻게 압니까?》

석철은 진정 놀라는듯 웃어보였다.

《원 지배인두...》 어머니는 나무랄다는듯 혀를 찼다.

《아무리면 공장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배인의 마음속을 모를수가 있겠수? 지배인이 기뻐할 일이면 온 공장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구 지배인이 근심할 일이면 온 공장사람들이 근심할 일인걸유... 마음을 놓수. 일이 다 잘될거우다.》

지배인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믿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광차생산계획과제를 실행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들이 뿔뿔하게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지배인이라고 하랴, 생산이다, 다른 일에는 좀 지장이 있을지언정 생산을 내밀어야 한다.

지배인은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다. 남은 열흘 동안에 제껴야 할 일거리들을 날자별로 따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다.

《어머니, 나때문에 그냥 지체하지 말구 어서 돌아가서 쉬십시오.》

석철은 서류함에서 광차생산자료들을 꺼내서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이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충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일테지?)

석철은 벌써부터 마음이 다급해났다.

그는 마음을 녹잡하며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

다.

《원 전화두… 의논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다 해놓을 노릇이지 한밤중에 전화를 걸면서.》

어머니는 혼자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을 나무라며 상우를 뒤겨들질해가지고 문밖으로 사라졌다.

《내 김석철입니다.》라고 하는 이쪽의 말이 가당기가 바쁘게 기사장 손창무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배인동무! 갑자기 긴급한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니까… 좀 만나주실수 있겠습니까?》

석철은 대번에 얼굴을 찡그렸다.

《전화로 얘기하면 안되겠소?》

《지배인동무와 직접 토론할 문제입니다.》

석철은 앞상우에 널린 자료들을 훑어질듯이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속에 기사장에게 해야 할 대답이 썩여져있기라도 한듯이… 수화기로는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소곤거리는 손창무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보나마나 주택건설로력을 생산에 돌리는 문제때문일것이다.

(원 기사장이란 사람이 생산에 더 관심을 뒤아지 이 바쁜 때 주택에 신경을 쓰다니?)

석철은 속이 언짢았다. 그렇다고 그토록 간절히 부탁한것을 짜를수도 없었다.

《그렇게 하오. 내 기다리겠소.》

《청년직장의 최영준동무가 아주 긴요한 문제를 제기해와서 그러니까…》

기사장은 무슨 변명처럼 조심조심 말했다.

《아니, 여보 기사장동무…》

그러나 저편에서 벌써 전화를 끊은뒤라 김석철 지배인도 하는수없이 송수화기를 내려놓는수밖에 없었다.

(최영준이라?!)

김석철의 뇌리에 이틀전에 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김석철지배인은 광차생산을 내밀기 위한 대책안을 세우느라고 더없이 바빠돌아갔었다. 당장 협의회에 내놓고 토의를 걸쳐보야 했던것이다.

그럴때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역대우같은 청년이 들어서며 그 몸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련하고 순한 투로 청년직장 선반공 최영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고는 그냥 머뭇거리기만 했다. 석철은 기다리다못해 제편에서 먼저 물었다.

《그래 찾아온 용건은 뭐요?》

그제서야 청년은 주택문제때문에 찾아왔노라고 간신히 말을 뱉었다.

《주택문제라니?》 석철은 의아해서 청년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새로 일떠선 6호동이빠트를 한세대 배정받을수 없을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주택문제로 가끔 찾아오는 경우들이 없는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6호동이빠트에 대한 배정사업은 이미 끝난 뒤였던것이다. 완공되기가 바쁘게 후방부지배인이 배정안을 짜가지고 와서 몇시간 동안이나 들볶아냈던것이다. 그 배정안에 들어있는 50명의 이름가운데서 최명준이라는 이름을 본 기억은 좀체로 나지 않았다.

《아빠트라?…》

석철은 연필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청년의 말을 되받았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주택문제에 대한 제기를 받고보니 대답할말이 인차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은근히 자신에게 화를 냈다. 생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배인을 보여준것 같아서…

《식구가 많은 모양이구만?!》

석철은 너그럽게 웃으며 영준에게 물었다.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럼 다른 사정이 있는게로구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청년은 얼굴이 벌개지며 대답했다.

《이것도 아니구, 저것도 아니라…》

석철은 웃음으로 청년의 말을 받아넘겼다. 하지만 청년이 무엇인가 등떠보는것 같아 불쾌했다.

주택문제에 관한것은 후방부지배인에게 제기할 문제라는것을 이 청년도 잘 알것이 아닌가. 물론 지배인도 후방사업을 보고있지만 공장전반을 틀어 쥐고나가야 할 지배인이 한 노동자의 주택문제까지 관심을 돌릴수 없다는것도…

그러나 그는 좋지 못한 감정을 누르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영준동무도 알겠지만 일에는 다 순서가 있지 않소. 가령 주택문제라 하면 의례 후방부지배인동무에게 제기해야 하지 않겠소.》

《…………》

그제야 영준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것처럼 당황해하였다.

《…어쨌든 나한테 주택문제를 제기한 이상 후방부지배인동무에게 이야긴 하겠소.》

《알았습니다.》

청년은 더는 화제를 끌 생각을 앎고 들어오던 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이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지배인방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후방부지배인에게 단단히 이야기해야겠어.) 석철은 탁상일력을 앞으로 끌어당겨 《최영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방금 제기받은 주택문제를 적어넣었다. 그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기는 그이상 더 지배인에게 최영준의 문제를 사색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광차생산문제때

문에 현장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기사장이 걸어난 전화에서 또다시 듣게 된 최영준이라는 이름은 지배인으로 하여금 이틀전에 있었던 일을 되살려주었다. 그는 저오기 당황해졌다. 광차생산때문에 최영준이가 제기한 문제는 가뭇 잊어버리고 있었던것이다. 아마 최영준은 지배인한테서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번엔 기사장을 쏘서댄 모양이다. 기사장이 이런것 저런것 잘 받아주는 해폰 사람이라니까 그 주택문제도 쉽사리 받아주었을것이다.

(참, 기사장이란 사람두... 사람이 너무 좋아두탈이라니까. 어제밤엔 현장에서 제기된 기술혁신때문에 노동자들과 함께 밤을 밝히더니...)

석철은 속으로 기사장을 나무랐다.

이때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급하게 들려오며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석철은 저도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후 문이 열리더니 선참 들어서는것은 손창무기사장이었다. 단정한 몸매에 눈이 류달리 컸다. 그위로 몸이 다부진 최영준이 모자를 벗으며 들어섰다.

석철은 그들에게 앞상앞에 와서 앉을것을 권했다.

《그래 무슨 일이요?》

석철지배인은 기사장과 영준이를 엄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인차 생각이 난듯 탁상일지를 번지였다.

《참, 일이 바쁘다나니 깜빡 잊었됐구만...》

이틀전 일지가 나왔다. 거기에는 《청년직장 최영준, 후방부지배인에게 전화로 알아볼것》이라 써여있었다.

손창무기사장은 영준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영준은 손에 들었던 종이두루마리를 석철이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건 뭘요?》

석철은 머리를 들어 영준을 건너다보았다.

번듯한 이마며 곧은 코마루, 부드럽게 번뜩이는 눈동자, 어느모로 보나 아련하고 순한 속이 너그럽다는 인상을 안겨주었다. 그러한 청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품을 보면 꼭 처녀애들처럼 웅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굴리며 긴 앞상우에 펼쳐놓은 종이마리를 보던 석철은 느닷없이 량미간을 모두어붙였다. 가로세로 지나간 선들과 점선들이 그 무슨 도안비슷한것을 련상시켰던것이다.

《이건 무슨 도면이 아니요?》

어망결에 김석철은 이렇게 물었다.

《광차바퀴가공지구입니다.》

영준은 순하고 아련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뭘, 광차바퀴가공지구라구...》

지배인은 귀가 번쩍 트이었다. 좁전의 불패하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지구가 완성되면 가공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공정들을 훨씬 단축하게 됩니다.》 손창무기사장이 한마디 더 보냈다.

《복잡한 공정들을 단축한단말이지?》

김석철은 혼자말처럼 뇌였다.

석철은 버쩍 구미가 당겼다. 광차생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백밤을 새운다 해도 힘들것 같지 않은 지배인이었다.

《이 도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우.》

《이 조임장치를 보십시오. 이 장치로 해서 우선 소재를 몰릴 때...》

손창무는 연필로 도면을 찍어가면서 조리있게 설명해나갔다.

《...소재를 몰릴 때 단번에 편차가 나지 않게 중심을 딱 맞출수 있지요. 바로 이놈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소재를 일단 물려놓기만 하면 바로 이놈의 도움으로 가공을 단번에 끝까지 해낼수가 있지요...》

《그래서?》

김석철의 가슴속에서 불현듯 기쁨이 솟구쳤다. 잘하면 광차생산에서 제기되는 가장 복잡한 고리의 하나가 예견했던것보다 뜻하지 않게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신심이 생겼던것이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었으며 열기오른 눈길로 손창무와 최영준을 번갈아보았다.

《그래, 우리가 만약 이 지구를 도입한다면, 그뎨 일이 어떻게 된다는게 동무들한테 환하오?》

이 말을 영준이가 먼저 받았다.

《지금은 광차바퀴 하나를 깎자면 다섯대의 선반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그러나 가공지구를 도입한다면 단 한대의 선반에서 끝장을 보게 되지요.》

뒤따라 기사장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공지구를 도입한다면 3배의 생산성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을 끝내고 지배인을 여겨보면서 그 큼직한 두눈을 슴벅거렸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그렇지만 지배인동무가 이 지구에 대해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지요.)

김석철지배인은 도면을 들어 눈앞에 바투 대고 또 한번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도면의 점과 선, 수자에 완전히 취해버렸다. 벌써 그의 눈앞에는 생산계획을 끝낸 기쁨과 환희가 가슴에 미쳐 오는것이였다.

그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그런데 직장장이나 기술과장하고도 미리 토론해봤소?》

석철은 영준이쪽으로 눈길을 옮기며 물었다.

《…………》

영준은 갑자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물론 토론해보았습니다.》

기사장이 인차 대답했다.

《우선 직장장동무하고 토론해봤고 기술과 리기사동무하고도 의논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들이 뭐라고 대답했소?》

창무가 결상에 앉은채 약간 앞으로 움직여나왔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인데도 지배인동무를 찾아왔습니다. 기사장 한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로만은 잘될것 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로 밀대기를 한단말입니다.》

《음…》

석철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신음소리 비슷한것이 흘러나왔다. 기사장은 자기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내놓고 말들은 안하지만 알만한 일이지요. 이 지구를 도입하려면 술한 로력공수가 계획외로 투하 해야 하고 작업장의 배치를 뜯어고쳐야 하니까요.》

이때 영준이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실 작업장을 새로 꾸리는데 한주일이 소모되는데 그동안 밀진걸 이틀이면 다 봉창할수 있습니다.》

지배인에게서는 영준의 그런 설명이 필요없었다. 그것없이도 새 설비가 어떤 리득을 준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지배인이었다. 설비의 주인은 노동자들뿐아니라 지배인자신이 아닌가. 그러나 새 설비에 의한 새로운 작업방법으로 넘어가기까지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는데 대하여서 그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생산이 높아지지 않는가, 생산만 높아진다면 무슨 일이든 내밀 의향이 있는 지배인이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지배인은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기사장동무, 이렇게 하지요. 기술과와 공무과를 기사장동무가 직접 틀어쥐고 이 일을 밀고나가야 하겠소. 그리고 영준동무에게는 유능한 설계원 두사람을 붙여줍니다. 도면에 비침이 없게 말지요. 물론 이 모든 사업은 아침에 내가 직접 포치하겠소.》

기사장을 향해 이런 말을 한 다음 지배인은 영준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동무는 일이 성사될 때까지 한결음도 물러서지 말란말지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영준은 도면을 도로 거둬쥐더니 결상에서 일어나 군대식으로 두발을 모두어붙이고 차렷자세를 취하며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그의 두눈에는 어린애같은 기쁨이 넘쳐났다.

갑자기 석철에게는 주택문제가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러자 은근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가만 생활상 애로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지?》

석철은 사과라도 하는것처럼 영준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지배인동지.》

석철지배인은 탁상일지에 눈길을 던지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왜 없겠소? 일이 바쁘다나니 후방부지배인동무에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택문제를 물어와지.》

《일없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청년은 벌써 문밖으로 사라졌다. 석철은 한동안 멍랑하고 아쉬운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닐었다.

손창무도 자기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있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어쩐지 석철에게는 괴로웠다.

이윽고 석철은 후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저께 저 동무가 나한테 주택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가구 제기하러 왔더라말지요…》

《…………》

기사장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주택문제를 나한테 까지 들고왔을텐데 왜 지금은 없다고 할가?》

석철은 영준이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불만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그제서야 기사장은 입을 열었다.

《이달안으로 신부를 데려와야 하지요. 결혼식을 하니까요.》

《결혼식?》

《그렇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이랑 나이찬 녀동생들이랑 다같이 지내야 할 형편에서 신부를 맞아들여 신집살림을 펴자면 새 주택을 요구할만도 하지요.》

《왜 기사장동무는 이때껏 그런 말을 나한테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소?》

석철은 불만투로 한마디 던졌다.

《지배인동무자신이 알아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디다.》

《내가 알아야 할 문제다!》

석철은 혼자소리처럼 되뇌이였다.

석철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쩐지 기사장

의 말은 생산수자만을 볼 줄 알았지 그 수자를 만 들어내는 사람들을 볼 줄 모르는 지배인에 대한 원망처럼 들렸던 것이다.

《우리 공장에 당장 시집 장가갈 동무들이 많 소?》

석철은 손창무에게 불만조로 물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 오는 것이었으며 손상 당한 자존심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이달엔 영준동무 하나지만 앞으로는 물론 있을 겁니다...》

기사장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 말고 그 큼직한 눈을 슬쩍거리기만 하였다.

석철은 기사장이 하려다가만 그 말뜻을 인차 가능했다. 아마 기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생산수자도 중요하지만 사람문제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석철은 그 모든 것을 보지도 못했으며 또 알고 고도 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책상 위에 놓은 자료들에 시선을 박았다.

× ×

일요일의 저녁해를 등에 지고 석철지배인은 기사장과 함께 남천강기슭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금방 남천강기슭에 새로 지을 공장정양 소터를 잡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세멘트다리를 건너 새 거리가 한창 일떠서고 있는 건설장쪽으로 접어들었다. 한창 조립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새 아파트에서는 용접불꽃이 번쩍이고 신호수의 호각소리와 함께 기중기는 부채를 물고 돌아가고... 혼합기 돌아가는 소리, 기계톱소리... 사위는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갑자기 지배인과 기사장의 머리 위에서 처녀의 랑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기사장동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빨간 머리수건을 쓴 기중기운전공처녀가 운전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반갑게 웃고 있었다.

《오, 화춘이 잘 있었나?...》

운전공처녀에게 손을 흔들어보이는 기사장의 얼굴은 때없이 따뜻했다.

《음-》

지배인의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소리비슷한 것이 흘러나왔다.

그는 기사장의 얼굴에서 진짜 일군의 모습을 본 듯해서였다.

기사장이 처녀에게 무슨 말인가 했는지 갑자기 기중기운전공처녀는 까르르 웃어댔다.

처녀를 바라보는 석철의 마음은 어느덧 유쾌해졌다.

건설부채를 실은 대형자동차 한대가 먼지를 피

워우리며 그들의 곁을 휩- 지나갔다.

살림집건설장 변두리를 지나 한참 걸어가던 그들은 나지막한 둔덕위에 올라섰다.

두사람은 공장전경이 한눈에 안겨오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공장의 전경은 그야말로 한쪽의 그림과도 같았다.

저물녘의 밝은 해빛에 가공직장건물의 질은 그들이 구내길위에 뚜렷이 새겨졌고 주강직장지붕 위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황록색 진한 연기는 푸른 하늘을 원경으로 삼아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았다. 여기에 쿵- 쿵- 둔중한 소음이 간단없이 들려오는 제단직장이며 방금 와닿은 듯한 화물열차가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소재하차장에 들어서서 그것까지 조화를 이루었다.

마주보이는 산뜻한 문화회관과 유치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공장정문을 지켜선 파수병인 듯 키높이 자란 운치좋은 백양나무들에서는 야무진 매미소리가 끝없이 들려왔다.

사무실에서 땀흘리며 일할 때는 공장구내나 공장마루이 이렇게 넓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다.

《넙기는 넓구만. 조립직장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지방산업공장보다 더 큰걸!》

석철은 눈아래 펼쳐진 화폭들에 아주 반한 것 같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물더니 그들이 진 소나무 밑으로 걸어가 풀밭에 물러앉고말았다. 창무 역시 곁에 와 나란히 앉으며 말을 받았다.

《저런 훌륭한 공장지대가 단 한해동안에 형성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한해 전만 해도 여긴 원시림이 짙 들어차구 짐승들이 육식거리던 무인지경이었지요. 골짜기 이름부터가 <범골>이었으니까요.》

손창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웃음을 짓더니 역시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별 신기한 이야기들이 다 생겨났지요. <구리스> 도적놈을 잡던 얘기만 해도 얼마나 희한한지 모릅니다. 처음 골짜기안엔 공장개발자들이 쓰고사는 천막 몇개가 생겨났지요. 그랬는데 밤마다 구리스가 없어지더라말입니다. 개발사들을 빼놓고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깊은 골짜기안에 정말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닙니까. 아무리 야외창고속에 깊숙이 치워봐도 그 놈의 구리스를 영악없이 웬놈이 훔쳐갔단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약이 오른건 불도젤운전수들이었지요. 그래 불도젤운전수 두 친구가 도적놈을 잡겠다고 《잠복보초》까지 썼지요. 그랬는데 그들은 도적놈의 정체까지 밝혀내면서도 그날밤 역시 구리스는 도적맞았더라말입니다. 훔쳐간건 사람이 아니라 꼬리가 두발이나 되는 큰 범이었다는거지요. 그

바람에 두 청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지요. 벌이란 명물이 구리스나 디젤유를 좋아한다는 말은 나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줄은 몰랐었지요.》

두사람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창무는 계속했다.

《그 다음날밤 천막들에서 곤히 자던 사람들은 난데없는 요란한 호랑이 울음소리에 모두들 잠을 깰지요. 알아본즉 최영준동무가 그놈의 벌을 잡았더라는말입니다. 영준이가 판 함정에 그놈의 벌이 걸려들고말았지요. 꼬리가 두발이라구 하던 말은 과장이었지요… 대짜긴 대잡니다. 우린 그 벌을 동물원에 보냈습니다.》

두사람은 또 껄껄 웃었다.

《그처럼 짐승들이 옥실거리던 원시림속에 사람들이 어떤 전변을 가져왔습니까.》

기사장은 감동깊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석철은 묵묵히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무거운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제 일어서지요.》

석철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따라 일어섰던 기사장은 앞장서서 둔덕길을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뒤로 지배인이 뒤따라 걸었다.

먼발치에서 한 로인이 걸어왔다. 로인의 어깨에는 길다란 낚시대가 휘적휘적 춤을 추고있었다. 한손에는 목직한 고기다래끼가 들려있었다. 거리가 가까와지고 인사말들이 오고간 다음 로인은 농립모를 벗어 바투 짝은 상고머리를 드러내며 자랑을 일삼았다.

《기사장어른, 안녕한가요. 남천강에 나갔더니 오늘은 고기가 어찌나 잘 무는지 한것에 이걸 잡았수다.》

정말 로인이 내미는 고기다래끼안에는 손바닥만한 붕어, 메사구, 쏘가리란놈이 아가미를 벌름거리며 푸들썩거렸다.

《저녁에 지배인어른이랑 집에 들리시우. 붕어회를 쳐놓을테니…》

로인은 인정깊은 목소리로 말하며 벗어든 농립모로 달아오른 얼굴을 부채질했다.

《아바이, 상겔이 손자녀석은 잘 자라는가요?》

기사장은 들고보던 고기다래끼를 로인에게 들려주며 물었다.

《잘 자라다뿐이겠나요. 벌써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우. 자 꼭 오시우.》

로인이 멀어진 다음 창무는 그에 대하여 지배인에게 설명해주었다.

《우리 조립직장에 있는 반장동무의 아버지지요. 권력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처음 와서는 집에서

놀면 뼈가 쭈신다고 매일이다싶이 공장 짓는 일을 도와줬지요.》

두사람이 걸어가는 한길옆에 아담한 4층교사의 중학교가 나타났다. 운동장둘레에 뽕뿌라나무가 방풍림처럼 서있고 학교뒤산에는 이깔나무숲이 구성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는 런닝그를 입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학생들이 축구뽕 하나를 놓고 서로 달라붙어 빼앗으려고 승강이질을 했다. 한 학생이 풀문에 차던진 뽕이 빗맞아 울타리밖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뽕을 잡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오던 학생이 기사장을 알아보고 주춤거리며 꾸벅 인사를 했다.

《너 희철이로구나! 어머니 앓지 않느냐?》

《일없어요. 인차 공장에 출근하겠대요.》

학생은 얼굴에 내뿜은 땀을 훔치고 벌쭉 웃었다.

《그래, 몸 잘 돌보라고 해라.》

기사장은 길가에 떨어진 뽕을 주어 학생한테 던져주며 말했다.

어느덧 그들은 단층마을쪽으로 걸어갔다.

(기사장이 사람들속에 깊이 침투했는걸.)

저도모르는사이 석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단층마을에 들어섰을 때였다.

길바닥에 우뚝 솟은 돌을 뿔고있던 열댓 나보이는 중학교 학생이 일어섰다.

《지배인아저씨, 안녕하세요.》

학생의 돌발적인 인사에 지배인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보아야 이 학생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래, 네가 날 어떻게 아느냐?》

석철은 허리를 약간 굽히고 학생앞에 다가서며 물었다.

《난 우리 공장 아저씨들은 다 말아요.》

학생은 여전히 지배인을 뻔히 올려다보며 히죽이 웃고있었다.

《그래, 길에서 뭘하니?》

《돌을 치우고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돌에 채여서 넘어질가봐 그래요.》

학생은 모자를 쓰더니 발길로 뽕족하니 돌아난 돌을 찼다.

《참 용쿠나, 그래 넌 누구지?》

그 말에 학생은 대신 대답해달라는듯 손창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창무가 나지막한 소리로 섬겼다.

《이 애 이름이 최영민이지요.》

순간 석철은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소리쳤다.

《최영민이, 그러니까 네가 최영준동무의 동생이구나.》

사실 영민이는 영준이를 신동히도 닮고있었다. 번듯한 이마며, 끝은 코마루며 부드럽게 번뜩이는 눈동자며...

《우린 지금 바로 너희 집에 찾아가는길이다.》

석철은 어망결에 또 큰소리를 쳤다.

그 말에 영민이는 한번 경충 뛰어오르기까지 했다.

《정말이나요? 기사장아저씨 늘 우리 집에 오군 하지만 지배인아저씨는 한번도 온적이 없거든요.》

《정말 아니구. 어시 앞장서려무나. 그래 너의 집은 어디냐?》

《저기에요. 비둘기장이 있는 집이 보이지요?》

영민이는 오בות 단층집을 가리켰다. 세멘기와를 이은 지붕우에 안경처럼 두 구멍이 난 비둘기장이 보였다.

비둘기장 주위에 여러마리의 채빛비둘기가 오구구 모여 모이를 쫓기도 하고 푸른 하늘로 날아가기도 했다.

《그럼 가지자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할거야요. 어머니 오늘 집에 계세요.》

이런 다음 앞장에 서서 얼마쯤 걸어가던 영민은 먼저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가서 누가 온다는것을 어머니한테 알리려는 모양이었다.

영민이가 대문안으로 사라지자 뒤미처 늙수그레 한 녀인이 나타났다. 흰 치마저고리에 흰 앞치마를 두른 녀인이었다. 차츰 거리가 가까와지자 석철지배인은 저으기 놀랐다. 다가오는 녀인인즉 다름아닌 구내식당 책임자였던것이다.

(그럼 책임자어머니가 최영준동무의 어머니였단말인가?)

석철은 확인이나 하듯 창무를 돌아보았다. 순간 창무 역시 석철을 마주보았는데 그 눈매는 이렇게 질책하고있는듯싶었다.

(물론이지요. 지배인동무는 그것도 모르고있었던가요? 그토록 지배인동무를 살뜰하게 보살피주는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는것도 모르고있었던가요?)

그제서야 석철은 자기가 아직 이 책임자어머니의 이름조차 모르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얼굴이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화끈 달아올랐다.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뛰어들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뜻밖에 나타난 지배인을 보자 진정 반가워서 어쩔줄을 몰라한다.

《정말 고맙수. 바쁠텐데 이렇게 와주어서...》

어머니의 이러한 말이 석철을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대문안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두사람을 방안으로 떠밀었다. 방안은 살뜰한 손길이 간 흔적이 어디에나 엿보였다. 꽃문양의 술이 달린 이

불보로 가리워진 이불장이며 반들반들 윤기를 내뿜는 재봉기며 장관바닥은 꼭 거울처럼 빛을 뿜었다.

《영준동무는 왜 안보입니까?》

석철은 이야기를 건네야겠다는 의무감에서 우선 이렇게 말머리를 뗐다. 기실 집에 있을줄로만 알았던 영준이의 행처가 궁금하기도 했던것이다.

《아침부터 공장에 나갔다우. 도면을 완성하겠나나우? 성공이나 하겠는지.》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얼굴을 들며 대답했다.

《참, 머느리를 맞아들인다지요?》

석철은 다른 화제를 끌어당겼다.

《그렇수, 나두 이제는 머느리를 삼는가보우.》

《그러면 아무래도 집이 좁겠는데요.》

그 말에 어머니는 꺾쩍 뛰었다.

《원, 그런 말씀일랑 하지 마슈... 그저 지금 젊은이들은 좋은집 타령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준일 단단히 단속하긴 하지만 그 철없는게 어데 가서 무슨 주책없는 소릴 벌려놓지 않는지 근심스럽지유.》

《더 좋은 집을 요구해야지요. 그건 우리 로동자들의 권리이니 까요.》

《그렇더라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되우-》

바로 그때였다. 그사이 어데 갔겠는지 영민이가 혈떡거리며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지금 형이 광차창의고안한거 광광 돌아간대요.》

《뭘, 너 그걸 어디서 들었니?》

석철지배인과 창무는 동시에 물었다.

《공장에 갔던 창길이가 누나가 그래요.》

영민이는 장한 소식을 가져왔다는듯 우쭐해져서 대답했다.

《지배인동무, 내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손창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철지배인은 흥분하였다.

그에게는 지금 영준이의 창안지구가 불꽃을 튀기며 돌아가는 모습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장 공장으로 달려가고싶다. 그러나 석철은 그 모든 흥분을 짓누르며 손창무를 기다렸다.

이윽하여 흥분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손창무가 나타났다.

《지배인동무, 공장에 갑시다, 성공입니다... 지배인동무가 공정마을을 돌아본다는 소식이 전해져 부쩍 사기를 돋군답니다.》

영준 어머니는 저녁을 들고 가라고 석철지배인과 손창무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안하게 땀다고 거둬 사과를 하고 영준이네 집을 나섰다. 두사람은 묵묵히 걸었다. 옆에서 걸던 기사장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아마 상견이할아버지가 우릴 무척 기다렸을 겁니다. 안온다구 우릴 욕도 했을거구요.》

《……》

그러나 김석철은 느닷없이 차분한 생각들로 가슴이 하나 가득 메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좋은 영준이네 가정인가. 공장앞에 가로막아선 어려운 모퉁이를 헤치려고 광차바퀴가공지구를 완성한 영준이, 유치원아이들이 넘어질까봐 거리를 깨끗이 거두는 영민이, 아직 식구를 데려오지 못한 지배인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일에 전심할수 있도록 제살붙이인양 살살이 보살펴주는 어머니… 그리고 공장사람들의 얼굴들이 지배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러자 자책의 감정이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몰랐던가.)

생산때문에 영준이와 함께 패운 그 밤과 공장에서 보낸 년달보다도 마을에서 보낸 이 하루가 더 많은것을 느끼게 했고 볼수 있게 하였다. 생산의 주인은 수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라고…

이 순간 석철은 불쾌하게만 생각되던 기사장이 한없이 돋보이기까지 했다. 기사장이야말로 공장의 매 노동자들뿐만아니라 매 가정과도 하나로 융합되어있지 않는가. 자기 석철이같으면 1년이 아니라 몇해가 지난다 하여도 창무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자신은 도저히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자기자신은 이 손창무라는 인간앞에서는 하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석철은 주택건설로력까지 떼서 생산에 돌리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협애하고 편협한 사람이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지배인이라고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깍듯이 인사를 했으며 지시만 내리면 《알았습니다!》라는 단마디의 말과 함께 또다시 팔소매를 걸어붙이곤했다.

정말이지 생산과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책임을 질줄 아는 그때라야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나갈수 있고 《지배인》이라는 이 세글자로 표시되는 책임적인 이름도 온전히 향유할 자격이 있는게 아닐가? 그렇다. 지배인은 《관직》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볼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인들의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자기는 아직 지배인으로서의 첫자육도 떼지 못한것이다.

《기사장동무, 아직 우리 가족들은 이사를 오지 않았으니 내가 받은 집을 영준동무한테 주면 어

떻겠소?》

석철지배인은 불쑥 아련 말을 꺼냈다.

그러자 창무는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지배인동무도 인차 가족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구 영준동무가 지배인동무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겁니다.》

기사장은 조용히 대답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두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음을 옮기기만 하였다.

이윽고 손창무가 무엇인가를 결심한듯 머리를 번쩍 쳐들며 석철을 바라보았다.

《지배인동무, 영준동무네 단층집과 우리 집과 바꾸어줍시다. 우리야 식구가 적은데 방이 세칸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되요…》

석철은 손창무의 말을 대번에 잘라버렸다.

《지배인동무,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영준동무네를 그리로 옮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밤낮 장기쫓처럼 이사만 시키겠소. 내가 받은 집이 새집이니까 아예 그리로 이사시킵시다.》

석철은 완고하게 고집했다. 손창무도 좀처럼 양보하려들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 옥신각신하며 걸었다. 그런 《싸움》이야 백번 하면 어떻고 천번한들 어떠랴. 공장노동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인데야…

그들은 종시 락착을 짓지 못한채 공장을 향해 걸었다.

《문제는 7호동아파트를 하루빨리 건설하는 일 이구만.》

석철은 혼자소리처럼 말하며 주택건설로력까지 떼서 생산에 돌리려 했던 자신을 생각해보았다.

그는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공장과 주택건설장으로 나뉘여지는 갈림길이 나쳤다.

석철은 먼저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지배인이 마을을 돌아본다는 소식을 듣고 부쩍 사기를 돋구는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사장동무, 난 아파트건설장을 거쳐서 공장에 가겠소.》

《주택건설장예요? 그럼 저도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을 나누고난 두사람은 벌써 7호동아파트 건설장으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밤이건만 거기서는 아직도 용접광의 불빛이 튀어나고 기증기도 돌아가고있었다. 용접광의 불빛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끝나지 않은 인계

윤승훈

요즈음 소재직장에서는 단조공 차의협아바이가 교관으로 승급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지금까지는 한개의 작업반에서 조장으로 일해왔지만 이제는 지배인을 도와 공장의 생산전반을 돌보는 고문격이 되었으므로 그의 사업범위가 턱없이 넓어졌다는 것이었다.

이 《흥미있는》 소식을 듣고 공장종업원들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그도 그럴것이 차의협아바이라면 《특급단조공》으로 첫손가락에 꼽힌다. (그래서 종업원회의때마다 주석단에 자주 올랐다.)

몇해전 그의 60돐이 되는날에 노동과의 한 일군이 그를 찾아가서 해놓은 일도 많고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집에서 손자애나 보는것이 어떤가고 한마디 비쳤다가 두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것은 공장마를 아낙네들까지 다 알고있다.

또 한번은 혁신자축하모임때 주석단에 점잖게 앉아있던 아바이가 단조장에서 들려오는 밤교대 함마소리를 듣고 후닥닥 일어나 《퇴장》하는통에 모임참가자들을 아연케 만든적도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함마소리에 이상한 잡음이 섞여있다는것을 가려듣고 그길로 작업장으로 달려가 기대를 재정보시켰다는 것이다.

여하튼 그러루한 일화들을 많이 남기여 《유명》해진 아바이였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아바이에게는 《잔소리군》이라는 합당치 못한 별명이 또 하나 붙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청년단조공 금호가 그런 별명을 붙였다고도 하고 보조공 철수가 지어냈다고도 했다.

그렇만도 했다.

사실 아닌게아니라 60돐생일날 노동과 일군이 《쫓아》낸 이후 아바이는 자기의 유력한 후보인 금호를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니, 공기함마가 《재채기》를 하면 무엇이 잘못된것이라하니, 소재가 빨강게 달면 재보나마나 650도는 될것이라하니... 아무튼 잔소리를 많이 하였다.

눈치 빠른 금호가 그것이 앞으로 있게 될 인계를 위한 준비단계라는것을 모를리 없었다.

누가 먼저 꺼낸 말인지는 몰라도 차아바이가 년로보장을 받고 곧 집으로 들어가게 될것이라는것, 자기의 후보로 금호를 찍어놓았는데 아직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인계를 못하고있다는 것이었

다.

그래서 금호는 아바이로 하여금 마음놓고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잔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의 경험과 기술을 부지런히 배워나갔다. 이렇게 몇년이 지나갔다.

가슴이 가로 퍼지고 잔등이 바위처럼 넘적해진 금호도 이제는 한다하는 단조공이 되었고 차아바이와 어깨를 겨루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근일에 와서 아바이는 흡족한 기분으로 금호의 작업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때가 많았다. 이것은 자기의 후임이 별소색이 없을 때 짓군하는 아바이의 고유한 표정이였다.

그것으로 보아 금호는 이제나저제나 인계사업이 곧 있으리라는것을 예감하고는 있었지만 차아바이가 정작 자기의 결을 떠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보니 그 누구보다 서운함을 금할수 없었다.

(아바이가 교관이 된다니 기쁘기는 한데...)

그러던 어느날, 하루일이 끝났을 때였다. 금호가 허전한 마음을 안고 스적스적 작업장의 뒤겨두매를 하고있는데 초급당위원회에 올라갔던 차아바이가 곁으로 다가왔다.

머리를 바투 깎아 취올리고 코수염까지 말끔하게 밀어버리니 10년은 더 젊어보이고 패기가 있어보였다.

《아바이, 이제 정말 단조일을 그만둘 작정입니까?》

《그만두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소문이 자자한데요 뭐! 교관일을 보시게 됐구요...》

이 말을 듣자 차아바이는 껄껄 웃었다.

호기있게 코수염을 쓰다듬어보려고 했으나 코수염이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교관이 뭐 량반이겠나. 일을 더 잘하라는거지. 그래서 내 방금 사무실이라구 차려준걸 아예 봉인해놓구 오는길이니.》

아바이는 《용광로》를 한대 꺼내여 벌겍게 단쇠불이에 대고 불을 붙여물더니 맛있게 들이빨았다.

《다만 내 걱정은 당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내겠는지... 그것이 걱정이니.》

그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

수하고 알뜰히 애호관리하며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잠시후에 아버이는 금호를 자기가 쓰던 공구함 앞으로 데리고 갔다.

공구함은 알뜰알뜰하게 윤기가 났다.

《금호, 진짜배기단조공이 되라구... 내 멀리 가는것은 아니지만 절차야 지켜야지. 자, 인계목록이네.》

이리하여 로단조공은 자기가 쓰던 여러가지 기공구들을 하나하나 짧은 단조공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외와스가 둘에 내와스가 하나, 이건 10메터 짜리 권척이구 이건 망치, 여기 기름종이에 싸건 나사들개...소중히 다루라구. 이 나사들개는 내가 20년째 써오던거네...》

공장과 함께 일생을 산 오랜 단조공의 손때 묻은 기공구들을 차례로 받아서 자기의 공구함에 차곡차곡 넣는 금호의 가슴은 왜 그런지 불시에 몽클해왔다.

정말이지 얼마나 그가 아끼고 사랑하며 애용하던 공구들인가.

언제인가 금호가 접이자를 다 쓴 다음 철판우에 던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이는 버럭 소리 지르며 어디서 그따위 못된것을 배웠느냐고 불호령을 친 일도 있었다.

진정 공구만이 아닌 아버이의 뜨거운 마음까지 인계받는듯하여 금호의 손끝이 떨리기까지 하였다.

시간이 흘러 기공구인계가 끝나자 차아버이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하나 꺼내었다.

《이것도 받게. 공기함마의 경력서야. 기대의 대보수를 언제 했으며 어떤 부속은 언제 갈아맞추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네.》

금호는 그 수첩도 넘겨받았다.

《물질적인계》(이것도 아버이의 표현이었다)를 끝낸 아버이는 《사상적인계》를 시작했다.

《내 언제인가도 말했지만 단조공의 무기가 무어겠나. 공기함마일세. 자기의 기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조공이 아닐세. 참된 단조공은 멀리서 공기함마의 썩-쿵 소리를 듣고도 기대의 작동상태를 알아내야 하네. 알겠나?》

금호는 듣기만 했다.

《사상적인계》는 《물질적인계》보다 주의사항이 더 많았고 복잡했다.

그중에서도 아버이가 거듭 강조한것은 보수주의를 엄격히 지키는것이였다.

대보수할 때에는 제때에 대보수를 하고 중보수할 때에는 제때에 중보수를 해야 한다는것, 자검가수와 보수의 정상화-이것이 생산정상화의 중요

고리라느것, 바로 여기에 혁신과 비약의 비결이 있다는것 등등이였다.

《오늘은 이만하세.》

드디어 인계가 끝났다.

아버이는 감회깊은 눈길로 작업장이며 천정, 유리창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자, 일을 잘하라구. 난 가겠네.》

금호는 아버이의 두툼한 손을 맞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다.

10여년전에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단조공으로 배치되어왔을 때 그 누구보다 반가와하며 손을 덥석 잡아주던 아버이였다.

이번에는 단조장을 떠나가는 아버이와 두번째 악수를 하게 되였다.

오래동안 쇠를 다루어온 아버이의 큼직한 손은 아직도 집게처럼 아귀가 섰다.

《아버이, 몸을 돌보시면서 일하세요. 그리고 건강해서 오래 앉아계십시오.》

왜 그런지 금호의 눈이 불깃해졌다.

《자네, 체네들처럼 왜 그러나?》

금호의 마지막인사가 못마땅했던지 아버이는 뒤를 돌아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는 성난 사람처럼 씨엉씨엉 걸어갔다.

기대의 주인이 된 금호의 책임은 무거워졌다. 그는 다음날부터 더 일찌기 출근했다.

교관으로 간 아버이를 생각해서라도 생산계획을 본때있게 밀어제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다.

아버이대신 조장임무를 수행하게 된 금호가 아버이가 섰던 자리에 들어가고 금호가 섰던 위치에는 보조공이었던 철수가 들어섰다. 합마운전공 금실이도 파란색 머리수건을 꼭 죄여맸다.

쌍쌍한 청년들로 한조가 무어졌다.

단조일이란 얼굴과 눈표정, 몸짓을 보고도 서로 호흡을 맞추출 알아야 한다.

금호는 자신이 있었다. 작업지령서를 보니 승강기후란지 소재생산이였는데 일손을 다그치면 150%는 넉넉히 할수 있을것 같았다. 작업은 서둘러 시작되였다.

조장인 금호의 채촉을 받은 장입공이 벌겍게 단 쇠덩이를 운반해왔다.

《금실이, 한바탕 조져보자구.》

금호가 호기있게 고개를 들고 머리를 끄떡거렸다. 공기함마를 들라는 소리였다.

그들이 모루우에 쇠덩이를 올려놓고 막 불꽃을 튀기려는데 어디서나 《작업중지》하는 석싹한 소리가 날아들었다.

와플 놀라 돌아보니 뜻밖에도 차아버이가 문가에 집게다리를 하고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있었다.

《쇠가 아직 달지 않았어. 이런것을 짓조기면

함마가 전딜상실은가, 엉?)

노기가 덩딩한 아바이는 소재를 도로 가열로에 집어넣으라고 욕박았다.

장입공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금호와 아바이의 얼굴을 번갈아보다가 주저주저하며 쇠덩이를 불길속에 던져넣으며 씨근덕거렸다.

《누가 조장인지 모르겠군.》

그 말에 철수가 맞장구치며 두덜거렸다.

《자 이거, 오늘부터 잔소리를 안듣는줄 알았는데... 아바인 교관이 됐으면 사무실에나 앉아있지 어긴 왜 자꾸 옵니까?》

이 말은 대변에 아바이의 왕북같은 눈섭을 꿈틀거리게 했다.

《뭐가 어찌구 어찌 이놈! 네너석이 신발을 똑바로 신을 때까지 내 여기서 매일 출근할테다.》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바이의 출근길은 여전했다.

어떤 날은 청년들보다 더 일찍기 출근하여 작업장에 물도 뿌리고 구내길도 쓸었다. 소재도 바로 놓아주었다.

철수는 교관아바이가 이신작직한다고 했고 장입공청년은 그것이 긍정에 의한 감화교양이라고 했다.

금호는 미안하여 이제는 잘할테니 좀 쉬라고 간청도 해보고 《반발》도 해보았다.

했으나 아바이는 막무가내였다.

《여보게, 내 인계사업을 완전히 끝내면 그때엔 오라구 해도 오지 않겠네.》

《인계라니요? 그럼 인계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말이에요?》

금호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내 언제 끝났다고 했나? <사상적인 인계>는 아직 멀었어. 자네들의 머리속에 있는 그 <공백>을 메꾸기전에는...》

《예?! <공백>은 또 뭐예요?》

《그건 자네들이 생각해내게.》

그렇다. 공백이 있었다.

바로 그《공백》을 보았기때문에 아바이는 것처럼 단조장을 떠나지 못했고 바로 그《공백》을 메꾸어주기 위하여 이처럼 아글타글 애쓰는것이 아닐가.

(그럼 그《공백》이 무얼가?)

금호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훑쳐보고난 아바이는 《용광로》를 한대 꺼내어 벌겋게 단 쇠불이에 가져다댔다.

성냥이나 라이타보다도 쇠물에 지저야 담배맛이 한결 구수하다는 아바이었다.

《자네도 한대 피우게나, 자-》

금호가 담배곽을 밀어놓으며 필쩍 휘었다.

《전 아직 담배를 안...》

아바이는 괜한 소리라는듯 눈가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흐흐흐... 너석, 내 다 아는데... 하긴 담배를 안피우는것이 좋아... 그점에서는 내가 자네들한테서 모범을 본받을만하단말이야. 허나 임자에게도 결함이 있어...》

아바이는 절반나마 타들어간 담배를 물부리에 꽃았다. 보니 물부리가 짙막해졌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생당썩으로 만든 물부리의 길이가 한뼘이나 되어 공장에서 제일 긴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긴 담배물부리는 봉건냄새가 날뿐만아니라 오늘의 전투적인 시대에도 어울리지 않아 아깝지만(그 물부리는 그의 맏아들이 아버지의 60돛생일때에 선사한것이였다.) 간편하게 잘라버렸다는것이였다.

아바이의 입귀에서 구수한 담배연기가 푸실푸실 새어나왔다.

그럴때 보면 근면한 농장원같기도 했다.

《예로부터 실농군은 땅을 사랑했고 벌목공들은 숲을 사랑했네.》

땅은 말이 없지만 농군의 수고를 알아주거던. 이를테면 공들인것만큼 수확이 나온다 그 말일세. 그런즉 진짜배기 단조공은...》

금호는 지금 아바이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그《공백》을 녀두에 두고있다는것을 직감했다.

《진짜배기》라는 구수한 말을 즐겨 쓰지만 아바이의 마지막말은 언제나 맵찔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이였다.

《사랑할줄 알아야 하네. 쇠를 다루는 사나이들일수록 더욱 뜨겁게, 더욱 알뜰하게 자기의 기대를 사랑할줄 알아야 하네.》

혁신자의 표정은 표면에 나타나는 그 몇프로라는 작업실적에 있는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비를 얼마나 아끼는가 하는 그 진정에 있다는것이 아바이의 주장이였다.

차아바이는 자기의 오랜 로동생활을 통하여 얻어낸 귀중한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 해주었다.

아바이의 견해에 의하면 기대공은 자기의 기대와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을줄 알아야 한다.

기대의 동음에서 즐거운 노래소리를 들을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배기 기대공이 아니다. 기대에도《표정》이 있고《감정》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는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이며 벗이라는것이였다.

아바이 말은 투박했으나 가식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진실해보이고 무게가 있게 들렸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갔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던 차아바이가 그날은 저녁이 다 되어 일이 끝난 다음에야 나타났다.

《몇프로 했나?》 아바이는 무엇이냐 직통배기로 물어보기를 잘했다.

빙빙 에둘러 말하거나 오물썈물하는것을 제일 싫어했다. 그런 사람은 쇠를 다루는 사나이가 아니라는것이였다.

《110% 했습니다.》

금호가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면구한 어조로 대답했다.

《좀 더 다그치게... 총화는 안지었겠지? 조장어서 작업총화를 지으라구.》

그날도 아바이는 휴계실 한쪽 귀퉁이에 의자를 당겨놓고 앉아서 작업총화에 참가했다.

금호는 아바이의 눈치를 결눈질해보며 두서없이 이것저것 곁들여 말꼬리를 질질 끌었다. 아바이가 미간을 찌프리었다.

《간단명료하게 하라구...》

얼마후에 작업총화를 끝내고 금호가 일어서려고 하였다.

《가만, 앉게》 젊은이들을 놀려왔던 아바이가 금호더러 가까이 와앉으라고 눈짓했다.

《조장, 래일 작업계획이 무언가?》

아바이의 손탁에서 기능공으로 성장했고 조장으로 자라난 금호는 공손히 작업계획서를 내밀었다.

돈보기를 코등에 걸고 굵직한 담배물부리로 글줄을 꼭꼭 눌러가며 한자한자 뜯어보던 아바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닐세, 이진 고치라구, 래일이 바로 중보수주기가 되는 날이야, 자검자수를 하고 불량개소를 퇴치해야지...》

철수포레 신입공들이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다가는 무엇이 우스운지 키드득거리기도 했다.

《너희들이 날 손님으로 보는 모양인데 내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 아직 인계도 안끝났지만...》

아바이는 자기의 사업수첩을 뒤적거리더니 공기합마에 색칠이 두군데나 벗겨진데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래일사업에 포함시키라고 일렀다.

《알겠습니다.》

금호는 작업일지에 아바이의 의견을 보충했다.

어느덧 단조장 휴계실에 저녁노을이 붉게 탔다. 아름다운 석양녘이였다.

《오늘은 자네들과 함께 퇴근길을 걷고싶군그래. 가세.》

오래간만에 그들은 아바이와 함께 무진천언덕길에 올라섰다.

푸르른 잔디가 주단처럼 깔린 밋밋한 언덕에는

빨강고 노란 들꽃들이 피어있었다. 늙으면 감각이 무디어진다고 하지만 결코 그런것도 아니였다. 아바이에게도 다정다감한데가 있었다. 꽃송이를 뜯어 향기를 맡아보는 아바이의 얼굴에 천진한 미소가 어리고 동요시절의 표정이 잔물결쳤다.

《참 좋은 저녁이군! 금호, 자네 이 언덕의 흙을 한줌 쥐여본적 있나?》

《뭘 별로...》

《그렇테지. 난 부드러운 이 흙을 자주 쥐여본다네.》

아바이는 허리를 굽혀 거무스레한 흙을 한웅큼 쥐여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에 끌고루 퍼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에 무엇이 있나?》

청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여들었다.

《모래알, 부식토, 풀뿌리...》

철수가 흙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것밖엔 안보이나? 난 이 축축한 물기가 수분으로만 생각되지 않네.》

《아니, 그럼...》

《여기, 이 언덕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깃들어있네. 암 잊어서는 안되지...》

흙덩어리들이 부서져 손가락잡새로 부실부실 흘러내렸다.

왜 그런지 아바이의 손끝이 떨리는것 같았다. 청년들은 놀란 눈빛으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1950년 10월, 일시적후퇴시기의 준엄한 그날에 여기에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사나운 이리떼처럼 기여들었다.

창조의 노래소리 드높던 공장은 숨을 죽였고 직장들은 텅 비어있었다.

아무리 눈깔을 까뒤집고 돌아쳐봐야 기대 하나, 자재 한조박 찾아볼수 없었다. 악이 오른 원쑈놈들은 노동자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내어 설비들을 파묻은곳을 대라고 모진 고문을 들이대었다.

체포된 사람들중에는 마지막까지 설비소개사업을 끝내고 뒤늦게야 후퇴의 길에 올랐던 권동무라는 창의고안명수도 있었다. 변절자를 통하여 그가 설비를 감취둔곳을 알고있다는 내막을 눈치챈 놈들은 그에게 별의별 악형을 다하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권동무의 호령은 추상같았다.

《이 개놈들아, 그 기계가 어떤것인줄 아는가?》

우리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의 귀중한 재부들이다. 그것을 네놈들에게 내어줄 노동자는 여기에 한사람도 없다.》

성이 똑같이 오른 놈들은 애국자들을 무진천기슭에 끌어내었다.

《자, 목숨을 내놓겠는가, 설비들을 내놓겠는가?》

격철을 떨구는 소리가 들렸다.

놈들의 마지막 요구에 로동자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의 합성으로 대답했다. 총성이 울렸다. 《창의고안명수》로 발명가로 자자하던 권동무는 쓰러졌다가 다시 간신히 일어서서 놈들에게 억지로 끌려나왔던 마을사람들에게 피타게 웨쳤다.

《한대의 기대도 놈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총소리가 또 울렸다. 붉은 피가 언덕을 적시었다.

《창의고안명수》는 여러발의 총탄을 맞고도 거인 같은 발걸음으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걸어서 황철나무결로 다가가더니 언덕을 품에 끌어안고 쓰러졌다.

바로 그 황철나무밑에는 공기함마가 파묻혀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공장과 설비들을 지켜내고 우리 결을 떠나갔네. 그 <창의고안명수>가 누구인지 아나?》

금호가 설레이는 황철나무를 끌어안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아바이, 그만하세요. 흐흐-흑! ... 나두, 나두 안단말이에요!...》

붉은 노을이 언덕에 피빛으로 뒹다.

모두 말없이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그때부터 난 이 땅우의 모든것을 무심히 보지 않았네. 결코 무심히 볼수 없었지. 구내길에 덩구는 하나의 작은 나사못에도 피땀이 스며있단말이네, 피땀이!...》

아바이의 갈린 목소리를 들으며 금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철수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금호! 지금 우리가 어떤 땅에서 어떤 기대를 잡고 무엇을 위해 일하나?》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심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네. 안돼!》

금호는 머리를 수긋하고 아바이와 나란히 언덕길을 끝없이 걸어갔다.

바람에 옷자락이 날렸다.

《아바이!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전 그저 오늘의 행복에 취해서... 행복밖에 모르다니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걸어온 그 길까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저녁을 잊지 않겠습니다...》

금호가 흐느끼는것을 처음 본 철수도 곁따라고개를 푹 떨구었다.

《알았으면 됐네. 금호!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관리, 설비관리를 더 잘하자구.》

《네.》

금호가 대답하기전에 철수가 먼저 대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시간은 참으로 좋은 저녁이었다.

XXX

산악같은 공기함마에 붉은별이 하나, 둘...늘어갔다.

목요일설비점검의 날에 공기함마가 《모범기대》기발을 수여받았다. 그때까지도 차아바이는 아침출근시간마다 꼭꼭 나타나곤하였다.

그런데 어느날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던 아바이가 이날엔 나타나지 않았다.

금호와 철수 등 단조공들이 함마를 깨끗이 닦고 창유리를 거울처럼 닦을 때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야! 아바이가 나오지 않았구나!》

철수가 서운한듯 어린애처럼 말했다.

《차아바이가 이제야 마음을 놓은게지?》

청년단조공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제야 교관의 검열에서 합격된셈이군!》

청년단조공들은 서로들 유쾌히 웃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단조반을 《졸업》시킨 아바이가 승강기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한다는것이였다. 그러던 하루는 아바이가 불쑥 나타났다.

《잘들 있었나? 오늘도 인계를 계속하러 왔네.》

《...?!》

금호와 철수는 놀라운듯 의아한 눈으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아바이는 금호와 철수며 젊은이들의 손을 이끌고 다시 기대결으로 갔다.

《이제는 공기함마를 자네들에게 맡겨도 마음을 놓을것 같네.》

그리고는 말없이 공기함마를 거울진 손으로 더듬어 쓸어내렸다.

한생을 공기함마와 함께 살아온 아바이였다. 한해한해 먹는 나이는 속일수 없는것이여서 이제는 아바이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렸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많았던 단조공생활을 총화짓는 이 시각, 어찌 감회인들 깊지 않으랴!

금호도 철수도 속이 몽클해짐을 느꼈다. 작업반 명단에서 이름은 지웠으나 로세대의 자각을 안고 귀중한것을 인계해주는 뜻깊은 나날이었다.

한참후에 아바이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인계를 완전히 끝냈다고는 생각지 말게, 내가 여기 있는 한 인계는 끝나지 않을테니까!》

아바이는 단조장을 떠나갔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로당원의 진정과 고귀한것을 남겨놓고!...

그러나 아바이는 단조장에 또 나타날것이였다.

변함없는 마음을 두고

전병구

사람들의 운동은 심장의 박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으며 그 열정 또한 심장의 뜨거움과 떼여놓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원리적인 의미를 두고 생각한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계만 해당되는것은 아니리라.

나는 어느 한 화력발전소의 수리공아바이를 만나 이에 대한 의미심중한 뜻을 새삼스러이 강하게 느낀 일이 있었다.

내가 그곳을 찾아간 때는 한낮무렵이었다. 조국의 숨결처럼 푸른 하늘가에 흰연기를 뿜어올리는 발전소의 장엄한 그 위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었다. 준비하게 늘어선 옥외변전소의 자동개폐기들은 설비마다 만부하를 말해주는듯 무겁게 닫혀있었다. 나는 전기타빈보수직장에서 머리회숙한 한 아바이를 만났다.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었더니 반색을 하며 《예방검진》중이라고 하였다.

《예방검진이라니요?》

나의 의아쩍은 물음에 그는

《허 이거 안됐습니다. 실은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수리공들은 조선로동당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모두 발전기의 의사가 된셈이지요. 말하자면 심장을 검진한다고 할가...》

너털웃음까지 지어보이며 차근차근 일러주는 아바이 말을 듣고서야 나는 《예방검진》이란 말을 푹푹히 깨달을수 있었으며 수리공들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발전기를 사전에 예방보수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관리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똑똑한 관리규정을 만들어놓고 늘 설비를 검열하며 정비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으로 새겨안은 이 아바이를 비롯한 전기타빈보수직장 수리공들은 조선로동당 제6기 제3차전원회의이후 매개 설

비마다 사전에 보수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놓고 일단 보수작업이 진행되면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짧은 기일에 해제끼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타빈 보수에서 진동을 최대한으로 떨구는 등 보수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설비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인것이였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의사들의 예비검진과도 같이 발전기에 대한 예비검진을 하는것이다.

이들이 말하고있는 심장에 대한 예비검진!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이였다.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다루고있는 발전기를 사람의 심장과도 같이 대하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생명을 잃는것과 같이 발전소의 발전기가 멎으면 공장, 기업소들이 움직이지 못할것이니 발전기를 두고 심장이라고 하는 이 아바이의 말은 얼마나 지당한가.

발전기옆에 다가선 아바이는 도수높은 안경을 끼고 두툼한 수첩을 펼치더니 한참이나 들여다보고있는것이였다.

나도 흥미를 가지고 아바이의 수첩장을 보고있었다. 그것은 수리공들이 귀중히 여기는 《설비경력서》였다.

내가 그 수첩에 관심을 두고있다는것을 안 그는 그 경력서를 나에게 보라고 넘겨주면서 《뭘 별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병력서와 같은 것이지요.》라고 하였다.

한장한장 펼쳐보니 정말 사람의 병력서와 같았다. 예비점검날자도 보수날자도 그리고 누가 몇시에 어느 개소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보수했다는 등 구체적인것이 다 적혀있었다.

어느 한장을 펼치니 거기에는 9호발전기타빈을 보수하던 때의 일이 적혀있었다. 그날 그 경력서를 보던 아바이의 생각은 깊어졌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소의 힘으로는 곤난하다》는 글만이 적혀있을뿐이였다. 이것을 놓고 타빈상태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기에는 힘들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총진군운동을 벌리고있는 공장기업소의 생산은

일시 멈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 아닌가. 우리 힘과 우리 기술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힘을 믿고 보수를 하겠는가.

아바이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그들은 타빈을 해체하고 보수대책을 토의하였다. 경험 많은 수리공들과 기술일꾼들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던 끝에 타빈축 메달이 다 나갔음을 확정하였다.

진단을 내렸으나 메달을 재생한다는 것은 수월치 않았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전문공장에 의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원래 발전기 타빈축 메달계통에서 연구를 계속해오던 이 아바이는 자체로 메달을 가공할 결심을 가지고 일에 달라붙었다. 며칠밤을 지새우면서 현장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은 그는 드디어 메달을 재생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40일이 훨씬 넘어야 보수할 수 있다던 9호타빈 보수는 20일 동안에 훌륭하게 진행되어 또다시 십장의 맥박은 뛰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9호타빈 보수작업이 있은 후 7호타빈 보수를 진행하던 3월 어느 날에도 그는 타빈축 균형잡이 지구를 창안 제작하여 리용함으로써 타빈의 진동을 최대한으로 떨구었다. 그는 벌써 10호타빈 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구며 기자재를 준비하고 보수날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60나이에 이른 아바이건만 발전기를 자기 한 몸처럼 생각하면서 한시도 발전기결을 떠나지 않는 아바이, 아바이의 가슴속에는 그 무엇이 깃들어 있기에 이렇듯 로쇠를 모르는 청춘의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일제놈들의 모진 채찍 밑에서 11살 때부터 장진강 발전소에서 잔뼈가 굵어온 아바이, 아바이는 오늘도 해방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 인간의 참된 삶과 존엄을 안겨주시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과 그 은덕에 한평생을 두고 보답해도 다 보답할 수 있겠는가.

전력은 공업의 동력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오기에 오직 한평생을 공업의 심장을 지켜 자기 한 몸숨 바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렇게도 악착하게 덤벼드는 미제원썹놈들의 폭격속에서도 발전기와 함께 한 몸을 같이 해온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이 아바이의 변함없는 마음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해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은 이렇듯 변심없이 높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길에서 삶의 기쁨을 찾고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과 함께 비약하는 청춘기의 조국과 함께 자기도 젊어지고 있는 아바이,

이런 사람들의 변심 모르는 뜨거운 심장에 받들려 공업의 심장은 한순간의 멈춤없이 자기의 운동을 높이 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조국은 전진한다. 바로 이들의 뜨거운 심장과 함께, 수천만 갈래의 고압선으로 피를 보내듯 흘러보내는 전류와 함께 조국의 뜨거운 숨결은 더욱 세차게 맥박치고 있는 것이다.

기사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었네

김응하

품에 안아 키워준 요람이 여기 있고
푸른 꿈 꽃피우는 기쁨이 여기 있네
목숨보다 귀중한 나의 조국이며
그대 부름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었네

부모들은 피로써 이 땅을 지켰고
수령님 뜻을 안고 락원을 세웠네
우리 행복 꽃피는 나의 조국이며
그대 부름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었네

해빛넘친 창가에서 우리는 배웠네
아버지가 부르던 결전의 노래를
원썹이 이 땅에 덤벼든다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결판내리라

목숨보다 귀중한 나의 조국이며
그대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었네

행복이란 무엇인가 외1편

동기춘

생활속에
마음속에
때로 문득
그리고 어쩐지 자꾸만
깊어지는 생각

하루도 그 몇번
나의 어머니 외우는 말이 있다
못견디게 또
내 하고싶은 말이 있다

뜨거워라 이 가슴
못잊을 추억이여
울며 기억되고
웃으며 새겨진 모든것은
내 말하고싶은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있는것인가

속이던 세상에
속아 산 어머니
철부지 나조차 짐이 되어
허덕인 그 자욱
짙은물에 젖었던 그 반생은
꽃 한송이 벵글지 못했으니

말해다오 말해다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애국미 싣고 넘던 고개길에서
처녀시절의 마음 되어
어머니 꺾어줘던 산나리꽃인가
대학 마친 나를 데리고
머느리 선보려 가는 버들방축길에서
귀밑머리 날리던 미소인가

그것은 혹시
마디 굵은 손으로 틀어놓고
어머니 즐겨 듣는 수도물소리
아니면 저 논둑길
프락또르 바퀴에 벼이삭이 스적일 때면
내 좋아 적셔보는 새벽이슬인가

어쩌면 그것은

옛말삼아 길쌈도 해보고싶다는 마음속에
산나물도 입맛으로 캐여본다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어머니의 기쁨
그 마음 되어 느끼는 나의 기쁨
헤아릴수 없어라
뿌듯한 마음뿐-
내 지닌 그 모든것이리
누리면서도 다 모르는것 행복인가
봄날의 꽃나무에 핀
꽃송이 몇인지를 모르듯이

밀물이나 파도이나
겨웁게 안겨지는 행복이여
푸른 하늘 푸른 들이 입맞추는
저 아득한 지평선 끝까지
싱싱한 벼포기들이
바람결에 굼실르는 이랑에 서면
세상이 손벽치며 나를 축복하는듯

행복이여, 너는 진정
하늘도 조상도 주지 못한것
그것을 잃으면 노예가 되고
그것을 지니면 주인이 되는
아버이수령님 주신
은정어린 모든것 아닌가

땅과 함께 땅처럼
퍼붓는 눈비도 다 맞았고
은혜의 해발도 다 안았으니
언제나 그 언제나
가슴에 스스로이 넘치는
지중한 한 생각
아, 수령님, 그이를 모시여

생활속에
마음속에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뜨거운 이 생각

물어보자 이 생각
내 어머니뿐이던가
나뿐이던가

그때 그대의 어머니도
또 그대도
우리모두가 안그렇던가

그 누가 행복은 생각할타이라 말하느냐
뿌리 없는 행복은 부평초같은것

무성하는 숲의 잎새처럼
끝없이 늘어나라, 우리 행복은
그 하나하나의 잎잎마다에
따사로운 햇빛을 얹어주시는
은혜로운 태양, 아 우리 수령님

마음과 생각속에
소원과 지향속에
오직 수령님 계시어-
그분을 떠나
생활에 기쁨이라 이를것 따로 있으라

말해다오 말해다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마다의 가슴속에
하고싶은 말 천만가지
그 모두를 하나로 합쳐주는 뜨거움이여

-우리에게 수령님 계시다!

나의 어머니

촌에 계시는 어머니
내 때로 잊은적은 있어도
어머니는 꿈결에도 못잊었던가
기별없이 문득 들릴 때에도
매양 하시는 말씀은
울것만 같아 고개길이 살퍼지더라고

줄이 벌게 자란 내 손을
두손으로 감싸주시며
철없던 그 시절인양
일이 잘되느냐 물을 때면
어린시절이 흘러간 문지방을 넘으며
왜 그러도 가슴이 젖었던가

못잊어라
나를 키울 때 나의 어머니
찾을 날 없던 그 걱정
산에 가면 나무그루를 밟아가봐
물에 가면 깊은곳에 덤벼들가봐

먼 산골길
학교에서 늦은 밤이면
령길에 나와 부르던 목소리
그것이 사랑이던줄은
모르며 자란것이 이제 와 더 뜨겁고

첫 작업복의 땀을 빨아주며
옷이 뒹은건 빨기 쉬워도
마음이 뒹은건 씻기 힘들다고
첫 로동이 대견한 그날에조차

다심하던 어머니

그러시던 어머니
손자들이 주런 한 오늘에
머리 큰 이 아들일만은
마음 놓으신줄 알았더니

변함없어라 그 마음
내 철없던 날에는 키우기에 근심 많았고
내 나이든 오늘은
나라일에 보탬이 적을가봐
그것이 또 걱정이여서

드물게라도 잘있다는 소식이 오면
그날에는 일맛이 좋아 두곶을 한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외울 때
아, 내 것처럼 알면서도
다 모른것이 어머니였구나

언제나 키워주던 날의 뜻에
어깨 처지는 일 없이
나라 위한 큰일을 하고
마음속의 훈패를 절령거리며 안기도록
그렇게 살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나의 어머니더라
그렇듯 다심하나니 나의 조국도
그때문에 내 그 무슨 일을 하여도
조국앞에 설 때 떠오르는 모습은
나의 어머니였구나

시조

어제도 오늘도

김휘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버들가지 흐느적이는 창가에
전차들 불빛이 어려오는
탄전의 합숙에서 이 글을 씁니다
달라진 주소로 이 글을 씁니다

흰물결 밀려오고 밀려오는 바다가
배나무 우거져 길을 묻던 학교길...
정든 고향 그리며 초소에서 쓰던
그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씁니다

먼 기슭에 부딪는 파도소리
자장가삼아
나를 무릎에 잠재우던 밤이면
어서 커서 수령님의 참된
아들이 되라던 어머니

그 밤의 파도소리 가슴을 울려
어머니 살뜰한 말은 가슴에 남아
쏟아지는 혈암층을 웃으며 넘던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청춘의 첫삶을 시작한 때로부터
처음엔 조국을 지키는 초소로
오늘은 로동을 바쳐가는 여기로
또다시 달라진 이 주소
내 아침저녁 노을속을 걷는 탄전이

아버이수령님 어제도 깊은 밤
석탄생산을 간곡히 물어주신곳인줄
어머니 아신다면

초소에 섰던 병사들이 미더웁다고
수령님 그리도 치하하신줄
감격을 못참아 우리도 온밤
잠못든줄 아신다면
함께 기뻐했을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

고향에 살아야만 고향의 아들입니까
어디서나 청춘을 빛낼줄 아는 아들이
참으로 고향의 아들인줄 아는 이 마음
한장 편지에
지나온 탄광일 다 쓰지 못하지만
이 주소를 보며 생각하십시오
수령님 가리키신곳을 따라 달라진 이 주소가
수령님께서 가장 믿고 사랑하시기에

나날이 그렇듯 보람찬 이 주소가
모두 말해줄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이 아들의 참된 삶을
나를 키운 어머니 간절한 소망과 나의 마음
함께 빛나는
이 아들의 그 모든 참된 일에 대하여

조국이며, 그대앞에서는...

두줄기 철길도 함께 넘어간
탄전의 출근길 령을 넘는 길
탄부의 전사령장 달고 나서니
내 다시 초소의 신입병사가 된듯

멀리 흘러간 탄전의 산줄기여

가버린 그 시절로 나를 불러가누나
신입병사 그 시절에 나는 시작했지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걸음을

얼마나 로병사들이 부러웠더냐
먼먼 행군길에, 험치 않은 훈련길에...

그들처럼 능수가 못된것으로
내 아직 한일 너무 적은것으로

모든것이 앞에 있던 시절이었더라
넘어야 할 령도 걸어야 할 길도...

하나 조국이며, 나를 키운 어머니여
손잡아 이끌어주고 품어준 은혜
나이가 들수록 헤아릴수 없어

넘어온 령마루에 걸어온 행군길에
병사의 걸음걸음
위훈으로 빛내며 로병사가 됐어도

신입병사시절 그 마음만은 놓을수 없더니

내 오늘도 그 마음으로
령을 넘는 탄전길을 가고있구나
석탄을 섬기며, 조국에 섬기며
빛내야 할 삶의 그 모든것이
오늘도 시작인듯 앞에 있구나
아, 조국이며, 불러 다함없는 어머니여
금별의 훈장이 이 가슴에 빛난들
그 마음이야 놓을수 있으랴
그대의 앞에서는 내 언제나
신입병사 그 시절의 그 마음!

교대시간 되기전에...

그 누가 우리에게 말하였던가
깡에선 시간이 가는줄 모른다고
말 말아 우리의 로동으로 하여 벽치게 흐르는
조국의 시간을 우리가 모른다더냐

바위우에 착암기의 불꽃 세차니
무지개발 일어서는 탄발이 보일듯
우리의 막장이 멀어질수록
가까이 들리는듯, 공장들의 기계소리

혁신의 벽찬 시간이 흘러가는
조국의 숨결이 들려오는듯

아, 우리의 보람찬 시간으로 하여, 교대로 하여
조국은 더 휘황한 래일과 교대한다
동무들아, 교대시간 되기전에
또 한발과 올리자
우리 책임진 조국의 앞날을
눈부신 앞날을 한가슴에 안고서-

그 이야기 나에게 하게 될 때

자네도 다는 모를걸세
요즈음 나의 일손 더 흥겨워져
굴진에서 소문을 낸 억센 힘
그것이 무언지, 다는 모를걸세

여기 내 이름 속보에 날 때면
그토록 기뻐하며
붉어진 제 얼굴 누가 볼가봐
남몰래 자릴 뜨는 한 처녀 있다네

그날은 그 가슴에 기쁨만인듯
말씨는 더더욱 상냥해지고
온종일 보조개 얼굴에 웃음지으며

물아가는 전차엔 더 세찬 바람 일고

달그림자 창가에 스러지도록
내 애탈 때엔 잠도 잇는 처녀
적재기창안으로 그 몇날
축간 내 얼굴 바라보면서도
-막장에선 버력이 밀려요.
애꿎게도 말하던 까만눈의 처녀
그 말이 이 가슴에 불을 떨구던...

가슴으로 암벽을 밀어갈 때면
처녀의 부드러운 손이
착암기를 함께 잡는듯

착암기는 더더욱 세차게 돌고
 더더욱 세차게 불꽃은 날리고

여보게 내가 한일
 내 혼자 했다 생각 말게
 진실하고 뜨거운 우정 없이는
 가까이도 못할 이 처녀
 내 가슴에 언제나 힘이 넘치도록
 소문없이 말없이 밀어주는 그 마음

자네도 이제 성실하고 아름다운
 일생을 언제나 같이 하고픈
 한 처녀의 이야기 나에게 하게 될 때
 보람찬 일터에서 청춘을 함께 바칠
 진정한 마음의 동반자를 찾았을 때
 알게 될걸세,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참다운 동지애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를-

어제도 오늘도

먼곳에서 왔구나, 반가운 소식
 낮익은 편지의 글발을 따라
 화력발전소의 출근길을 걸을
 림름한 너의 모습 보여오는듯

풀내 습배인 제대배낭을 메고
 그리로 갔단말이지
 한평생 살고픈
 휘황한 거리들 지나
 파원속에 오붓한 마을들 뒤에 두고
 고압선 줄줄이 뻗은 거기로 갔단말이지

벗이여, 그 마음 내가 아네
 가슴에 햇순처럼 희망이 움틀 때
 바다가 숲사이길 함께 걸으며
 이 땅을 위해 빛나는 길 늘 함께 가자고
 학창시절 언약도 깊었던 우리

초소에선 나는 포병, 너는 보병
 고지에 풀깔고 누웠던 밤에도
 청춘의 참된 삶을 생각하며
 찬이슬에 군복을 적시던 우리

멀어도, 낯설어도
 조국의 믿음 가장 큰곳이어서
 나는 여기로
 너는 거기로 달려갔구려
 우리 그 언제나
 청춘이 가야 할곳을 알고있구려

이제 너로 하여
 여기서 먼 화력발전소는
 나에게 더 가까워진듯, 귀중해진듯

벗이여,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우리 마음으로 나날을 빛내이자
 나는 산마루에 해뜨고 해지는 탄전에서
 드센 압박도
 솟구치는 물기등도 헤쳐넘어
 막장의 구간마다
 청춘의 푸른 꿈을 새겨가며

물소리 높은 강기슭 화력발전소에서
 너는 타빈을 세차게 돌려
 혈맥처럼 뻗은 고압선마다
 청춘의 벽찬
 심장의 고동소리 실어가며
 아침마다 걷는 출근길로
 위훈이 없이는 돌아오지 말자

그리하여 후날
 더 좋은 날들이 이 땅에 흐를 때
 벗이여 자랑차게 이야기하자
 조국의 휘황한 도시, 아름다운 마을들을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아침저녁 어제날 초소길 다름없이
 수수한 탄전길을, 발전소길을
 자랑에 넘쳐 뽕뽕하게 함께 걸었다고!

다시 5월을 불러

김영근

다시 5월이 왔다!

하늘아

억수로 눈물을 뿌리지 말아

땅아

한떨기 꽃도 피우지 말아

눈물로 강을 이룬다고

광주가 흘린 피 씻을수 있느냐

꽃으로 바다를 이룬다고

이 찢기운 가슴들에 봄을 줄수 있느냐

분노를 안고 너를 다시 부른다, 5월아
자유냐!

죽음이냐!

의분에 불을 질러 화산으로 일어섰던

아, 그 땅을 살려내라

그 봄을 불러오라

무참히 숨지었다

청춘의 가슴에

삶이 꽃피는 봄을 안고싶어

《유신》을 불사르며

파쑈를 짓부시며

어깨걸고 나아가던 우리 아들들이

총칼이 울지 않는 학원의 창가에서

밝은 미래로 나래를 펴고싶어

단발머리 날리며

항쟁의 파도속을 달려가던 딸들이

아, 투쟁속에 밝아오는

통일의 려명을 머리에 이고

쓰러져 못다부른

자유 노래

민주의 웨침

남녘의 하늘땅에 메아리치는데

어디로 갔느냐

피젖은 포석을 움켜잡고

백번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가슴에

마주안겨오던

그 밝은 강산이!

어디로 꺼져갔느냐

원쑤의 불뿔는 총구앞에서도

꽃나이 딸들이

호수같은 눈에 비껴담았던

그 푸른 하늘이!

자유가 꽃피야 할

피바다위에

민주가 꽃피야 할

이 강토에

어느놈이 짓밟고 일어섰느냐

그것은 잔악한 《유신》의 독버섯

새로운 《유신》-

암흑이 다시 덮인 이 하늘

철쇄만이 우는 이 땅위에

5월이여, 너는

꽃을 피우려 왔느냐

봄을 주려 왔느냐

봄이라도, 그 봄빛으로는

의분의 나래 퍼덕이며

손뼉쳐 끌어안던

그 땅을 살려내지 못하리라

그 봄을 꽃피우지 못하리라

5월이여, 다시 너를 불러 청하노니

우뢰로 안아다오

폭풍으로 안아다오

천추에 울려갈 광주의 웨침-

피의 자유를!

아, 그러면 이 땅위에

불굴의 녀은 굳게 살아 일어나리라!

투쟁으로 꽃피운

민주의 새봄을 안고

투쟁으로 불러온

통일의 강산을 안고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진실한 서사시적화폭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2부)에 대하여-

동근혼

최근에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가 나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널리 읽히우고 있다.

《갑오농민전쟁》 제2부는 1894년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격기한 농민들의 계급투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의 형식이 오늘과 다를뿐이지 노예주와 노예, 봉건령주와 농노사이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투쟁들도 소설로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레를 들어 어느 농민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쓴다면 역사를 쓰듯 사실을 그저 리얼할것이 아니라 어떤 전형적인 개별적사람들의 투쟁을 통하여 그때 사회의 농민전쟁전반과 계급투쟁의 전모를 보여줄수 있게 그릴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96페이지)

《갑오농민전쟁》 제2부는 지난날의 계급투쟁을 그려 근로자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한 창작과제에 따라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예속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주적지향을 실현하려면 통치계급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나 싸워야 한다는것을 사상주제적과제로 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사상주제적과제를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양교리농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 고부농민봉기와 그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에 기초하여 일어난 새로운 대규모적농민폭동을 중심으로 삼아 사건발전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폭넓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고부군내 인민들은 1894년 1월 봉기를 일으켜 관청을 습격하고 악질관리, 지주, 토호 등을 처단하며 종문서, 땅문서 등을 불살라버린다. 그들은 일시나마 종살이도 끝장내고 압제에서 벗어나 활개치며 살수 있게 된다. 착취와 억압, 고역과 천대속에 피눈물을 뿌리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천지개벽이였으며 명절아닌 명절이였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으며 자주적지향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심오한 철학적진리를 밝혀준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 그들의 명절은 순간적으로 지나갔다. 고부농민봉기진압을 위하여 조정에

서 파견되어 내려온 안핵사 리용태의 란동에 의하여 농민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살육만행이 감행된것이다.

한편 부패무능한 봉건위정자들은 왜놈과 구미 오랑캐놈들을 끌어들여 사대망국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자으며 농민들에게 무려 40여가지나 되는 가렴잡세와 갖가지 부역을 들씩워 그들의 살을 깎아내고 뼈를 바수어냈다.

농민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치고 계급적수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더는 참고 견딜수 없는것이다. 이래도 죽고저래도 죽을바에는 차라리 들고일어나 싸우다가 죽는편이 나았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도 더욱더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이며 역사가 증명하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이리하여 농민봉기군들은 전봉준의 지도밑에 다시금 대오를 수습하고 《척왜척양》, 《보국안민》(왜놈과 양국되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잘살게 해야 한다) 구호밑에 노도와 같이 떨쳐일어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떨쳐나선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의리심과 단결력이 강할뿐아니라 원수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 강하며 놈들과의 전투에서 용감하고 희생적이다. 그들은 황토현싸움과 장성싸움을 거쳐 며칠사이에서 여러 고을을 점령하고 드디어 리씨왕조의 본관지이며 남도지방의 정치적요충지인 전주에 입성한다.

농민봉기군의 승리적전진과정은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격기한 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세까지 끌어들이면서 농민봉기진압에 미쳐날뛰는 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반인민적이고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준다.

날이 갈수록 농민봉기군의 대렬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인민들은 기쁨과 탄성을 금치 못한다.

소설은 이처럼 이야기줄거리에 다양한 굴곡을 조성하면서 사건발전과정을 진실하게 추구하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싸우는 길만이 유린당한 자주성을 되찾는 성스러운 길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확인하였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이 봉건사회의 현실을 그리면서도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과업을

내세우고있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주는 힘의 원천이 있으며 봉건사회에서의 인간문제에 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이 있다.

소설이 제기하고있는 주제사상적과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주인공 오상민의 일가와 지주 리진사놈의 일가이다. 소설은 이 두 집안의 판이한 생활세계를 사건의 한복판에 두개의 큰 기둥으로 설정해놓고 서로 대조시키면서 각이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의 호상관계와 우여곡절에 찬 생활을 다양하게 그려내고있으며 전반적 형상을 기쁨지게 하고 그 폭과 깊이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오상민일가로 말하면 《익산민란》에 참가했다가 전주에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참혹하게 희생된 할아버지대로부터 시작하여 《일심계》 두령인 아버지 오수동과 오상민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애국애족적인 집안이며 아무리 뼈빠지게 일하여도 봉건적착취로 인하여 언제나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대의 평범한 농민의 전형이다.

오상민은 자신의 뼈에 사무친 생활체험과 스승 전봉준의 영향에 의하여 농민봉기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자라날뿐아니라 고부농민폭동당시에는 봉건관리들과 지주, 토호들을 요정내고 마을사람들에게 지주놈한테 빼앗겼던 쌀과 천을 나누어주는데 앞장서며 나중에는 농민봉기군의 총포대장으로서 농민전쟁의 승리적전진에 크게 이바지한다.

상민이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고부농민봉기후 고향 양교리에서의 리용태놈의 만행이다.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감행된 농민봉기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그로 하여금 량반통치계급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 그놈들에 의하여 희생되고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 가족친척들과 고향마을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더 한층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

동료들과 함께 상민이가 새로운 폭동준비를 위해 100여리길을 걸어 전봉준의 고향 당촌에 왔을 때였다. 여기서 그들은 양교리를 비롯한 고부군 도처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에 대하여 또한번 자세히 듣는다. 100여리길을 걸어왔고 게다가 오는 도중에 세상이 바뀐다는 《비결》이 있다는 바람에 그것을 보려고 선운사 돌부처배꼽을 도끼로 까는 힘겨운 일판까지 벌렸으니 피곤할대로 피곤해진 그들이였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운 상민은 도저히 잠들지 못한다. 봉건통치배들의 손에 무참하게 죽은 고향사람들에 대한 생각때문이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가엾은 생각, 옥에서 칼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잠들수 없고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팠으며 눈물은 주체할수 없이

흘러 베개를 적시였다.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소설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끝없이 갈마드는 상민의 생각을 더듬으면서 그의 가슴속에 끓몰거리는 계급적반항의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울분을 새겨 묘사하고있다.

《죄야 남이 지어놓은 곡식을 깡그리 빼앗아가는 그 도적놈들에게 있지 않는가. 빼앗기기만 하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단말인가?

.....

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참혹하게 죽어야 하는가? 왜? 무엇때문에? 상놈이기때문이다. 상놈은 제가 지은 곡식을 다 빼앗기고 굶어야 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대답 한마디 해서도 안되며 억울하게 죽어도 호소할데가 없다.

.....

리진사같은 량반놈들을 없애치워야 우리 백성이 편안히 살수 있다. 그놈들과 우리 백성들은 한 하늘을 이고는 살수 없다.》

상민이의 분노와 복수심은 드디어 《이 세상을 기어이 뒤집어엎으리라!》는 굳은 결심에 이른다.

소설에서는 이처럼 화해할수 없는 계급적모순을 점차 인식하고 투쟁에 떨쳐나서는 주인공의 성격장성과정을 구체적인 생활과 밀착시키고 내면세계에 파고들면서 깊이있게 그리고있으며 상민이의 사람됨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의 용감성, 파단성이 바로 자기 고향과 친척 친우들에 대한 사랑, 억눌린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나라를 존망의 위기에로 몰아가는 량반통치계급에 대한 증오에 기초하고있음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더는 참고 견딜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백배천배로 복수하여야 할 싸움의 길에 결연히 떨쳐나선 오상민을 비롯하여 전봉준, 천돌석, 렬동, 리섭, 몽득과 같은 인물들이 앞장에 서있기에 농민전쟁은 폭풍을 안은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지며 삼시에 온 남도지방을 승리적으로 휩쓸며 봉건 위정자들을 전몰케 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상민이를 비롯한 농민봉기군들이 반봉건의 기치를 추켜든 전진하는 시대의 선각자들로 그려졌다면 리진사를 비롯한 지주, 토호들과 량반관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나라와 인민의 원수로, 멸망하여가는 봉건의 산아들로 형상되였다.

리진사는 봉건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는 악착한 지주의 전형이다. 소설의 제1부에서 그놈의 착취자적본성을 발가놓는데 작가의 관심이 많이 돌려졌다면 제2부에서는 사건발전의 추이에 맞게 그놈의 악랄성과 취약성을 보여주는데 주되는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온갖 죄행을 껴리낌없이 자행하던 리진사놈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치다가 원한품은 길보의 낮에 찍히어 죽을면 한다.

한편 그놈의 아들 상문이라는자는 리진사가 달아난 틈에 집을 들추어 돈과 땅문서, 종문서, 빚문서들을 제손에 넣고 《돈타령》까지 한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리진사놈은 그만 기절초풍한다.

그놈은 악에 받쳐 농민탄압을 부추기나 더운 방에서도 그냥 《어, 떨린다》는 정신빠진 소리를 제치면서 허우적거린다. 호령 한마디면 사시나무 떨듯하며 순종하던 머슴들도 그놈의 집을 뛰쳐나가 농민봉기군에 가담한다.

그렇게도 득의양양하고 쥐락펴락하던 리진사놈의 집안은 그야말로 망조가 든것이다.

작품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농민봉기군과는 대조적으로 리진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원수들의 망해가는 꼴을 통하여 자주적지향의 승리적성장과정과 시대에 역행하고 인민의 자주성을 짓밟는 반동들의 쇠퇴몰락상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종자의 요구와 주제사상적과제에 맞게 각계각층의 각이한 인물군상을 창조하고 그들의 성격과 생활, 호상관계를 통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폭넓게 반영한것으로써도 특징적이다. 여기에 또한 이 작품의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의 하나가 있다.

소설에는 머슴과 노비로부터 시작하여 촌보, 윤생원과 같이 난알구경이나 좀 하는 양인농민, 리충식과 같은 진보적선비, 김홍집, 어윤중과 같은 개화파량반 그리고 국왕 리형과 민비, 세도재상 민영준, 악질관료 조병갑, 리용태, 조참봉, 지주와 토호, 일본공사 대조, 일본간첩 대강,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영국총령사 히리어, 영국간첩 게일내외 등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며 이들의 활동무대는 서울과 전주, 고부 무장, 고창 등지와 농촌마을, 지주집, 봉건궁중, 고을관청, 외국령사관 등이다. 그만큼 소설에 묘사된 생활이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 농민들의 생활이 그려진데서는 구수한 흙냄새와 민족적 향토적 정치가 그윽하게 풍기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과 념원, 아름다운 인정세태가 생동한 화폭처럼 펼쳐지고있으며 계급적원수들이 그려진데서는 망국의 비운이 떠돌던 당대의 현실이 뼈저리게, 너무도 가슴아프게 안겨오고 있다. 특히 계급적원수들의 추악한 생활세계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에 대한 형상은 작품의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밝히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주체의 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생활에 대한 인물들의 립장과 태도를 뚜렷이 드러내 보여줄수 있는 기본사건을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부차적인 사건들을 잘 안받침하여 그려야 기본사건의 정치적의의를 강조할수 있고 주제도 깊이있게 풀어나갈수 있다.

《갑오농민전쟁》 제2부에는 기본갈등선에 놓이지 않은 부차적사건들로서 봉건궁중에서, 외국인

들속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적지 않게 그려지고있다.

봉건왕실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술한 빛을 저다가 부화사치한 생활에 탕진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이야 어떻게 되든 밤낮 경읽기요, 굿이요, 놀이요 하면서 썩어빠진 생활을 하며 벼슬아치들속에서는 벼슬을 팔고 사는것이 일상다반사로 되고 있다. 지어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마다에 쌀한섬, 돈 백냥씩 올려놓고 빌면 《동궁마마가 무병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일본상인한테서 수백만냥의 빛을 저들여다가 어리석은짓을 한다.

그런가 하면 봉기군들이 고부, 태인을 쳐들어갔을 때의 실태가 보여주는것처럼 고을병기고들에 있는 무기란 다 활과 창, 화승대와 같은 락후한 중세기적인것들이고 그것마저 좀이 먹고 녹이 쏘고 썩어서 쓸만한것이란 별로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듯 내정이 문란하고 양반들의 부패무능이 극심해진 틈을 타서 왜놈의 간첩넌은 빗받으러 왕실출입을 제집 나들듯하면서 정탐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며 왜색왜풍이 서울바닥을 더럽힌다.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서로 승냥이이발을 드러내 놓고 조선의 땅덩어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썩을대로 썩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봉건사회의 멸망상과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폭로하고 미일 침략자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소설을 보면 19세기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형편, 사람들의 정치적동향과 문화도덕상태, 봉건국가의 대내외관계 등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데 이것은 당대 현실에 대한 폭넓고 심오한 사실주의적일반화의 결과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것은 작품에서 역사적사건과 사실에 대한 처리를 잘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사실자료를 기계적으로 작품에 옮겨놓으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74~475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바와 같이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려면 사실자료를 많이 알아야 하며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할줄 알아야 한다. 자료가 아무리 좋은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엮어만 놓아서는 예술작품이 될수 없다.

실재한 사실을 예술적진실로 어떻게 승화시키

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지만 역사적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그것은 역사적 주제의 작품이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자면 실재한 역사적사건들과 사실들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라렬하고 기록하는데 그쳐서는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문제는 역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 생활의 토막들로, 형상의 요소들로 만들어 예술적 진실로 전환시키는가 하는데 있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에 그려진 고부농민폭동과 고부농민들에 대한 안핵사의 살륙만행, 황토현과 장성전투, 전주입성, 봉기진압을 위한 관군의 파견과 그들의 패배, 궁중비화 등 중요사건들은 실재한 역사적사건들이며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조병갑, 리용태, 홍계훈 등은 실재한 인물들이다. 또 농민봉기군이 발표한 창의문과 격분, 조참봉의 입을 빌어 밝힌 40여가지의 가렴잡세 등도 사실 그대로이다.

소설에 그려진 이와 같은 역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은 역사책에 못지않게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우리 나라 근대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준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그것들이 사회학적 논리적 서술과 단순한 객관적소개에 그친것이 아니라 충분히 형상화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역사적사건을 예술적진실로 전환시키면서 당대의 사회력사적현실을 서사시적 화곡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인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작가가 자료들을 폭넓게 분석하고 당대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모든 생활자료들을 종자를 꽃피우는데 복종시키도록 구성의 대를 바로 세워놓은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주제의 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구성은 극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기때문에 작가는 구성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낼수 없다

소설의 제4장 《5. 서울 소식을 듣다》에는 상민이 복룡과 함께 반룡원 신주사집에 가서 개화파두령들이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과 일본통치계층에 의하여 어떤 간난신고를 겪으며 봉건왕실에서 얼마나 썩어빠진 생활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그리고 제10장에는 서울 삼청동에 사는 리충식이 영국대백과사전 《부리타니카》를 구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선을 받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육영공원 교사 뽕커, 정승 김홍집과 어윤중, 탐관오리 조참봉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장면들에 전개된 이야기와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거의다 역사적사실에 맞는것들로서 얼핏 보면 작품의 기본줄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것 같다. 그러나 전자가 상민과 복룡의 성격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지어주면서 갑오농민 전쟁전야의 봉건상층과 외래침략세력의 동향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리충식을 농민봉기군이며 주인공 상민의 아버지인 오수동 그리고 전봉준, 오수동 등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있고 반봉건적지향을 지닌 정한순과 연고관계에 있는 인물로 그리면서 김홍집, 어윤중 등은 우국지정을 표시하고 언더우드, 뽕커 등은 농민봉기를 기회로 침략의 마수를 더 깊이 뻗히려는 속심을 드러내게 형상함으로써 농민봉기군이 《적왜척양》, 《보국안민》의 구호를 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현실을 여러모로 깊이 해부하고있다.

또 소설의 제6장 《2. 무장 선운사 돌부처배꼽》에서의 돌부처배꼽을 떼고 그안에 숨겨두었다는 《비결》을 꺼내는 상민이들의 모습도 소설의 기본내용과 직접적관계가 없는듯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당시 사회가 망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는가를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전반적민심이 세상을 뒤집어 얹으려는데로 지향되고있음을 확인하고있다.

요컨대 작품에 그려진 모든 사건들과 사실들, 모든 인간관계와 생활이 갑오농민전쟁이라는 거대한 정치적사변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밀접히 얽혀지게 함으로써 그것들이 종자의 형상적구현에 복종하는 서사시적화곡의 매듭과 요소들로 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19세기말의 조선인민의 슬픔과 기쁨, 비판과 희망, 사랑과 증오 등 다양한 사상감정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도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당대 사람들의 생활을 폭넓고 풍부하게 그리면서도 주제사상을 명백히 전달하고 독자들의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한 주되는 요인이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옛날의 시대상이 드러나게 하는 개성적인 언어문체를 써서 이야기를 구수하고 친근한감을 자아내도록 엮은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들이 많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는 이와 같은 사상에예술적성파로 하여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 온갖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는 사회주의제도에해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행복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게 하며 다시는 쓰라린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호에서 계속)

5. 철의 도시 밤하늘에 빛나는 별

황철은 많은 작품들과 작가들을 배출한 생활의 보람찬 요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숨쉬는 용광로의 우람찬 모습을 보았고 시련속을 헤쳐나온 T 형강의 흐름을 보았다.

세월은 쇠물의 흐름처럼 빨리도 흘렀다.

모든것이 발전했다. 기술장비들도, 사람들도, 생활도... 용광로가 숨쉬기 시작할 때나 시련속에서 새 강재를 뽑아낼 때와는 다르다. 그것은 우리는 작가 백현우동무의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가제)에서 읽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속에서 황철은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으로 변했다. 그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주체형의 인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사람들을 보람찬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줄것이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과제를 훌륭히 해제끼는 백현우동무를 찾아 용해공거리의 그의 집에 도착한것은 점심참이 좀 지난 뒤였다. 앞집도 옆집도 용해공들의 집이었다. 이 거리에는 용해공이 되지 못하고는 누구나 막 살수 없다. 작가라고 해서 여기에 집을 둔것이 아니다.

백현우동무가 여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기전에 황철의 해탄공들은 그를 자기 작업반명단에 올리었던것이다. 그 명단에 오른다는것이 조련치 않다. 수많은 지도일군들도 이 작업반에서 생활했고 수많은 지원자들도 이 작업반에서 혁신을 했지만 작업반명단에 오른적이 없다.

우리는 오후에 작가와 함께 제철소를 향했다. 그때 보안경을 이마우로 번뜩 올리밀며 한 해탄공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작업반명단에는 우리와 같이 마지막까지 생사를 할 사람만이 등록됩니다.》

용해공들이 자기들의 이웃에 집을 마련해준것도 이것을 보았기때문이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철의 도시로 내려오기전에 벌써 방열복에 소금꽃을 피웠고 난관속에 먼저 뛰어들어 그들을 위훈으로 부르는 생활의 벗으로 되었다.

《혼자몸으로 현지에 나온다는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시작한 그는 해탄공일가가 되지 않고서는 해탄공일가를 쓸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침투에 대한 당의 가르침과 더불어 생활은

작가에게 그런 측면에서 종자를 안겨주었고 용해공거리의 고층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내주었다.

× ×

뜨거운 열풍이 가슴을 덮히는 구내산기슭은 폭음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전쟁의 참화속에서 녹슨 철관에 동지를 틀고 살던 그 새들의 후대들이다.

어느 한 시인은 새들은 숲으로 간다고 했지만 새들은 오늘의 모습을 보고싶어서 구내산에 그냥 물러앉은것이 분명했다. 못새들도 동지를 틀고 못에 떠나지 못하는 철의 기지는 얼마나 좋은곳인가.

작가 백현우동무는 새날이 휘뿜히 밝으면 남먼저 일어나 거리를 깨끗이 쓸고 대형용광로를 바라보곤하였다.

처음은 제철소 하늘가에 흐르는 뿌잇한 공기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차차 그것이 더 청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쇠물빛이 좋았다. 그 빛을 며칠 못보아도 그리워졌다.

그는 8시에는 어김없이 정문에 들어섰으며 자기의 《출근카드》를 정리했다.

평양에 왔다가도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해탄공들에게 수도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가 새소식을 안고 오는 날이면 생산이 부쩍부쩍 올라갔다. 그런 날이면 밤새껏 그의 집에서는 새 기술혁신안이 꽃피었다.

그의 《작가수첩》에는 철냄새가 나면서도 승고하고 아름다운 희귀한 생활세부들과 투박하면서도 뜨거움과 진정이 배인 말들이 빼곡이 장을 채웠다. 또한 단란한 가정의 가지가지 이야기들이 삽입되었다. 그속에는 자기의 생활이 많았다.

작가 백현우동무는 《작가수첩》을 자기의 생활로 절반이상을 채우려 했다. 그러자니 그의 노력은 힘겨웠다. 그는 그것을 참고 넘기었다.

분기생산총화에서는 작업반성원들과 함께 꽃다발을 받았다. 일요일에는 파고철을 그득 실은 딸따리를 안해와 아이들과 함께 끌고 제철소로 남먼저 들어갔다.

몇해가 지났다.

보람차게 흘러간 나날들은 작가의 가슴속에 벽찬 철의 도시의 생활감정들로 가득채워주었다.

우리는 구내산기슭의 긴의자에 앉은채 구내를 바라보았다.

《해탄공으로서의 나의 생활체험은 나자신을 창작성천적고층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한 작가의 말이다.

× ×

저녁에 우리는 그의 서가에 키를 넘게 쌓인 초고를 뒤져볼수 있었다.

깨알처럼 박아쓰고 지우고 덧쓴 매장매장에서 우리는 작가의 고충을 느꼈다. 그 고충이란 작가의 높은 지향이 얼룩진 흔적이였다.

그러므로 한밤중에도 불빛이 이글거리는 현장으로 달려나갔고 해탄공아바이네 집문을 두드렸다.

생활의 크고작은 온갖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작품의 주인공들은 가슴을 터놓고 작가에게 아낌없는 방조를 주었다.

작가의 심장은 불타올랐다.

종자를 쥐고 파악이 생긴 다음은 속도전을 해야 작품의 사상예술성이 담보된다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가르치심은 얼마나 옳았던가!

집필은 밤낮이 따로 없었다. 작가에게는 그것이 전투이기때문이다. 땀의 열매는 좋았다.

심의본이 해탄공들 손에 쥐여졌을 때 그는 《이제부터 창작은 시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자세는 생활이 가져다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창작적지향을 그렇게 높이 세우고 모대길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로동계급의 정신도덕적풍모에 무한대를 그려놓았다. 그것은 작가가 그들을 알기때문이다.

우리는 작가의 땀흘린 귀중한 결실인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가제)의 심의본을 펼치며 흥분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창문을 열어제꼈다. 밤노을이 비낀 제철소의 밤하늘이 펼쳐졌다. 거기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였다.

그것들이 철의 도시가 반들어올린 위훈들이라면 그속에 독특한 자기의 빛을 가지고 빛나는 하나의 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가제)일것이다.

밤은 한정없이 깊어갔다.

멀지 않아 그 별을 보게 될것이다.

6. 동화작가의 소원

초여름 한낮이다.

빠스는 푸른 벌 한복판으로 뻗은 길을 따라 경쾌하게 달린다. 폭신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한동안 취한듯 벌을 바라보던 우리는 앞에 앉은 체격 좋은 두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는바람에 그쪽에 주의를 돌리였다.

그들은 동화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50대의 두 일군이 동화이야기를 한다. 금붕어가 어떻게 구슬이 어떻게... 참 희한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는 호기심이 바짝 동하여 그들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바람이 사람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따다 구슬을 빚는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의 땀을 따라 구슬을 빚으면 노래와 웃음의 구슬이 되었고 어떤 사람의 땀을 따다 구슬을 빚으면 고통과 울음의 구슬이 되였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구슬을 빚으려고 모색하던 바람은 어느날 천리마나라 땀으로 가장 아름다운 구슬을 빚을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멀고 먼 길을 달려와보니 천리마나라 사람들의 이마에서는 땀을 찾아볼수 없었다.

옛날에는 땀을 많이 흘려야 행복이 차례진다는 말이 있었다. 천리마나라에서는 반대였다. 땀을 흘리지 말아야 더 큰 행복이 마련되였다. 그것은 기술혁명의 은덕이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얼마나 흥겨우면서도 큰 사상을 주는 이야기인가! 몇해전 《아동문학》잡지에서 읽은 동화 《가장 아름다운 구슬》에 대한 이야기였다. 바로 그 동화의 작가 김우경동무를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설렘였다.

우리의 머리에는 현지로 나가기전 그가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동화의 세계를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것이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과연 작가의 소원은 어떻게 실현되고있을것인가?...

우리보다 앞서 차에서 내린 그들은 논두렁길을 걸으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다가 흥미있는 이야기군이 작가가 현실체험지를 정한 칠골협동농장 리당비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우리가 현실체험을 잘하여 창작적성과를 올리고있는 김우경동무를 찾아간다는 말을 하자 몹시 기뻐하였다.

《우리 동화작가말입니까? 마침 잘 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 농장에 왔을 때 <동화작가가 농장에 와요?> 하고 의문을 품었는데 한두해새에 온 농장원들이 다 동화에독가로 되였지요. 우리 농장원들은 우경동무가 쓴 동화가 나오면 우리 농장 작가가 썼다면서 자기들의 생활과 대비해본답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칠골농장관리일군들은 소설만이 아니라 동화도 읽는다. 그들은 아이들만이 읽는 글로만 알았던 동화속에 그렇게 큰 생활의 철학이 있는줄을 몰랐다. 발머리의 설참에 나누는 그들의 동화이야기에는 변모될 교향의 앞날이 비끼였다. 거기서 그들은 더 큰 고무와 힘을 얻

고 더 극성스럽게 일을 했다.

이것이 작가가 하는 일이었다. 그는 큰일을 하고있었다.

그날저녁 우리는 알뜰하게 꾸려진 리합숙에서 작가와 오래도록 마주앉았다.

자기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체로 하지 않는 작가는 될수록 보람찬 현실에 대하여 말하려고 했다.

우리의 성화에 못이겨 겨우 몇마디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활의 일부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동화작가가 체험지를 농장으로 정했다면 좀 의문을 가질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김우경동무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동화작가와 체험은 환상을 기초로 한 문학입니다. 따라서 독자인 아이들의 생활과 동시에 사회주의 현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작가들보다 동화작가의 체험이 어렵다는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와 우리 시대 동화문학의 높은 요구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져있었다. 그의 옹은 생각은 창작 실천에서 남김없이 생활력을 나타냈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한해에 8편의 우수한 동화를 썼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슬》도 그는 칠골농장 김매기전투장에서 착상했다. 한 농장원 이 제초기에 앉아서 한고패 김을 잡고나서 《땀을 흘려야 보람이 있다는데 이거 땀을 안 흘려 야단났구만.》 하는것이였다.

책상에서 듣던 말과는 다르게 안겨왔다. 3대혁명에 속담이나 격언을 뒤집어놓았다. 오히려 땀을 흘리지 말아야 행복이 차례지는 오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농장원들의 김매기전투는 작가에게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선물했다.

동화와 독자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이다. 때문에 작가는 원고를 끼고 학교를 찾아다니군하였다. 창덕학교학생들은 그의 첫 독자들이였다. 국어소조는 그의 가장 가까운 벗들이였다. 그는 국어소조원들의 작품을 받가는줄 모르고 도와주었다. 그들과 함께 교수에도, 과외활동에도, 소년단회의에도 참가했다. 그러기에 그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동화를 아이들이 가장 빨리 효과있게 받아들일수 있는 중요한 동심적요구를 찾아칠수 있었다.

우리는 김우경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현재 사회주의애국주의 주제의 중편동화 《다정한 형제들》을 비롯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고있는 비결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먼저 논으로 나간 작가를 찾아 콩포기들이 모닥모닥 자란 논두령을 밟았

다.

저쪽 양수기쪽에서 농립모를 쓰고 삽을 맨 사람이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하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작가가 아이들과 함께 논고를 손질하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농장일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려고 관리위원회로 들어갔다. 마침 관리위원장동무가 혼자 앉아있었다. 그의 책상우에는 《아동문학》잡지가 놓여있었다. 그 역시 동화에독자였다.

그는 우리 농장 작가동무는 가족들의 방조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작가가 우산장에 간 사이에 있었던 생활들은 안해와 아이들에게서 보충받는다는것이였다. 사실 그랬었다. 작가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도움을 받는것이다. 김우경동무의 경우가 그것을 잘 말해주었다. 실로 그는 립체적으로 생활을 탐구하고 체험하고 창작하는것이다. 그런속에서 어찌 좋은 작품이 기대되지 않으랴.

얼마후 우리는 논에서 돌아온 작가 김우경동무와 함께 《칠골》빠스정류소를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만풍을 약속하는 벼포기들의 아지치는 소리가 들리는듯싶었다. 벌써 가을날의 구수한 훈향이 가슴을 적신다. 풍요한 가을이 보이는듯싶다. 대지도 풍년이요 창작에서도 풍년이다.

그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져간다.

그러나 작가는 도리질을 하였다.

《저는 저의 소원을 더 훌륭히 더 빨리 풀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큰 산이라면 저는 아직 거기서 자라난 무수한 나무들가운데서 어느 한그루, 그 한그루 나무의 한 잎사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 독자들에게 조국의 앞날에 대한 찬란한 꿈을 담아 주지 못했지요...》

작가의 자책은 컸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당앞에서 당원-작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이기도 했다. 작가의 결의이기도 했다.

이윽고 우리는 팔골행 빠스에 올랐다. 빠스안에는 인민군군관도 앉았고 유치원꼬마도 있었고 어느 공장 지배인같은 사람도 앉아있었다. 빠스안에 달려있는 반도체라지오에서 그가 쓴 동화 《능금섬의 소원》이 울려나왔다.

사람들은 모두다 숨을 죽이고 귀담아듣고있었다. 동화의 독자들은 아이들이만이 아니였다. 칠골협동농장 농장원들만도 아니였다...

동화작가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져가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최봉무

탈출기

최서해

단편소설 《탈출기》는 1925년에 서한체형식으로 씌여졌다.

소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무권리와 생활난을 보여주면서 당시 현실에 대한 항거와 새 사회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계급의식에 눈떠가는 근로인민의 사상의식장성과정을 독특한 구성과 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그러나 소설에서 작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지 못한 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명확한 사회주의적리상과 그 실현방도를 밝힐수 없었다.

하지만 소설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밑에 불합리한 사회의 본질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밝아놓음으로써 독자들의 계급교양에 일정한 도움을 줄것이다.

(편집부)

1

김군! 수삼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회답을 못하였다. 물론 군의 충정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수 없다.

《박군! 나는 군의 탈가를 찬성할수 없다. 음험한 지역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수 없다.

박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군의 부모와 처자가 지역 로두에서 방황하는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듯싶다. 그네들의 의지할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네들을 구하여야 할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군으로서는 너무도 박약한 소위이다.

군은 독립단에 몸을 던져 일선에 섰다는 말을 일전 황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수 없다. 가족을 못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박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아래서 짓밟히는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김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었지.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주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으랴. 정다운 벗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수 없다. 듣지 않는것이 군에게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일는지도 알수 없는 까닭이다.

김군 나도 사람이다. 정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목숨같은 내 가족이 유린받는것을 내 어찌 생

각지 않으랴? 나의 고통을 제3자로서는 만분의 일이라도 느낄수 없을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탈가한 이유를 군에게 말하고저 한다. 여기 대하여 동정과 비난은 군의 자유이다. 나는 다만 이러하다는것을 군에게 알릴뿐이다. 나는 이것을 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군도 사람이었니 내가 말하는것을 부인치는 못하리라.

2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것은 5년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에 어머니와 안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들은 몸이 새힘을 얻을가 하며 새 희망을 품고 새세계를 동경하여 떠난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간도는 천부금땅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고 농사를 잘 지으면 쌀도 흔할것이다. 산림이 많으니 나무걱정도 될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리상촌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수도 있다.)

이것이 간도 갈 때의 내 머릿속에 그리였던 리상이었다. 이때에 나는 얼마나 기뻐으랴. 두만강을 건너고 오랑캐령을 넘어서 망망한 평야와 산천을 바라볼때, 청춘의 내 가슴은 리상의 불길에 났다. 구수한 내 소리와 현현한 내 동정에 어머니와 안해도 기뻐하였다.

오랑캐령을 올라서니 서북으로 쏠려오는 봄새 찬바람이 어떻게 뺨을 갠지는지.

《에그 출구나!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로구나.》

어머니는 수레우에서 이불을 뒤집어썼다.
《무일요. 이 바람을 많이 마셔야 성공이 올것
입니다.》

나는 가장 씩씩하게 말하였다. 이처럼 나는 기
쁘고 활기रो웠다.

3

김군! 그러나 나의 《리상》은 물거품에 돌아갔
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달이 못되어서부터 거칠
은 물결은 우리 세 생령의 앞에 기탄없이 몰려왔
다.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전에는 1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의 밭
을 도조나 타조로 얻어야 한다. 1년내내 중국사람
에게서 량식을 꾸어먹고 도조나 타조를 지으면
가을추수는 빛으로 다 들어가고 또 처음 꼴이 된
다. 그러나 농사라고 못지아본 내가 도조나 타조
를 얻는대야 일년 량식빛도 못될것이고 또 나같
은 《시로도》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다.

생소한 산천이요 생소한 사람이니 어디가 어찌
면 좋을는지? 의논할 사람도 없었다. H라는 촌거
리에 세방을 얻어가지고 어름어름하는새에 보름
이 지나고 한달이 넘었다. 그새에 몇푼 남았던
돈은 다 불어먹고 밭은 고사하고 일자리도 못 얻
었다.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서 구들도 고쳐주고 가마도 불어주었다. 이리하
여 호구하게 되었다. 이때 시장에서는 나를 《온
돌쟁이》, 《구들 고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갈
아입을 의복이 없는 나는 늘 솟갸땀이 꺼명게 문
은 의복을 벗을새가 없었다.

H 장은 좁은곳이다. 구들 고치는 일도 늘 있지
않았다. 그것으로 밥먹기는 어려웠다. 나는 여름
불벌에 샅김도 매고 꼴도 베어 팔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안해는 샅방아 째고 강가에 나가서 부
스러진 나무개비를 주어서 겨우 연명하였다.

김군! 나는 이때부터 비로소 무서운 인간고를
느꼈다. 아아 인생이란 과연 이렇게도 괴로운것
인가 하는것을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나에
게 닥치는 풍파때문에 눈물 흘린 일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무를 쪼고 젊은 안해
가 샅방아를 째을 때 나의 피는 끓었으며 나의
눈은 눈물에 흐려졌다.

《애구 차라리 내가 드러누워 앓고있지 네 괴로
와하는 꼴은 차마 못보겠다.》

이것은 언제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에 어머니
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무심히 들었던
나는 이때에야 이 말의 참뜻을 느꼈다. 《아아 차
라리 나의 고기가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것은
참을수 있으나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늙은 어머

니나 안해가 배를 주리고 남의 멸시를 받는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번
가슴을 쳤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비 오나 바람
이 치나 헤아리지 많고 샅김, 샅심부름, 참나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오늘도 배고프겠구나. 아침도 변변히 못먹고,
나는 너 배 줄잡는것을 보았으면 죽어도 눈을 감
겠다.》

내가 샅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오면 아머머니는
우실듯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혼현하게
《배가 무슨 배가 고파요.》 하고 대답하였다.

내 안해는 늘 별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대로 소곳하고 아무소리없이 순종하였다.
나는 그것이 더욱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어
머니보다도 안해보기가 께 부끄러웠다. 《경제의
자립도 못하는 내가 왜 장가를 들었누?》

이것이 부모의 한 일이언만 나는 이렇게도 탄
식 하였다. 그럴수록 안해에게 대하여 황공하였
고 죄송하였다.

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이
때 내 머리를 몹시 때렸다. 이때 나에게는 부지
런한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말이 거짓말로 생각
되었다. 그 말을 지상의 격언으로 굳게 믿어온
나는 그 말에 도리어 일종의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나중은 부인하게까지 되었다.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 이
틀 사흘 굶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한번은 이
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앞에 안해가(안해는 이때에 아이를 배어서
배가 남산만하였다.)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것을 얼른 아궁지에 집어넣는
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얼 먹을가?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
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너편네란 그
런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
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안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밋게도 생각하였다. 안해는 아무말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안해가 나간뒤에 나는 안해가 먹다가 던진것을
찾으려고 아궁지를 뒤지었다. 싸늘하게 식은 재
를 막대기로 뒤져내니 별건것이 눈에 띄었다. 나
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굴껍질이다. 거기는 배
먹은 이자국이 났다. 굴껍질을 편 나의 손은 떨
리고 이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피었다.

김군! 이때 나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
할가?

(오죽 먹고싶었으면 오죽 배가 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굴껍질을 주어먹을가. 더욱 몸 비싼 것은 그가, 아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안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 몸이 어찌하여 그러한 안해에게 불평을 품었던가. 나같은 간악한놈이 어디 있으랴. 내가 량심이 부끄러워서 무슨 면목으로 안해를 볼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느껴가며 눈물을 흘렸다. 굴껍질을 천채로 이를 악물고 울었다.

《야 어째 우느냐? 일어나거라. 우리도 살때 있겠지. 늘 이렇겠느냐.》 하면서 누가 어깨를 친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인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구 어머니 나는 불효외다.》 하면서 어머니의 발을 안고 자꾸자꾸 울고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가슴을 부둥켜안고 밖으로 나왔다.

《내가 왜 우누? 울기만 하면 무엇하나? 살자! 살자!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내 어머니와 내 안해도 살아야 하겠다. 이 목숨이 있는 때까지는 벌어보자.》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눈물은 여전히 흘렸다. 안해는 말없이 울고있는 내 곁에 와서 손으로 치마끈을 만적거리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농사집에서 자라난 안해는 지금도 어찌 수집은지 내가 울면 같이 울기는 하여도 어떻게 말로 위로할줄은 모른다.

4

김군! 세월은 우리를 위하여 여름을 항상 주지 않았다. 서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찬기운은 혈맥은 우리를 위협하였다.

가을부터 나는 대구장사를 하였다. 3원을 주고 대구 열마리를 사서 등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콩과 바꾸었다. 그러나 대구 열마리는 등에 질수 있었으나 대구 열마리를 주고 받은 콩 열말은 질수 없었다. 나는 하는수없이 3~40리나 되는곳에서 두말씩 두말씩 사흘동안이나 지여왔다. 우리는 열말되는 콩을 자본삼아 두부장사를 시작하였다.

안해와 나는 진종일 매돌질을 하였다. 무거운 매돌을 돌리고나면 팔이 푹 떨어지는듯하였다. 내가 이렇게 피로울적에 해산한지 며칠 안되는 안해의 피로움이야 어떠하였으랴? 그는 늘 낮이 부석부석 하였다. 그래도 나는 무슨 불평이 있는때면 안해를 욕하였다. 그러나 욕한 뒤에는 곧 후회하였다. 코구멍만한 부엌방에 가마를 걸고 매돌을 놓고 나무를 들이고 의복가지들 걸고 하면 사람은 겨우 비비고 들었게 된다. 뜰김에 문창은 떨어지고 벽은 녹녹하다. 모든것이 후질근하여 의복을 입은채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앉은듯하였다. 이런 때는 애써 갈아놓은 비지가 이 뜰

김속에서 쉬어버린다. 두부물이 가마에서 몹시 끓어번질 때에 우유빛같은 두부물우에 빠다빛같은 노란 기운이 엉키면 (그것은 두부가 잘될 징조다.)우리는 안심한다. 그러나 두부물이 희멀끔해지고 기름기가 돌지 않으면 거기만 시선을 쓰고있는 안해의 낮빛부터 굴러가기 시작한다. 초를 쳐보아서 두부발이 서지 않고 메케지근하게 풀어질 때에는 우리의 가슴은 덜컥한다.

《또 신계로구나? 저를 어찌누?》

젓을 달라고 뻥뻥 우는 어린아이를 안고서서 두부물만 들여다보시는 어머니는 목메인 말썽을 하시면서 우신다. 이렇게 되면 온 집안은 음산하여 말할수 없는 울음, 비통, 처참, 초조한 분위기에 싸인다.

《너 고생한게 애닭구나! 팔이 부러지게 갈아서... 그거(두부)를 팔아서 장을 보려고 태산같이 바랬더니...》

어머니는 그저 가슴을 뜯으면서 운다. 안해도 울듯울듯이 머리를 숙인다. 그 두부를 판대야 큰돈은 못된다. 기껏 남는대야 20전이나 30전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호구를 한다. 20전이나 30전에 어머니는 운다. 안해도 기운이 준다. 나까지 가슴이 바짝바짝 조인다. 그날은 하는수없이 쉰두부물로 때를 에우고 지낸다. 아이는 젓을 달라고 밤새껏 뻥뻥쳐린다. 우리의 살림에 어린것도 귀치는 않았다.

5

울면서 겨자먹기로 피로운대로 또 두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땀나무가 없다. 나는 낫을 들고 떠난다. 내가 낫을 들고 떠나면 산후여독으로 신음하는 안해도 낫을 들고 말없이 나를 따라나선다. 어머니와 나는 굳이 만류하나 안해는 듣지 않는다.

내 손으로 하는 나무언만 마음놓고는 못한다.

산임자에게 들키면 여간한 경을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혼이면 산에 가서 도적나무를 하여 지고 밤이 깊어서 돌아온다. 안해는 이고 나는 지고 캄캄한 밤에 산비탈로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거나 돌에 채이면 나는 곤두박질을 하여 나무짐속에 든다. 안해는 소리없이 이었던 나무를 내려놓고 나무짐에 눌러서 버덕거리는 나를 겨우 끄집어 일으킨다. 그러나 내가 나무짐을 지고 일어 나면 안해는 혼자 나무단을 이지 못한다. 또 내가 나무짐을 벗고 안해에게 이워주면 나는 추어주는이 없이는 나의 짐을 질수 없다. 하는수없이 나는 어떤 높은 바위우에 벗어놓고 안해에게 이워준다. 이리하여 산비탈을 내려오면 언제 왔는지 어머니는 애를 업고 우들우들 떨면서 산아래서 기다리시다가도 《인제 오니? 나는

너 또 붙들리지나 않는가 하여 혼이 났다.》 하신다.

이때마다 내 가슴은 저렸다. 나는 이렇게 나무도적질을 하다가 중국 경찰서까지 잡혀가서 여러 번 맞았다.

이때 이웃에서는 우리를 조소하고 경찰서에서는 우리를 의심하였다.

-홍, 신수가 멀쩡한 년놈들이 그 꼴이야. 어디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두눈이 누래서 두부장사하는 꼬락서니는 참 더러워서 못보겠네. 불알을 달고나서 그렇게야 살리?-

이것은 이웃 남녀가 비웃는 소리였다. 그리고 어떤 산임자가 나무 일은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불문곡직하고 우리 집부터 수색하고 질문하면서 나를 때린다. 그러나 나는 호소할곳이 없었다.

6

김군! 이러구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기한은 점점 박도하였다.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손을 털고 앉았을수는 없었다. 모든 식구가 퍼래서 굶고 앓은 꼴을 나는 그저 볼수 없었다. 시퍼런 칼이라도 들고 하루라도 피로운 생을 모면하도록 쿡 쿡 찌러 없애고 나까지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칼을 들고나서서 강도질이라도 하여서 기한을 면하든지 하는수밖에는 더 도리가 없게 절박하였다. 나는 일이 없으면 없으니만큼, 고통이 닥치느니만큼 내 번민은 컸다. 나는 어떤 날은 거의 열빠진 사람처럼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일도 있었다. 이때 내 머리속에서는 머리를 움실 움실 드는 사상이 있었다.(오늘날에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전 운명을 결정할 사상이었다.) 그 생각은 누구의 가르침에 일어난것도 아니어니와 일부러 일으키려고 애써서 일어난것도 아니다. 봄 품짝같이 내 머리속에서 점점 머리를 들었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신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안해까지도... 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로력으로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확대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상인것을 참으로 몰랐다. 우리뿐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치 못하였을것이다. 그네들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였었다. 나도 이때까지 취하였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왔었다.

김군! 나는 사람들을 원망치 않는다. 그러나 마주에 취하여 자기의 죄를 짜 바치면서도 깨지 못

하는 사람을 그저 볼수 없다.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는 더욱 그저 볼수 없다.

-이 분위기속에서는 아무리 로력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만족을 느낄 날이 없을것이다. 어찌하여 겨우 연명을 한다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삶이 될것ियो. 그 영향은 자식에게까지 미칠것이다. 나는 어미품속에서 뻐뻐하는 어린것의 장래를 생각할 때면 애잡짤한 감정과 불안을 금할수 없다. 내가 늘 이 상태면(그것은 거의 정한 리치다)그에게는 상당한 교양은 고사하고 다리밋이나 남의 집 문간에 버리게 될터이니 아! 삶을 받들 만한 생령을 죄없이 찌그러지게 하는것이 어찌 애달프지 않으며 분하지 않으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나의 죄라 할가?

김군! 나는 더 참을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시려고 하는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법열을 느끼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케 하였으며 독립단에 가입케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끝보다 더 험한 일선에 서게 한것이다.

김군! 거듭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량심을 가진 사람이다. 애정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떠나는 날부터 식구들은 더욱 곤경에 들줄도 나는 알았다. 자칫하면 눈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죽는줄도 모르게 굶어죽을줄도 나는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도 남의 집 해장어멈이나 아범이며 로두에 방황하는 거지를 무심히 보지 않는다. 아! 나의 식구도 그렇것을 생각할 때면 자연히 흐르는 눈물과 뿌직뿌직 찢기는 가슴을 덮쳐잡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쥔다. 눈물을 아니 흘리려고 하며 비애에 상하지 않으려고 한다. 울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었으며 비애에 상하는것은 우리의 박약을 너무도 표시하는듯싶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고 분투하려고 한다.

김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이유를 대략 적은것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전에는 내 식구에게 편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네가 죽어도 내가 또 죽어도...

나는 이러다가 성공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이 시대 이 민중의 의무를 리행한 까닭이다. 아아 김군아! 말은 다하였으나 정은 그저 가슴에 넘치누나!

-1925. 정월-

당 비

(중국)왕원건

나는 내가 받는 보조금에서 그 일부를 떼내어 당비를 바칠 때마다, 그리고 당소조직임자가 당비를 받은 다음 나의 이름 밑에 그 액수를 적어넣는 것을 볼 때마다 저도모르게 눈곱이 뜨거워지면서 1934년 가을에 있는 일을 회상하곤 한다.

1934년은 복건, 광둥, 강서 일대에서의 우리의 투쟁이 가장 간고하던 시기였다. 그곳에 있던 우리의 홍군주력의 일부는 항일선전대에 참가하여 복상하였고 일부는 중앙홍군에 편입되어 장정길에 오를 준비를 갖추고 4월달에 떠나갔다. 적후에 남아서 투쟁을 계속해오던 우리의 소부대성원들은 홍군주력이 철수한후 얼마 못가서 국민당반동놈들의 미친듯한 《포위공격》을 받게 되어 령량을 보존하고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불 산으로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오는 비록 산우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곳 지하투쟁을 이끌고나가는 중심력량이었다. 한것은 우리 지대의 정치위원 위결동지가 바로 이 중심현의 현위원회 비서였기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회를 엿보다가 적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연락선을 리용하여 각지의 지하당조직들과 령계를 맺으면서 투쟁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있었다. 우리의 이런 눈부신 활동에 질겁한 적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집단부락》이라는것을 만들어내어 산기슭의 궁벽한 부락의 군중들을 강제로 별판에 있는 큰 부락에 이주시키었다. 적들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우리와 군중과의 령계가 끊어지고 각지의 조직들이 파괴되어 투쟁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조직을 내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산에 오르기전까지 나는 정찰병으로 활동하였다. 온종일 적전에서 분주히 뛰어다녔고 가는곳마다에서 군중의 도움을 받으면서 먹고자고하였다. 때로는 한꺼번에 적의 한개 중대를 녹여내기도 하고 보안단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기도 하였다. 참으로 통쾌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적들이 《집단부락》을 만든후부터는 그런 통쾌한 나날을 보낼수가 없었다. 생활은 말할수없이 간고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참기 어려운 고통은 군중과 함께 벌려 오던 투쟁이 갑자기 지반을 잃은것이였다. 온몸에 힘이 넘치건만 소모할곳이 없어 당황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참기 어려운 괴로움속에서 모대기고있을

때 위결동지는 나를 부르더니 《통신》사업을 맡아보라면서 산에서 내려가 지방당조직과 령계를 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주는것이였다.

이 임무를 받자 나는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물론 이번 임무는 정찰병으로 활동하던 때에 수행하던 임무와는 좀 달랐다. 그것은 《집단부락》이후의 지하당조직들을 결합시켜 서로 령계를 취하게 하고 각 부락당지부와 중심현위원회-유격대와의 통보체계를 완성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는 일이었기때문이다.

내가 가게 된곳은 팔각요였다. 이곳은 산에서부터 비교적 가까이 떨어져있는 큰 부락이었는데 서너개 부락군중이 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그곳에 옮겨앉았던것이다.

내가 접선할 사람은 황신이라고 부르는 스물대 여섯살난 아주머니였다. 그는 1931에 입당하였다고 한다. 1932년 홍군을 확장할 때 그는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자유결혼한 남편을 홍군에 보냈다. 홍군에 입대한 그의 남편은 그후 모주석을 따라 장정길에 올랐다고 한다. 지금 그의 슬하에는 다섯살짜이 계집애 하나가 남아있을뿐이였다. 적들이 《집단부락》을 만들 때 그들이 살고있던 마을을 강그리 불살라버렸기때문에 그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팔각요로 오게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집단부락》에 온 이후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당조직을 움직여나가고있다고 한다. 이렇듯 충실하고 믿음직한 동무였기때문에 이번에 그와 접선하여 현위원회의 지시를 전달하고 천천히 조직적인 활동을 벌려나가게 하자는것이였다.

이러한것들은 모두 위결정치위원이 나에게 임무를 주면서 들려준 내용이였다. 사실 나는 팔각요의 지형을 대강 알뿐 지어 접선하게 될 황신동무의 얼굴조차 모르고있었다. 이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위결정치위원은 나에게 임무를 줄 때 각별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밀하였다.

《잘 기억해두라구, 그 아주머니 귀가에 검은 김이 박여있다는걸!》

나는 곧 출발준비를 갖추고 나들이옷을 갈아입은 다음 어둠을 타서 산을 내렸다.

팔각요마을은 산으로부터 80여리 떨어진데다가 오불꼬불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하였기때문에 자정이 넘어서야 가닿았다. 이 마을은 이전에 내가 와본적이 있는 마을이였다. 그때 근거지안에서 이렇게 큰 마을같은데서는 밤마다 밭에서 일

을 마친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 야학에 간다 하며 팽과리를 울리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법적 뚫군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위가 취죽은듯 고요하고 불빛조차 없어 무덤속같이 어둡침침하였다. 어디선가 놈들의 맥빠진 웨침소리가 한두마디 들려올뿐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근거지인민들이 모두 저들이 만들어놓은 《집단부락》에 정복된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있다. 이 음산해보이는 마을에도 불씨를 안은 불꽃들이 여기저기 묻혀 점차 세차게 타오르면서 하나로 합쳐지면 삼단같은 불길로 타번지게 될것이라고!

나는 조용히 마을에 접근하여 정치위원이 가르쳐준대로 동쪽끝에서부터 열일곱번째 초막문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런데 피이한것은 자정이 넘었는데도 방안에 아직 등불이 켜져있는것이였다. 문에는 뭔가를 가지고 가리워놓았기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서는 발견할수가 없는 그런 불빛이 은근히 새어나오고있었던것이다. 누군가가 방안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분명 녀인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를 죽여가지고 나지막하게 부르는 그 곡조는 몹시 귀에 익은, 지난날 홍군을 늘어갈 때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우던 《남편을 홍군에 보내네》라는 노래였다.

.....

님이며, 님이며 홍군에 가면
언제나 돌격전에 앞장서세요
혁명 위해 싸우다 쓰러진다면
위대한 그 위업 내가 이으리

님이며, 님이며 홍군에 가면
헤여질 때 하던 부탁 잊지 마세요
홍군의 안해된 기쁨 안고서
나는 여기 농촌에서 한몫 바치리

오래동안 들어보지 못하던 노래였다. 그러한 노래를 이런 때에 듣게 되니 저도모르게 마음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이였다. 나의 생각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군중들은 여전히 붉은 마음을 간직하고 이 모진 고난속에서도 홍군을 그리며 붉은기를 추켜들고 혁명을 하던 환희에 찬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있는것이다.

혹시 노래부르는 사람이 내가 찾는 황신동무가 아닐까? 아닐거야, 어떻게 그에게 노래부를 경황이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엔 노래가 아니라 장정길에 오른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짙어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문밖에 선채 조용히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되도록이면 남편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을

이 홍군 안해의 상념을 깨뜨리고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노상 그렇게만 서있을수도 없는 일이었다. 날이 밝아오고있었던것이다. 나는 다급히 문가에 다가서서 정해진 암호에 따라 문 윗부분을 두번 두드리고 아래부분을 세번 두드리고 가운데부분을 한번 두드리었다.

방안의 노래소리가 멎었다. 나는 다시한번 같은 방법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지더니 문이 열렸다.

문안에 들어선 나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작은 초막안에 사람이 셋씩이나 빼곡이 앉아있었던것이다. 그중의 두사람은 녀인이고 한사람은 늙은이였다. 그들은 모두 커다란 남새광주리를 둘러 싸고 앉아 머리도 들지 않고 남새를 다듬고있었다. 그들의 몸가짐이 어찌나 태연했던지 사람이 들어온것도 아는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자 나는 난처하기만 했다. 도대체 누가 황신인가? 이런 정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명은 말할것도 없고 온 조직에 루가 미칠수 있는것이다. 잠시 눈을 습벽거리던 나는 돌틈에도 용수가 있다는격으로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입을 열었다.

《에이쿠, 내가 이거 잘못 들어온게 아니야?》

이 말이 크게 은을 내였다. 방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것이였다. 나는 재빠르게 눈더듬을 하며 그중의 한 녀인의 귀가에서 그 검은 김을 찾아내고야말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서며 말하였다.

《황아주머니, 나를 모르겠습니까? 로형이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나중에 한 말도 미리 약속해둔 말이였다. 본시 이곳이 《백색지구》가 된후 황신은 줄곧 자기 남편 로진용이 외지에 나가 남의 집 점방일을 본다고 말해왔던것이다.

황신은 여간만 눈치빠른 녀인이 아니였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잘 아는 사람을 대하듯 인사 하면서 나에게 나무의자를 권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세요. 남새부터 먼저 나누어가지고 돌아가세요. 소금은 차후에 나누기로 하구!》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저마끔 남새를 한아름씩 안고 조용히 물러가는것이였다.

황신아주머니도 그들의 뒤를 따라 밖에 나갔다. 바깥동정을 살피기 위해 그러는것 같았다. 그사이 나는 우리 경찰병들의 관습대로 이 홍군전사의 안해, 지하당원의 집형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나무산자를 엮은우에 흙을 발라 지은 두방짜리 초막이였다. 북쪽바람벽에 의지하여 북대기를 깔고 잠자리를 만들었는데 그우에 퍼놓은

해진 숨이불속에서는 아이 하나가 코를 벌름거리며 달게 자고있었다. 이 애가 황신아주머니의 딸인것 같았다. 바람벽 한쪽구석에는 돌 세개를 고이고 그을음이 잔뜩 오른 자배기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그가 밥을 끓여먹는 가마였다. 다시 옷쪽을 바라보니 천정가까이에 나무다락을 매고 그우에 낚은 가구며 감저나무단을 몇단 쌓아놓았었다...

내가 한창 집안형편을 살피고있을 때 황신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등잔불을 잘 가리워놓은 다음 나의 맞은편에 와 앉으며 말하였다.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예요. 최근에야련계를 맺었지요.》

그는 또 내가 이 집안에 들어설 때의 광경이 떠올라선지 바람벽 한쪽 구석에 나있는 작은 구멍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이답에 다시 올때 저기로 먼저 방안을 살피고 들어오면 아무 착오도 생기지 않을거예요.》

나는 그 말만 듣고도 그가 얼마나 로련한 지하공작원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의 나이는 정치위원이 말한것과는 달리 30내외로 보이는 중년부인이였다. 그는 머리를 우로 빗어올려 쪽졌는데 머리칼이 좀 짧아서 민망해보였다. 《머리칼을 자르고 홍군에 입대》하던 그해의 흔적이 아직도 얼마간 남아있었던것이다. 그의 얼굴은 풍만환편이 못되었지만 두눈이 역실역실하고 정기있어 사람됨됨이 인자하고 조용하면서도 또 기민해보였다.

그는 몹시 감동된듯 두눈에 물기가 어리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옷자락을 눈언저리로 가져가는 것이였다.

한참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정동무, 동무는 아마 모를거예요, 당과의 련계가 끊어지는것처럼 피로운 일이 없다는결말이예요. 그건 정말 실이 끊어진 연과 같더군요. 인민들이 놈들에게 짓밟히고 우리 홍군이 시련을 겪는것을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도 어떻게 싸워야 할가 모르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인젠 됐어요. 현위원회와 련계를 맺었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있고 동지들이 있으니 우리 어떻게든 붉은기를 다시 추켜들자요!》

본시 산을 내릴 때 정치위원은 나에게 그를 잘 위안해주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할 말까지 다 생각해두었지만 그의 말을 듣자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그는 너무도 건실한 녀인이였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가 투쟁에 대한 이야기였고 곤란같은것은 꼬물만큼도 내비치지 않으니 내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수 있었겠나? 차라리 이 녀인에게는 임무를 단도직입적으로 이

야기하는 편이 나을상싶었다.

내가 막 현위원회의 지시를 전달하려 할 때 그는 또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내 이 정신 봐요. 정동무를 만나니 너무 기뻐서 먹을걸 가져온다는것도 깜박 잊었군요.》

그는 자배기 뚜껑을 열고 감자와 담새를 버무려서 만든 쥬기떡 두개를 꺼낸 다음 구석에서 단지를 끌어당겨 그속을 한참 더듬더니 절인 무조각 하나를 꺼내들고 와서 내앞에 내놓으며 말하였다.

《집단부락에 갇힌후부터는 산과 너무 멀 떨어져있고 또 놈들의 감시가 어찌나 심한지 아무것도 올려보내지 못하여 동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거예요. 변변한건 없지만 가까이 놓구 드세요.》

담새겇 걸어와서 배도 좀 고프데다 오래동안 소금맛을 못보다가 절인 음식을 대하니 구미가 절로 돌아 나는 별로 사양하지 않고 먹기 시작하였다. 소금이 없어서 제대로 절이지 못했다는건 하지만 제법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게 먹어보니 여간 향기롭지 않았다. 소금맛을 보자 나는 저도모르게 산에 있는 동지들의 누렇게 여윈 얼굴이 떠올라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산에서는 지금 소금이 없어 무서운 고생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천천히 들면서 지하당활동에 대한 정치위원의 지시를 날날이 전달하였다. 현위원회가 지시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적들의 활동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세금과 토지수탈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것과 같은 문제들이였으며 그리고 부닥칠수 있는 일련의 난관들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문제들이였다.

황아주머니는 나의 말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가지 문제를 묻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정치위원동지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곤난이 없는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예요. 18년(1929년)에 일을 잘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놈들의 여러 차례의 <포위공격>을 물리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의 임무도 능히 해낼수 있다구봐요!》

그는 이렇게 견결한 어조로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그 어려운 임무를 고스란히 말아안는것이였다.

우리는 또 한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닭이 해를 치며 울었다. 나는 선뜻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이 첫대면이었기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자욱히 내린 아침안개를 리용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내가 문밖에 나서려고 할 때

그는 또 나를 불러세우고는 옷깃을 제끼고 안천을 찢더니 그속에서 작은 종이꾸레미를 꺼내는 것이었다. 종이꾸레미속에는 당원증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제는 보풀이 일어 퍼그나 낡아보이는 당원증이었지만 그우에 찍힌 낫과 마치며 현위원회의 공인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있었다. 당원증갈피에는 은전 두잎이 끼워있었다. 그는 은전을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나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정동무, 이걸 애아버지가 싸움터로 가면서 저에게 남기고 간거예요. 저는 <집단부락>에 들어온 후 몇달동안 당비를 바치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정치위원동지에게 드려주세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구 가지고 가면 당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거예요.》

이런 때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상급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둘째로는 녀성의 몸으로 어린애를 데리고 변변한 일거리도 없이 살아가는 형편에서 지하공작을 하고있으니 돈이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당비에 관한 문제는 상급에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건사하고계십시오!》

그는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도 옳아요. 지금과 같은 형편에선 쓸모있는 물건을 보내는게 더 나을테지!》

당비를 돈으로 바치기보다 쓸모있는 물건으로 바치려는 그의 생각은 또 얼마나 주도세밀한가! 그러나 이말때문에 일이 생길줄을 그 누가 짐작인들 했겠는가!

보름남짓하게 지난 뒤였다. 국민당 반동놈들이 《집단부락》을 만든후에도 군중들의 투쟁이 계속 양양되자 그에 주의를 돌리면서 몇몇 동요분자들을 리용하여 우리 조직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바람에 한두부락의 당조직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어 나는 또다시 새로운 지시를 받고 팔각요로 가게 되었다.

황아주머니의 집앞에 당도하자 나는 그가 일러준대로 바람벽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가물거리는 등불앞에서 그는 한창 무엇인가를 하고있었다. 방바닥 여기저기에 절인 남새무지가 쌓여있고 전번에 왔을 때 절인 무우를 꺼내주던 그 단지가 나와있는가 하면 절인 배추며 절인 무우, 절인 잠두콩도 보이고 누런것, 퍼런것, 별의 별 색깔의 남새가 다 있었다. 그는 이런 남새들을 정리하여 큰 광주리에 차곡차곡 담아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청얼거리는 딸애를 달래는 것이었다.

《애야, 이걸 우리 먹을게 아니란다. 이걸 엄마가 가지고 가서 팔거란다. 이걸 팔아서 돈이 생기면 너한테 군빵을 사다주마... 그래그래, 뭐나다 사다주지! 이걸 우리 먹을게 아니란다. 우리 먹을게 아니구말구!》

딸애는 어른들과 달라 생활의 세화에 시달리우는것도 아니었지만 어머니보다도 더 무섭게 여윌었다. 가느다란 목을 가지고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것 같은 여원 얼굴을 어머니몸에 맥없이 기대고는 그 역시 소금맛을 본지 오랜듯 절인 남새무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줄곧 입을 다시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달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옷자락을 뱅글뱅글 비틀어가지고 이발로 물어뜯던 그는 엉금엉금 단지앞으로 기여가서 고사리같은 손을 단지속에 넣어 손가락으로 소금물을 묻혀내어 입에 넣고 빠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것도 성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손을 뻗쳐 절인 잠두콩꼬투리 하나를 움켜쥐고 입에 넣으려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이와 광주리를 번갈아보더니 얼른 그것을 나무채는 것이었다. 아이는 와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코마루가 시큰하여 더는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방안에 들어가 기 바쁘게 입을 열었다.

《황아주머니, 아주머닌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는 물건이라든 제자식이 먹는게 뭐가 대수라구 그러니까! 아이까지 울리면서...》

그는 나를 보자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다가 내가 성이 잔뜩 나서 나무라자 그는 긴 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정동무는 정말 이걸 팔려는 물건인줄로 알았나요? 요즘 세월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한데 제가 어떻게 절인 남새를 팔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 몇 몇 당원들이 모은건데 산에서 싸우는 동지들의 곤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구 당에 당비로 바치려는 물건들이예요. 방금전에 다 모아놓고 동무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어요.》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내가 처음 접선하러 왔을 때 만난 사람들이 다듬던 그 남새가 바로 이 절인 남새로 되었다는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황아주머니는 나와 딸애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나에게 말하는것 같기도 하고 혼자 말하는것 같기도 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 당이 있고 우리의 홍군만 있으면 아이들의 장래는 능히 담보될거예요!》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빈 단지걸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맴돌고있었다.

나는 손이 닿는대로 잠두콩꼬투리를 한웅큼 쥐여 어린애의 손에 들려주며 말하였다.

《아이들에게 고통을 줄바엔 내 차라리 열흘을 굶고말겠소!...》

나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밖에서 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더니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서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급히 부르짖었다.

《아주머니, 빨리 문을 열어요!》

문안에 들어선 사람은 내가 처음 접선하려 왔을 때 방안에 앉아 남새를 다듬던 녀인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하였다.

《어떤놈이 산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는걸 고자질했어요. 지금 놈들이 수색중에 있는데 빨리 피하세요! 나는 또 다른데 가서 알려줘야겠어요.》

그는 말을 끝내기 바쁘게 슬그머니 사라졌다.

나는 정황이 생겼다는 말을 듣자 다급히 말하였다.

《나는 가야겠습니다.》

황아주머니는 나를 붙잡으며 말하였다.

《안돼요! 놈들이 수색중에 있다는데 어델 간다구 그래요. 이젠 물썰틈도 없을거예요. 빨리 숨으세요!》

나도 그러한 형편을 예감하지 못한건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나는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방금전과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가 아니라 완강하고도 결단성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지하공작규률대로 여기서는 내 말을 들어야겠어요. 당을 위하여 동무는 살아야 해요!》

그는 다락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빨리 올라가 숨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여선 안되겠어요. 모든걸 제가 다 감당해내겠어요!》

놈들의 웨침소리며 발자국소리가 점점 더 가까와졌다. 나는 다락우에 올라가 마루짚으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황아주머니는 남새광주리를 짚으로 덮고나서 날째게 딸을 안고 입을 맞추다가 다시 내려놓고는 몸을 뒹 돌리더니 나를 향해 말하는것이였다.

《정동무, 놈들이 댜새를 말은 조건에서 아무래두 이 고비를 넘길것 같지 못해요. 만일 저의 신상에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팔각요의 당조직이 있고 <토지수탈>을 반대하는 투쟁도 이미 다 포치해놓았으니 우리는 해낼거예요. 이달에 다시 연락할 일이 생기면 호민영동무를 찾으세요. 방금전에 연락하러 왔던 그 녀동무예요. 잘 기억해두세요. 그는 마을 서쪽켠에 살고있는데 북쪽으로부터 헤여서 네번째 초막이예요. 문앞에는 한그루의 작달막한 용나무가 서있구...》

황아주머니는 남새광주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

었다. 《정동무, 어떻게든 이 광주리안에 있는 절인남새를 산으로 가지고 가주세요. 이젠 우리 조직원들이 바치는 당비예요.》

잠시 말을 끊고 바깥광정을 살피던 그는 다시 말을 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전처럼 자못 부드럽게 들렸다.

《이 엘 말이예요. 정동무가 데리고 갈수 있다면 산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외지에 데리고 가서 기르다가 우리 홍군이 돌아온 다음 이 엘 로진용동무에게 맡겨주세요.》

그는 또 말을 끊었다. 가슴속 충격이 너무도 컸던 모양이다.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어요. 전번에 동무에게 바쳐달라고 하던 돈과 나의 당원증도 함께 가지고. 가주세요. 그 돈에서 일원은 소금 사는데 썼어요. 저 자배기안에 넣어두었으니 잊지 말고 꼭 가지고 가주세요!》

그가 방금 말을 마쳤을 때 놈들이 벌써 문어구에 들이닥쳤다. 그는 얼른 돌아서서 아이를 안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듯 딸애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흡사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드럽고 선량하면서도 태연자약해보였다.

놈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 문을 열었다. 네댓명의 국민당졸개놈들이 뛰어들었다. 놈들은 다짜고짜로 그의 댜살을 틀어쥐며 물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몰라요!》

놈들은 방안 여기저기를 발각 뒤졌다. 모두들 손땀이 풀렸을 때 갑자기 한놈이 광주리안에 있는 절인 남새를 발견하고 한쪽발로 차엎었다.

남새가 쏘아지자 그놈은 날창으로 뒤적거리더니 무슨 댜새를 말기라도 한듯 이렇게 물었다.

《이 절군 댜새는 어디서 가져왔어?》

《집에 있던거요!》

《집에 있던거라구? 그런데 왜 이렇게 잡동사니냐? 산에 보내자구 모은게 아니야?》

그놈은 다시한번 방안을 휘돌아보더니 다른 놈들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다시 뒤져!》

이 방안에선 이제 뒤질곳이란 다락뿐이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별안간 황신동무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알면서 뭘 물어요!》

그는 악을 쓰며 문가에 달려가 목이 터져라고 웨쳤다. 《정동무 서쪽으로 뛰러요!》

피뢰군 두놈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놈들의 발자국소리가 서쪽으로 사라져갔다. 방안에 남아

있던 피뢰군 두놈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기발한 생각으로 하여 일이 무사히 지나갈줄로 알았다. 그가 잡혀가는것을 보자 나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잡혀가서 희생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있단말인가? 안된다. 내가 가야 한다. 나는 비록 적수공권이지만 저깅놈 한둘쯤은 문제없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였다. 황신동무가 고개를 돌리더니 놀라서 어쩔줄 모르는 팔애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길게 뿜으며 말하였다.

《애야,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들은 그의 마지막 말이였다.

이 말은 나에게 놈들이 들이닥치기전에 그가 하던 말을 상기시켜주어 나는 애써 가슴속 충동을 억누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한 이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나하나뿐이였다. 여기서 어머니란 바로 조직을 의미했던것이다.

그날밤, 마을이 조용해진 뒤에야 나는 아이를 달래며 울음을 그치게 했다. 나는 흠어진 절인 남새를 주섬주섬 모아놓고 자배기속에 감추어둔 황신동무의 당원증과 그 은전 한잎을 찾아낸 다

음 한쪽 광주리엔 아이를 담고 다른쪽 광주리엔 절인 남새를 담아메고 산으로 올라갔다.

위결정치위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나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팔각요의 정황을 상세히 연구하고 나서 그제야 이전처럼 당비등록부에 정자로 이렇게 써넣는것이였다.

황신동지는 1934년 10월 21일 당비...

그는 더 써내려가지 못하고 붓을 멈추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엄숙한 표정을 보았다. 그는 오래동안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앞에 놓여있는 당원증과 절인 남새를 내려다 보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폴잎에 내려앉은 이슬에 적셔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얼룩진 눈물자욱을 살근살근 닦아주는것이였다.

그는 끝내 황신아주머니의 이름밑에 당비의 액수를 써넣지 못하였다.

그렇다. 한광주리의 절인 남새는 수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계산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 공산당원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계산할수 있었겠는가? 한 당원이 당에 바친 그 고결한 정신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수가 없는것이다.

(강화태 역)

북녘으로 출정하며

남 이

칼을 갈아 백두산의 돌
다 없어지고
말을 먹여 두만강의 물
다 마르리라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를 편안케 하지 못하면
뒤날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리

시름

김만취

지난 봄에 머느리가 죽었고
울가울에 젖먹이를 잃었네
슬프다 어린것과 그 어미는
서로 찾아 어디서 헤매이는지

내 무릎에 두 손자 남았으나
아직도 너무 어려 철을 모르네

날마다 뛰놀기만 하다가도
때때로 배를 따내라는구나

내앞에서 성화를 먹일 땐
야단을 치려다가 다시 생각네
만일 저 애들이 어미 그리워
울기라도 한다면 갑절 애타리

장갑

(독일)쉴러

사자가 든 살창을 앞에 놓고
프랑츠왕은 자리에 앉아
싸움 불일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둘레에는 벼슬높은 고관들
높다란 로대우에
귀부인들 예들려 아름다운 꽃테를 이루었다

손가락으로 왕이 신호하자
큰 살창 철커덩 열린다
엄엄한 걸음걸이로
한마리 사자가 나와
묵묵히
주위를 살펴보며
긴 하품을 하고서는
갈기를 털며
사지를 짹 펴고
드러눕는다

왕이 다시 신호하자
두번째 살문이
재빨리 열리더니
사납게 나는듯
한마리의 범이
살문속에서 뛰어나온다
범은 사자를 보자
큰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긴 꼬리로
으리으리하게
동그라미를 그으며
허바닥을 길게 빼물고
무섭게 으르렁대며
조심조심
사자옆을 빙빙 돌다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그옆에 드러누웠다

왕이 다시 신호하자
열려진 두개의 살창에서

한꺼번에 두마리 표범이 뛰어나와
싸움에 복받친듯
범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범의 무서운 앞발은 표범을 움켜잡고
사자는 으르렁대며
몸을 일으켰다-엄엄한 장내
빙빙 둘레를 돌아치며
살기 떤
무서운 범과 두마리의 표범은 흘기고있었다

이때였다. 로대의 란간에서
장갑 한짝이 아름다운 손길로부터
범과 사자가 맞서고있는
그 한가운데 떨어져내렸다

쿠니군드공주는 조롱하는듯이
기사 데로르게스쪽을 돌아보며
《기사님,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맹세하듯 열렬하시다면
어서 저 장갑을 주어다주세요.》
기사는 재빠르게
침착한 걸음걸이로
무서운 살창앞에 내려가
맹수의 한가운데로부터
아무렇지 않게 장갑을 집어들었다

놀라움과 겁에 질리며
기사와 귀부인들 그를 지켜보는 속에
그는 태연히 장갑을 들고 돌아왔다
모든 입에서는 그를 찬양하는 소리 끊어올랐다
아릿다운 사랑의 눈매로
다가올 행복을 속삭이면서
쿠니군드공주는 그를 맞이하고있었다
그러나 기사는 장갑을 그의 낮찍에 꿰
뚫려던지며

《공주여 그런 인사따위는 받고싶지 않소이다!》
그는 즉시 공주곁을 떠나고말았다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와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 요강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진행한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 심사결과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524페이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전국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1980~1981년도 방송극작품현상모집사업에는 전국 각지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수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방송극작품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과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극, 방송소설

1등 방송극 《삶의 갈림길에서》 최효심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

2등 방송극 《아들의 마음》 김동욱 (희천공작기계공장 신문편집부 편집원)

2등 방송소설 《위훈에 대한 이야기》 리수명 (청진의학대학병원 로동자)

3등 연속방송극 《수리개들》(7회분) 류동호 (평안남도 회창군 도시경영사업소 설비관리원)

3등 방송극 《영원한 상봉》 배연록 (평양곡산공장 지도원)

가작 방송극 《지름길》 김순영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

△ 동화극

2등 동화극 《알락이의 마음》 리춘화 (황해북도 서흥군 백암협동농장 농장원)

△ 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남

쪽에서 온 편지》

1등 《천복이와 만길이》 (룡림탄광편) 오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룡림탄광 굴진공)

1등 《남쪽에서 온 편지》 (미소정책 폭로편) 최영범 (황해북도 황주군 삼전고등중학교 교원)

2등 《남쪽에서 온 편지》 (민원실 내막 포로편) 리운진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읍)

3등 《천복이와 만길이》 (두단오리공장편) 김정현 (평양시방송위원회 기자)

3등 《남쪽에서 온 편지》 (군수기지 신설책동 폭로편) 리세원(황해북도 사리원시 만금고등중학교 교장)

가작 《천복이와 만길이》 (농촌토지건설편) 최치흥 (평안남도 녕원군 읍협동농장 농장원)

가작 《천복이와 만길이》 (모내기편) 리하일 (평안남도 순천군 신창리)

가작 《남쪽에서 온 편지》 (반동적보건시책 폭로편) 문영훈 (함경북도 위생방역소 위생선전관 관장)

가작 《남쪽에서 온 편지》 (학원탄압책동 폭로편) 황령아 (과학원도서관 사서)

△ 토막극, 재담

2등 토막극 《열쇠》 주종만 (11월8일 광산로동자)

2등 토막극 《남의 일이 아니다》 허영구 (황해북도방송위원회 기자)

3등 토막극 《토론준비》 최동학 (과학원 정밀기계공장 설계원)

3등 토막극 《두 운전수》 리웅천 (평양시 모란봉구역 화물자동차사업소 운전수)

3등 재담 《희황한 전망, 웅대한 목표》 배상훈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

가작 토막극 《중한 문제》 한광복 《함경북도 라
진시 리진리》

가작 토막극 《기특한 마음》 강옥녀(4월3일공
장병원 간호원)

가작 토막극 《검사원의 인정》 김성호
(김책제철소 로동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요강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을 민
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며 당 제6차대회
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
무하기 위하여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
의 탄생일인 1982년 4월 15일을 앞두고 방송극
작품 현상모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현상모집작품의 종류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아동방송극, 동화
극, 편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편속아동방송
극 <남쪽에서 온 편지> 토막극, 재담.

2. 현상모집작품의 주제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
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②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과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
위훈을 발휘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내용
으로 한 작품.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
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진
군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④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높
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

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시련
과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3대혁명로선을
빛나게 관철해가고있는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의 새로운 방안을 높이 받들고 신심과 희망
에 넘쳐 조국의 지주적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
가고 있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조선공민들의 투
쟁을 주제로 한 작품.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해외공민을 포
함하여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 응모작품을 보내는곳과 보내는 방법

△ 보내는곳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부.

△ 보내는 방법

우편 또는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겉봉에는 《현상응모작품》이라고 써야 하며 반
드시 응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직장직위
와 집주소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5. 응모작품을 받는 기간과 심사 결과 발표

△ 응모작품 받는 기간

1981년 7월 1일부터 1982년 3월 31일까지.

△ 심사결과 발표

1982년 4월 15일을 전후하여 방송과 출판물을
통하여 발표한다.

6. 응모작품에 대한 처리

우수한 작품을 낸 당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상을
준다.

응모작품중 사상예술성이 높고 시기별로 중요
한 작품들은 심사결과 발표전에 방송한다.

※ 투고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새로 나온 고전소설 소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전문학예술작품도 좋은것을 더 많이 찾아내여 출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옛날 소설들가운데서 내용은 좋으나 읽을 재미가 없이 씌여진것들은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살리면서 원작을 기초로 하여 다시 쓸수도 있습니다.》

최근 문예출판사에서는 4×6판으로 된 고전소설 《홍길동전》(로은옥 윤색), 《장화홍련전》(신진준 윤색), 《량반전》(조령출 윤색)을 한책으로 하고 《박씨부인전》(리영규 윤색), 《채봉감별곡》(최창섭 윤색)을 다른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 고전소설들은 원작에 기초하여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살리는 방향에서 윤색하였다.

△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17세기초 허균이 창작한것이다.

주인공 홍길동은 권세 높은 량반집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뛰어난 재질과 인품을 가지고있었으나 몸종의 몸에서(서자로) 태어난탓으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던 나머지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다. 앉아서 그냥 죽을수 없었다.

홍길동은 집을 뛰쳐나간다. 혈혈단신 어데로 갈것인가 그는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산속으로 들어간다.

홍길동은 농민봉기군의 우두머리로 되어 맹활약을 한다.

그는 합전해인사, 함흥감영을 습격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봉물을 빼앗아내는 등 봉건통치배를 반대하여 싸운다. 봉건왕조는 간담이 서늘하여 어쩔바를 모른다.

봉건통치배들과 끝까지 대결하여 계속 통패하게 싸워주었으면...

그러나 홍길동은 료도국으로 가서 봉건적인 《리상사회》를 세우고 자신이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고전소설 《홍길동전》은 우리 나라 문학발전력사에서 처음으로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과 싸우는 인간형상을 창조하였고 농민봉기군을 무대에 등장시켜 형상한 우수한 고전작품이다.

△ 《장화홍련전》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은 구전설화에 토대하여 18세기말~19세기초에 창작된것으로서 작가는 알려져있지 않다.

소설은 봉건적가정에서 벌어지는 전처자식과 후처(계모)간의 갈등을 통하여 봉건적가족제도의 불합리와 량반가정의 부패상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장화와 홍련은 얼굴이 일색 일뿐아니라 마음씨 또한 곱고 착하며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다. 그런데 후처인 허씨는 일찌기 어머니를 여윈 불쌍한 두 자매를 모해하기 시작한다.

후처 허씨는 전처의 재산을 탐냈던것이다.

허씨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시킬것을 꿈꾸고있었다.

허씨는 장화가 남녀행실이 부정하여 임신하였다는 거짓을 꾸미기 위해 여우같이 교활한 술책을 써서 남편인 배좌수에게 고자질하였다.

오직 봉건유교관념에 사로잡혀 눈뜬 소경이 된 배좌수는 자식을 사랑하기는 하면서도 그 내막을 알아볼 대신 허씨의 꾀임에 넘어가고만다.

허씨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시켜 장화를 못에 빠뜨려 죽인다.

홀로 남게 된 홍련은 눈물로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도 언니가 죽은 잔잔한 못가에 몸을 던지게

된다.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인 장화와 홍련은 철산 부사 정동호의 《어진》 정사에 의해 원한을 풀게 되었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소설은 착하고 어진 사람은 기어이 복락을 찾을 수 있지만 악한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 《량반전》

이 소설은 18세기중엽 박지원이 창작한것이다. 정선고유의 한 량반이 하도 가난한탓으로 관가에서 꾸어먹은 환자쌀을 갚기 위해 상놈부자에게 쌀 천석을 받고 량반신분을 팔았다. 부자이긴 하지만 신분이 상놈이라 천대와 수모를 받아오던 상놈부자가 량반신분을 샀으니 얼마나 경사였으랴.

돈만 있으면 상놈도 량반이 된단말이지...

이곳 군수는 량반신분매매를 확인하고 공식적

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다.

그 문건에는 량반의 《례의범절》과 《특권》들이 하 많이 적혀있었다.

문서의 내용을 들던 상놈부자는 펄쩍 뛰며 부르짖는다. 《고만두시오. 그래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거요?》 량반이 되겠다던 기쁨은 어디로 가고 이렇듯 불에 덴것처럼 펄쩍 뛰며 부르짖는가?

량반이 도적놈이란말인가?

독자들이 읽어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 《박씨부인전》

이 소설은 17세기중엽이나 후반기에 창작되었을것이라고 짐작되나 작가는 알려져있지 않다. 그 생김새가 흉하기 짝이 없는 주인공 박씨, 그러나 기묘한 재주와 신기한 도술을 가지고있는 현숙한 부인 박씨.

박씨는 리시백과 결혼하자 남편을 장원급제하게 하며 《공》을 세우게 한다. 그러니 외모가 못생겼다고 하여 그의 마음까지도 못생긴것이 아니었다.

소설의 뒤부분에서 박씨부인은 침략해온 청나라의 장수 룡골대를 죽이게 하고 그의 형인 장수 룡골대를 궁지에 몰아넣어 쫓아버린다.

소설은 주인공 박씨부인을 당시 실재한 인물들이었던 리시백과 림경업 등과의 호상관계속에서 형상하면서 청나라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당시 정세와 전쟁진행과정을 비교적 폭넓게 그리고있어 인민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심 등을 잘 보여주었다.

△ 《채봉감별곡》

《채봉감별곡》은 19세기 후반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짐작되나 작가는 알려져있지 않다.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이는 자기 집 담장밖으로 지나가던 젊은 청년 장필성과 우연한 상봉으로부터 그와 사랑을 맺게 된다. 그러나 방금 시작된 달콤한 사랑은 너무도 뜻밖의 된서리를 맞게 된다. 벼슬에 눈이 어두운 김진사가 서울에 올라가 봉건국가의 세력가인 허관서로부터 현감자리를 얻기 위해 그에게 퇴물과 함께 딸 채봉이까지 첩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던것이다.

김진사는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할수없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던 채봉은 장필성을 생각하여 도중에서 도망쳐 다시 평양으로 내려온

다.

서울에 올라간 김진사는 가산을 도적맞히고 허관서와 약속을 어긴탓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채봉이는 서울로 올라간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 기생으로 몸을 팔아 돈을 얻어낸다. 채봉이는 비록 기생이 되었으나 장필성이와의 사랑은 변할수 없는것이였다.

주인공들의 그후의 운명은 독자들이 읽으면 알것이다.

본사기자 김원복

인간-당일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모든 문화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문학잡지 《조선문학》을 열렬히 사랑하는 독자의 한사람인 나는 얼마전에 그 발행 400호에 실린 여러 단편소설들을 매우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시대의 숨결과 맥박, 의지와 지향 그리고 감정과 정서에 이르기까지 무한대한 인간생활의 영역을 구체적이며 진실한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는 《조선문학》은 나에게 잠시라도 떨어지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이며 스승입니다. 변함없는 우정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나에게 옳고 참된 생활의 길을 가르쳐주곤하는 길동무! 그는 자주 아름다운 생활을 펼쳐보이며 그 한복판에 나를 세워놓고 다양한 색깔과 정서 그리고 음향과 감성으로 나의 심장과 넋을 뜨겁게 달구어준답니다. 쇠물이 끓는 용해장에서 쇠물빛이 어린 영웅로장의 미더운 모습을 알려주며 때론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 들에서 낱알을 익히는 사랑스러운 두련인의 다정한 미소로 마음을 즐겁게도 하여주며… 오늘의 나의 길동무는 의의깊은 400호에서 나를 눈내리는 어느 한 고요한 농촌마을의 밤길로 이끌어줌으로써 훌륭한 한 당일군과 사귀도록 하여주었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시대의 한 평범한 당일군을 그린 단편소설 《밤길》(박사영)을 읽은지 퍼그나 오랜 시일이 지났건만 나의 마음은 지금도 그 고요히 눈내리는 밤길을 걷고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한 인간의 마음속 그늘을 헤아리고 그를 비판한 행정일군을 앞세우고 밤길을 걷는 리당비서! 그는 《요란하고 성깔스럽게》 울리지 못하는 프락포르동음소리와 《모자를 벗고 깎듯하게 인사를 하는》 운전수의 인사치레에서 《정상적》인 생활자세를 잃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영준비서는 프락포르운전수 조용관에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심리적변화를 포착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위의 인간들을 뜨겁게 대할줄 아는 참다운 일군들만이 느끼고 감각할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준비서는 운전수의 《비정상적》인 자세를 통해 대치차이발을 부러뜨려 비판을 받고 눈오는 밤 활창대 실으려 가는 그의 심리적고충을 느끼며 그가 스스로 택한 길을 두고 못내 기뻐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그를 비판한 관리위원장은 사무실의 아늑한 방에서 텔레비죤구경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원영준비서는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왜 그런지 온몸에 맥이 탁 풀리는것이였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고맙게 여겼던 (제때에 비판을 준것으로 하여) 관리위원장에 대한 믿음이 졸지에 무너져 내리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풀이 죽어 운전대를 잡고 이리흔들 저리흔들 하며 싸리재골로 들어가 고있을 조용관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눈앞에 밝혀왔다

그렇습니다. 관리위원장은 자기의 아래일군의 잘못을 제때에 옳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대가 진정 달게 접수했는지, 쓰거워하는지, 부끄러워하는지, 창피해하는지, 욕되게 느끼는지, 심드렁해하는지… 준비정도와 성격에 따라 비판이 일으키는 여러가지 효과와 생활감정을 애당초 알고도 하지 않았던것입니다. 비판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것이라고 하여도 뜨거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참다운 의미에서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으로 될수 없습니다.

자기가 것처럼 믿었던 일군이 행정실무화되어 버렸음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생각한 비서는 준절한 목소리로 그를 비판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오는 날, 관리위원장을 앞세우고 밤길을 거닐므로써 실로 인간적이며 생활적으로 그를 《비판》합니다. 그는 관리위원장이 제논으로 싸리재골로 떠난 남편을 기다려 잠 못드는 안해의 그늘진 얼굴을 보게 하며 주요하게는 개운치 못한 마음을 안고 떠난 운전수를 마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프락포르운전수 조용관이 자기를 비판한 관리위원장이 자기를 마중하여 밤길을 걷는것을 보았을 때, 그때까지도

비판을 자기의것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는 마침내 눈물이 그렇하여 울먹거리며 그것은 그대로 관리위원장의 가슴을 몽클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길을 걷지 못했던들 조용관의 이 감격스런 모습을 볼수는 없었을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밤길을 걸었다. 그러나 언제 한번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는 밤길을 걸은적이 있었던가? …

원영준비서는 이렇게 행정실무화되어 차갑게 얼어붙었던 관리위원장의 심장에 뜨거운 사랑의 온열이 흐르도록 하여주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가르치심대로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을 옳게 수행하여나 가도록 이끌어주고 내세워주는 당일군의 참다운 모습인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인간적이며 생활적인 당일군들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사회의 사람들 호상관계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것처럼 혈연적인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느낀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또 불행한 인간은 없을것입니다.

원영준비서가 깨우쳐준 길을 따라 저도 걸으렵니다. 나의 주위사람들, 함께 호흡하는 전우들을 위해 밤이 새도록 걸을수만 있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싶습니다.

함북도 승리화학공장 노동자 리 명

계급투쟁을 취급한 력사소설을 더 많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급투쟁을 잘하고 우리 혁명을 잘해나가는데 있는것만큼 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소설들을 많이 써내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학예술론》, 49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작된 장편력사소설 《감옥농민전쟁》 제2부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던 2부를 손에 들고 첫장을 번지는 순간부터 마지막장을 넘길 때까지 그야말로 작품의 세계에 심취되어 주인공 상민이며 전봉준, 학세, 영아, 돌석, 리섭이들과 웃음도 같이 하고 눈물도 함께 뿌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1894년 3월부터 이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진주입성까지의 약 3개월동안의 투쟁과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소설은 당시의 력사적사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고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다시 없이 행복한 사회주의락원에서 태어나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자라난 저는 이 소설을 통하여 봉건사회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얼마나 가혹하게 유린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을 신분제도에 얽매여놓고 거마리같이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었

습니다.

당장 풀일 끼니거리가 없어 점순이라는 종에게 바가지를 돌려 동네로 내몰면서도 방안에 들어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량반행세를 하는 김생원과 그 《아씨》들의 형상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들의 형상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가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부민란이 일어나고 몽득이가 빼앗아온 종문서를 받아든 리진사네 종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여 소리내어 울고 또 읍니다. 미륵이는 손에 쥐고있던 자기의 종문서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이 문서쪽 하나로 해서 내가 열다섯해동안이나 이놈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구나.》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이 없고 땅이 없는탓으로 열다섯해, 아니 대대로 내려오면서 량반 부자놈들의 개돼지보다 못한 종살이를 해야 하였던 봉건사회였습니다. 하기에 그들은 마당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 권한의 종문서를 쪼박도 남지 않게 불살라버린 다음 농민군대오에 합류하였던것입니다. 봉건착취계급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풀며 조선땅에 들어와 살판치는 왜놈과 양놈을 몰아내고져 《적왜척양》, 《보국안민》의 기치를 든 그들은 자주

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에 또 한페지의 기록을 남길 갑오농민전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갔던것입니다. 이 투쟁대오의 앞장에는 우리의 주인공 상민이가 서있습니다. 이미 제1부에서 낯을 익힌 주인공 오상민을 2부에서 다시 만나니 오래동안 헤어졌던 벼를 만난것처럼 반가왔습니다.

한갓 가정살림이나 걱정하던 순박한 20대의 청년 상민이가 농민군의 총포대 대장이 되어 리진사네 고간문을 부시고 모여온 마을사람들에게 웨치는 목소리가 방금 들려오는듯싶습니다.

《저 고간에 있는것들이다 우리의 피땀을 빨아다 쌓아둔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다 우리의것입니다. 읍에서 지금 량반놈들을 매일같이 징발하고있습니다. 리진사놈도 이제 붙잡으면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 상민의 형상은 계급적으로 자라난 성공적인 형상입니다.

오상민은 정의감과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할뿐아니라 위험앞에서도 주저가 없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조선청년입니다. 그의 슬기와 용맹은 황토현싸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있습니다. 오상민은 금산장돌뱅이로 가장하고 농민군을 탄압하러온 관군속에 들어가 그들을 유인해다가 통쾌하게 죽치며 전봉준이 전주로 떠나고 백산에 혼자 남았을 때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소위 왕의 《륜음》을 가지고온 관리들을 골탕먹여 쫓아보내는것입니다. 장편소설에서 식구들을 모두 굶겨죽인한 농민이 도망치는 리진사를 낚으로 찍는 장면이며 영아의 오빠 리섭이가 조범갑군수놈을 몽둥이로 죽쳐대는 장면들은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성으로 육박해 들어가는 농민군의 기세에 겁을 먹은 봉건통치배들은 청국에 원병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던 일본 침략자들에게 조선 내정에 간섭할 구실을 주는것으로 되는것입니다.

한편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안핵사 리용

태에게 400명의 역졸을 주어 온 고부군을 피바다에 잠기게 합니다. 저의 머리에 지울수 없는 생생한 화폭으로 안겨오는것은 안핵사 리용태놈이 고부군 양교리에서 저지른 악랄한 만행을 그린 대목입니다.

그놈의 역졸들은 고부민란에 나섰던 농민들과 그 가족들을 룡도망치로 짓이겨죽이고 칼로 찢어죽이며 갓난애를 산채로 집안에 가둔채 불태워죽이는 등 갖은 악랄한짓을 다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무친 원한이 가슴 후련하게 풀리도록 농민군과 함께 이런 놈들을 무자비하게 요정내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반인민적통치배들의 악랄한 만행은 지나간 역사의 폐지들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와 전두환살인악마들은 자유와 민주,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광주의 영웅적항쟁자들을 가장 악랄한 야수적방법으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으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을 매일같이 검거투옥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놈과 같은 인간백정, 역사의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자기가 맡은 혁명과업에 더욱 분발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습니다.

참으로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는 지난날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오늘도 침략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광하는 미일침략자들과 전두환 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게 하며 독자들을 계급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어서 빨리 《갑오농민전쟁》의 제3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소설을 더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정성희